

연구보고서 2015-01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 조사

연구책임자: 고 지 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연구기간: 2015년 4월 ~ 7월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우리나라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환경의 조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확대, 일·가정 양립 등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의제가 국가적 정책 과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30~40대 연령층 인구의 유입 등 대안적 삶을 찾아서 제주를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 아동, 가족이 행복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주사회에서는 여성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20-64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분야는 양성 평등, 경제활동, 일·가정 양립, 자녀돌봄과 가족생활, 여성 복지, 건강, 여가·문화 등 다양합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요조사 결과를 상세히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사회에 필요한 여성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사에 참여해 주신 1,000명의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여섯 분의 자문위원님과 세 분의 연구평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연구의 책임을 맡아 수고한 고지영 연구원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을 담아 마련된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연구가 성평등하고 여성과 가족들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유용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7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 혜 순**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동안 제주도의 특성화된 여성정책 마련을 위하여 199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왔으며, 현재까지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 수립에 이르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및 제주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토대 위에서 지역 여성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2015.7.1.)되는 현 시점에서 제주 사회의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체감형 여성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제주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수요 조사는 부족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의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향상 및 주요 여성정책 분야별로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여성정책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주목적은 제주도민의 여성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한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 고찰
 - 제주지역 및 타 지역의 여성정책 관련 조사 현황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실시
 -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실시·분석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향후 제주 여성정책 제언

○ 연구의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음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 조사연구 검토 · 중앙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및 관련 정책 검토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의견 수렴('15. 4. 8)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5. 4. 17)
4단계	설문지(안) 의견 수렴 및 사전 조사	⇒	· 담당 부서 의견 수렴('15. 5. 10) ·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 수렴('15. 5. 1~ 5. 8) · 사전 조사('15. 5. 11 ~ 5. 15)
5단계	여성정책 수요조사 실시	⇒	· 20~64세 남녀 대상 설문조사 실시('15. 5. 20 ~ 5. 30)
6단계	조사 결과 분석		· 조사결과 분석 · 집필

3.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의 조사 범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검토함
- 구체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법령,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지역 성평등 수준을 타 지역과의 비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성평등지수」 등에서 나타난 여성정책의 개념과 정책 범위에 대하여 검토함

4. 여성정책 조사 현황

- 2000년대 이후 제주지역 및 타 지역의 여성정책 수요 조사 관련한 선행 조사연구를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의 조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함
- 2000년대 이후 제주지역의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는 지역 내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에 따라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음
- 2000년대 이후 제주지역에서 실시된 여성정책 관련 조사동향을 살펴보면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 출산·육아, 부부·가족, 정치적 대표성, 장애인·농업인·대학생 등의 특수 집단 조사 등 특정 주제에 한정된 조사연구가 대부분이며,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수요 조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 대표성 있는 여성정책 수요조사가 필요한 시점임

5. 조사개요

가. 조사 대상

-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의 목표 모집단
 -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로 정의되지만,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섬, 기술시설, 특수사회 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조사모집단으로 함

나. 표본 설계

- 표집방법 : 지역(읍면동),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층화할당 표집
 - 표본할당 : 읍면동 지역의 만 20세-64세 인구의 성,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통계표를 기준으로 표본수를 할당하는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표본이 모집단인 제주도민의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함
- 최종 응답자 선정 :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내에서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대상자를 최종조사대상자로 선정함(1,000명)

다. 조사 방법

- 전문리서치 기관의 전문 면접원에 의한 가구 방문 1 : 1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20일 ~ 5월 30일까지임

라. 조사 내용

- 조사 영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사 영역과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양성평등	제주사회 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가장 필요한 정책 수요
여성·가족 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가장 필요한 정책 수요
경제활동	경제활동 실태 (취업여부, 취업특성, 미취업 사유 등) 구직자 취업 수요, 취업 · 창업 애로 사항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위해 필요한 정책 취업 · 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이용경험, 교육 참여 의향 및 희망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도, 제도 평가, 정책 수요
자녀돌봄 및 가족생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 양육의 어려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수요 건강가정지원 정책 수요, 우선 지원 대상 가족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 안전 수준 인식, 안전 강화 위한 정책 수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여성 복지 증진	농촌여성,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 수요
건강, 여가·문화, 교육	여성의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여가활동 시간,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의 어려움 여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정보화 실태, 평생교육 수요
일반적 사항	지역, 성별, 연령, 고향, 혼인상태, 최종학력,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장애인 여부 등

제2장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 체		1,000	100.0
행정구역	제주시	744	74.4
	서귀포시	256	25.6
동읍면	제주시 동	590	59.0
	제주시 읍면	154	15.4
	서귀포시 동	145	14.5
	서귀포시 읍면	111	11.1
성별	남성	454	45.4
	여성	546	54.6
연령대	20대	181	18.1
	30대	219	21.9
	40대	278	27.8
	50대	240	24.0
	60-64세	82	8.2
학력	중졸이하	81	8.1
	고졸	392	39.2
	전문대졸	277	27.7
	4년제 대졸이상	250	25.0
취업 여부	취업	830	83.0
	미취업	170	17.0
혼인 상태	미혼	237	23.7
	기혼	692	69.2
	별거, 이혼, 사별	71	7.1
맞벌이 여부	맞벌이	498	72.0
	외벌이	194	28.0
	합계	692	100.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9	16.9
	200-299만원	240	24.0
	300-399만원	246	24.6
	400-499만원	146	14.6
	500-599만원	93	9.3
	600만원 이상	106	10.6
장애 여부	장애	76	7.6
	비장애	924	92.4

2.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과 정책 수요

가.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

- 제주지역 20-64세 성인 남녀는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함
 - 제주사회 전반적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14.3%만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7점 척도의 평균은 3.60점('보통' 4점)임
- 사회부문별로 가장 성 불평등한 부문은 가족생활 부문이며, 공적인 영역에서는 '직장생활, 승진 등' 고용 부문이 가장 성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함
 - 사회부문별 양성평등 수준 : '사회활동과 참여' 3.71점, '정치 참여' 3.52점, '임금·소득' 3.41점, '직장생활, 승진 등' 3.36점, '가사, 육아, 가족생활' 3.29점
- 성, 혼인상태, 연령별, 지역별 인식 차이
 - 성별 : 모든 부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특히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의 성별 인식 격차 가장 큼(남성 3.57점, 여성 3.05점)
 - 혼인상태별 : 모든 사회부문에서 이혼·별거한 사람들일수록 양성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함(전반적 양성평등 수준 : 미혼 3.67점, 기혼 3.60점, 이혼·별거 3.13점)
 - 연령대별 : '직장생활, 승진 등'의 고용 부문과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나며, 두 부문 모두 30대가 가장 성 불평등하다고 인식함
 - 지역별 : 제주시 동·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읍면지역 중, 서귀포시 읍면지역 주민이 가장 성 불평등하다고 인식함

나. 양성평등 정책 수요

-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 1위 '여성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21.7%), 2위 '가사 및 육아부담의 남녀불평등 개선'(17.2%), 3위 '일반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인식 개선'(16.6%), 4위 '기업, 조직, 직장'의 성차별 문화 개선'(14.1%) 등으로 나타남
- 성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1순위
 - 남녀 모두 1위는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2위는 '남성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
 - '가사, 육아 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 정책 수요의 남녀 인식 격차 큼 : 여성의

13.7%(우선순위 3위), 남성의 8.1%(우선순위 8위)

○ 연령대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1순위

- 연령대별로 가장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1위는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동일함
-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정책에 있어서 20대~50대는 '일반 남성들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으로 동일하고, 60-64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로 나타남
- 그 외, 20대는 사회(기업, 조직 등)에서의 성차별 문화 개선, 30대와 40대는 가사와 육아에서의 양성평등, 50대 이상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수요가 높음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및 정책 수요

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안다' 9.1%. 5점 척도의 평균은 2.42점
 - 성별 평균 차이는 없지만 '안다'는 응답은 여성 7.5%, 남성 11.0%로 여성이 낮음
- 사회적 취약집단일수록 정책 인지도 낮음 (평균 점수 : 5점 기준)
 - 연령별 : 40대가 가장 높고(2.59점), 60-64세(2.15점) 및 20대 청년층(2.27점)의 인지도 낮음
 - 학력수준별 : 4년대졸 이상(2.57점)이 가장 높고, 중졸이하(2.20점)가 가장 낮음
 - 가구소득수준별 : 200만원 미만 2.25점, 600만원 이상 2.51점
 - 취업상태별 : 취업자(2.46점) 대비 미취업자의 인지도(2.22점)가 낮음
 - 혼인상태별 : 기혼자 2.50점, 미혼자 2.27점, 이혼·별거자 2.23점

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수요

-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수요
 - 1위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6.0%)
 -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18.9%), 자녀돌봄 지원(17.7%), 양성평등 문화 확산(16.3%), 여성폭력 근절과 안전(8.5%), 건강가정지원(6.7%), 취약 여성·가족 복지 증진(4.1%), 여성건강 지원(1.8%)

○ 행정시별 여성·가족 정책 수요

-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1위로 동일하지만 정책수요 2위로 제주시는 일·가정 양립, 서귀포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나타남

○ 동(同)·읍면지역별 여성·가족 정책 수요

- 동 지역의 1위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8.7%), 읍면지역의 1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21.1%)

○ 성별 여성·가족정책 수요

- 남녀 모두 1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여성 28.9%, 남성 22.7%)
- 성별 차이는 일·가정 양립 관련 우선순위에서 가장 두드러짐(여성 2위, 남성 4위)

○ 연령대별 여성·가족 정책 수요

- 전반적으로 20대와 30대는 일·가정 양립과 자녀돌봄 지원 수요가 높고, 40대 이상에서는 경제활동 지원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수요가 높음.

4.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가. 제주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 제주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1순위, 2순위의 합)

- 1위 '여성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 창출'(23.1%), 2위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20.6%), 3위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14.3%), 4위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남녀차별 해소'(13.7%), 5위 '청년 여성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13.6%), 6위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응답 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함

나. 구직자의 취업 수요

○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는 전일제 39.0%, 시간제 61.0%로 나타남
- 행정시별 : 제주시는 시간제(67.7%), 서귀포시는 전일제(64.7%) 선호
- 성별 : 여성은 시간제(67.2%), 남성은 전일제(57.2%) 좀 더 선호

- 경력단절 여성 : 현재 구직중인 경력단절 여성의 80.0%가 시간제 일자리 선호
- 연령대별 : 20대는 전일제(58.3%), 30대 이상은 다수가 시간제 선호

○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 '공무원·공공기관'(34.1%), '자영업·창업'(28.5%), '일반 회사 취업'(25.2%),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 기업 등'(12.2%)(순위에 있어서 성별 차이 없음)
- 연령대별 : 20대는 '공무원, 공공기관'(55.1%), 3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창업' 선호.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다수가 '자영업·창업' 선호하며 일반 회사 취업 희망자 없음
- 경력단절 여성 : '자영업·창업'(39.1%), '공무원, 공공기관'(28.3%), '일반 회사'(19.6%) 등의 순

○ 구직자의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 구직자의 61.0%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 희망
- 여성 구직자의 68.6%가 200만원 미만 희망(150만원 미만 29.3%, 150-199만원이 39.3%).
- 남성 구직자의 58.8%가 200만원 이상 희망
-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의 74.0%가 200만원 미만 희망

다. 취업·창업 애로 사항

○ 제주사회에서 (재)취업·창업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려운 점

- 1위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25.3%), 2위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23.0%), 3위 '주위에 일자리 자체 부족'(18.5%), 4위 '사업 자금 부족'(8.5%) 등의 순

○ 성별 취업·창업 애로 사항

- 여성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23.8%), 남성은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28.2%)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등의 부담'은 여성의 13.0%(어려움 4위), 남성의 2.0%(7위)
- 20대와 30대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 30대 이상은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

○ 경력단절 여성 :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등의 부담'(37.3%)이 취·창업 어려움 1위로 나타남

라. 취업지원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제주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 고용센터(75.3%), 설문대여성문화센터(64.3%), 여성인력개발센터(56.4%),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20.9%), 여성새로일하기센터(20.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8.1%)
- 행정시별 : 제주시 여성의 인지도가 서귀포시 여성의 인지도보다 높은 편임
- 동·읍면 지역별 : 동 지역 여성의 인지도가 읍면지역 여성의 인지도보다 높음

○ 제주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이용 경험

- 여성들의 취·창업지원 기관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음 : 고용센터 29.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1.7%, 여성인력개발센터 16.6%, 농업기술원 1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9%,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2.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0.9%
- 취·창업 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대다수(82%~10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경력단절 여성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23.7%만 '안다'고 응답하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의 8.3%만 이용 경험 있음

마. 취업 상담·교육 참여 의향 및 희망 프로그램

○ 취업 상담·교육 참여 의향

- 전체 응답자(1,000명)의 51.4%가 참여 의향 있음(여성의 52.9%)
- 연령대별 : 30대의 참여 의향(65.9%)이 가장 높음
- 학력별 : 전문대졸(61.0%), 대졸 이상(58.2%), 고졸(51.0%), 중졸 이하(24.4%)의 순
- 경력단절 여성 : 57.6%가 교육 참여 의향 있음

○ 취업·창업 교육 참여 시 고려 사항

- 여성 : '취업·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5.1%),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24.7%),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의 유연성'(19.2%) 등의 순
- 연령대별(여성) : 20대~40대는 실제 취업 연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50대는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 60-64세는 교육기관과의 거리 및 교통편의를 중요하게 고려함. 30대 여성은 '교육 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5.7%)을 타 연령대보다 가장 높게 고려함
- 경력단절 여성 : '취업·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5.4%)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한편, 경력단절 여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교육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 여성이 희망하는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 가장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요리·조리'(18.7%)
- 개별프로그램으로는 '요리·조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지만, 직업 분야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교육서비스 관련, 기능·기술 습득 관련, 사무직군 관련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음

5.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요

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성, 연령대, 영유아자녀 유무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 전체 응답자의 46.2%, 여성의 55.4%, 남성의 35.1%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함
- 맞벌이, 외벌이 가구와 상관없이 여성의 일·가정 어려움이 남성보다 월등히 큼
- 연령별로는 30대(3.65점)가 가장 어려움
-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3.78점, 영유아자녀가 없는 경우 3.42점(5점 기준)
- 경력단절 여성의 74.6%가 현재 일을 한다면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함
- 여성취업 특성별: 경력단절 여성(3.93점), 맞벌이 여성(3.71점), 외벌이 여성(3.62점)의 순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도 및 평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 육아휴직 제도(85.2%), 출산전후 휴가제도(81.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70.3%)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가족돌봄휴직 제도(38.5%), 탄력 근무제도(32.4%),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25.3%)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음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 4점 척도(1 전혀 안 됨 ~ 4 매우 잘 됨) 기준 : 출산전후 휴가제도 2.60점, 육아휴직 제도 2.55점,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24점, 가족돌봄휴직 제도 2.15점, 탄력 근무제도 2.05점,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1.94점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 제주도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수요 1순위

- 1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8.6%), 2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23.5%), 3위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지원'(18.7%), 4위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확대'(12.0%), 5위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11.7%), 6위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하는 제도문화 확산'(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일·가정 양립 정책 수요

- 남녀 모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지원'이 상위 3위로 나타남
- 다음으로 여성은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남성은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확대'로 나타남

○ 연령대별 : 30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이 25.6%로 가장 높고, 그 외 연령대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1위로 나타남

라.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 성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 여성은 '아빠교실, 남편교실 등 남성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30.8%), 남성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7.5%)을 1위로 선택. '아빠교실, 남편교실 등 남성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에 대한 남성의 수요는 18.3%에 불과하여 성별 격차가 큼

6. 자녀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정책 수요

가.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 성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 남성 : '자녀를 돌봐 줄 사람 찾기 어려움', '직접 자녀 돌볼 시간 부족', '양육비 부담'이 각각 19.2%로 공동 1위로 나타남
- 여성 :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 어려움'이 25.0%로 1위

○ 여성의 취업상태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 취업 여성 :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 부족'(25.4%)
- 미취업 여성 : 가장 큰 어려움은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의 어려움'(32.0%)

○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 1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5.1%), 다음으로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24.7%), '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12.8%) 등
- 연령대별 : 20대, 50대, 60-64세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1위, 30대, 40대는 '시간 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가 1위
- 맞벌이 여부별 : 맞벌이 가정은 1위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대'(29.5%), 외벌이 가정은 1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3.2%)

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 1위 '양육 및 사교육 비용 부담'(35.4%), 2위 '직접 자녀를 돌봐 줄 시간 부족'(16.0%), '자녀의 학습지도 및 인성교육'(16.0%), 3위 '방과후 돌봄 문제'(10.8%),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의 어려움(8.5%),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7.6%) 등의 순

○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양육 지원 정책 수요

- 정책 수요 1위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43.3%)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교육비 지원'(18.3%), '휴일, 방학동안 자녀 급식 등 돌봄 서비스 제공'(14.0%), '자녀 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상담교육 제공'(10.3%) 등의 순

다. 건강가정 지원 정책 수요

○ 응답자의 대다수가 각각의 건강가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과반수가 이용 의향 있음

- 필요성 : 가족교육 91.1%, 가족상담 90.7%, 자녀돌봄 87.8%, 가족문화 85.7%.
- 이용 의향 : 가족상담 66.1%, 가족교육 65.6%, 가족문화 55.6%, 자녀돌봄 54.6%

라. 우선 지원 대상 가족

-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가족 1순위
 - 저소득 한부모가족(35.0%), 장애인 가족(21.4%), 독거노인 가구(16.6%), 맞벌이 가족(12.9%), 조손가족(11.9%), 1인 가구(1.6%), 이주민 가족(0.3%), 기타(0.3%)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취약 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예외적인 것은,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 수요가 낮지 않다는 것임(우선순위에서 4위). 본 조사 대상의 연령대가 20-64세층인 것을 고려할 때, 아직 노년기에 이르지 않은 연령층에서 맞벌이 가족은 정책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7.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가. 지역사회 안전 수준 인식

- 지역사회의 분야별 '안전' 수준 인식
 - 가정폭력 47.7%, 성폭력 46.8%, 강도/절도 44.2%, 야간보행 36.2% '안전하다'
 -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의 평균 점수는 가정폭력 3.45점, 성폭력 3.42점, 강도/절도 3.36점, 야간보행 3.18점
- 성, 연령, 동·읍면지역별 지역사회 안전수준 인식
 - 성폭력, 야간보행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 성별 성폭력 안전감 : 여성 3.35점, 남성 3.51점
 - 성별 야간보행 안전감 : 여성 3.12점, 남성 3.24점
 - 강도·절도, 야간보행에 있어서 연령이 적을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 지역별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감 : 5점 기준, 제주시 동지역 3.26점, 제주시 읍면 지역 3.29점, 서귀포시 동지역 3.36점, 서귀포시 읍면지역 3.41점

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방범 취약 지역 CCTV 설치’, ‘경찰의 순찰 강화’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
-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여성과 아동을 위한 택시 등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폭력 예방 등 각종 안전 관련한 교육 확대’, ‘독거 여성을 위한 방범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84~87%가 ‘필요’하다고 응답
- ‘호신술 등 폭력대응 위한 체력단련 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71.1%가 ‘필요’하다고 응답

○ 지역 및 성별 지역사회 안전 정책 수요

-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의 정책 수요가 높고, 다음으로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정책 수요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 가정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 1위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42.4%), 다음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37.1%),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9.1%),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습 개선’(7.9%), ‘가정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3.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 ‘성폭력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가 58.2%로 압도적인 1위.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23.4%), ‘지역 내 우범지역 개선 및 치안 유지’(7.9%),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6.4%), ‘성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2.7%)의 순

○ 성매매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 1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44.3%). 다음으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확대’(16.2%), ‘성 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정 대처’(15.7%), ‘성매매 발생지역 및 시설 단속 강화’(13.1%),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6.2%),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4.5%)의 순

8. 여성 복지 증진 정책 수요

가. 농촌 여성 복지 증진 정책 수요

○ 농촌 여성의 어려움 (읍면 지역 여성 응답)

- 압도적 1위는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의 어려움'(60.0%)
- 공동 2위 :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과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로 제약이 많음'(각각 8.2%). 다음으로 '사회활동, 문화활동, 자기개발 기회 부족'(5.2%), '육아, 돌봄 등 가족부양의 어려움'(5.2%)등의 순

○ 읍면 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농촌 여성을 위한 복지 증진 정책

- 1위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번기 급식서비스 제공'(27.4%). 공동 2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4위 '농촌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 등의 순
- 한편, '여성 경영인 등록률 제고'에 대한 수요는 5.9%로 농기계 사용,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수요보다 높음

나.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 수요

○ 여성 장애인이 생각하는 여성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 수요

-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제도 활성화'(39.5)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 다음으로 '장애인 맞춤형 직업 개발, 직업 훈련 등 경제활동 지원'(18.4%). 요약하면,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가 상위 57.9%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확대', '임신, 출산, 자녀양육, 자녀 학습 지원',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각각 10.5%로 공동 3위로 나타남

9. 건강, 여가문화, 교육 부문

가. 여성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 여성이 원하는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 1위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21.6%). 다음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20.7%)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20.2%)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음

○ 여성의 연령대별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 20대, 30대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각각 31.1%, 35.8%)
- 40대 :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25.6%)
- 50대 :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건강증진 지원’(30.6%)
- 60-64세 :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25.6%)

나. 여가·문화생활 지원 정책 수요

○ 여가활동 시간(1주일 기준, 평균 시간)

- 성별 : 남성 7.2시간, 여성 6.3시간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여가생활의 어려움

- 성별 : 남녀 모두 ‘시간 부족’, ‘주위에 마땅한 시설, 프로그램 부족’, ‘돈 부족’이 동일하게 상위 3위로 나타남. 성별 가장 큰 차이는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부담’으로 나타남. 여성의 18.1%, 남성의 7.5%가 동 항목을 여가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
- 연령대별 : 20대, 40대, 50대는 ‘시간 부족’, 30대는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부담’(44.7%), 60-64세는 ‘건강, 나이, 장애 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

○ 여가생활 만족도

-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 ‘만족’한다는 비율은 남성 29.7%, 여성 24.0%이고, 5점 척도의 평균은 남성 3.06점, 여성 2.86점

○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 모든 연령대에서 ‘저렴한 비용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를 1위로 선택함
- 다음으로, 20대, 60대, 60-64세는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대’, 30대는 ‘가족단위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 40대는 ‘주말, 저녁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확대’ 선호

다. 정보화 실태 및 평생교육 지원 정책 수요

○ 정보화 기기 이용 능력

- 핸드폰 99.2%, 스마트폰 91.5%, 인터넷/SNS 89.7%, 컴퓨터 87.6% 이용 가능
- 읍면지역 주민이 동 지역 주민보다 정보화가 약함(특히 컴퓨터, SNS 이용 능력 격차 큼)

○ 연령대별 정보화 실태

- 20대~40대까지는 각 정보화 기기/서비스 이용 능력이 90% 이상이며 거의 유사한 수준임
- 50대 : 컴퓨터 74.2%, 스마트폰 84.2%, 인터넷 80.0%, SNS 70.8%
- 60-64세 : 컴퓨터 39.0%, 스마트폰 50.0%, 인터넷 41.5%, SNS 34.1%
- 60-64세 연령층의 성별 정보화 격차
 - 컴퓨터 이용 능력 : 남성 51.3%, 여성 27.9%, 인터넷 이용 능력 : 남성 53.8%, 여성 46.2%

○ 평생교육 지원 정책 수요 및 희망 분야

- 응답자의 95.3%가 평생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여성 96.7%, 남성 93.6%).
-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는 '외국어 교육'(25.9%). 다음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20.1%), '문화예술 교육'(19.4%),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13.9%), '인문교양 교육'(7.4%), '시민참여 교육'(4.6%), '기초/문자해독 교육'(2.1%), '학력보완 교육'(1.8%) 등

○ 연령대별 평생교육 희망 분야(여성)

- 20대 : '외국어 교육'(43.3%)이 압도적 1위
- 30대, 40대 : 1위 '외국어 교육'(31.5%)
- 50대, 60대 : 1위 '문화예술 교육'(23.2%)

○ 장애여부별 평생교육 희망 분야

- 장애인 : 1위 '직업능력 향상 교육'(27.6%), 공동 2위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각각 13.2%), 공동 3위 '외국어 교육'(10.5%), '시민참여 교육'(10.5%) 등의 순
- 비장애인 평생교육 희망 분야 : 1위 '외국어 교육'(27.2%), 2위 '문화예술 교육'(19.9%), 3위 '직업능력향상 교육'(19.5%) 등의 순

제3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¹⁾

가. 양성평등 부문

- 제주도민이 인식하는 제주사회는 양성평등하지 않고, 특히 여성의 성 불평등 인식 높음
-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강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성평등지수를 향상시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의 인식 개선 필요
 - 조사결과, 자녀 출산·양육기 여성의 높은 성 불평등 인식, 그리고 성 불평등의 가족 해체 유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남성들은 '가사, 육아 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낮음. 가족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남성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나. 여성·가족 정책 부문

- 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도민의 정책 인지도 낮고, 정책 우선대상이 되는 취약집단의 인지도가 특히 낮음
- 도의 여성·가족 정책과 예산이 도민의 정책 수요와 부응하는지 점검 필요
 - 조사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음. 도의 여성·가족정책이 도민의 수요에 맞게 수립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제주 여성정책의 지역 균형, 특히, 읍면지역의 양성평등 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 서귀포 지역 및 읍면지역은 양성 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실제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음
 -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정책 서비스 기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 개발센터,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폭력 관련 기관 등) 설치 논의를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음

1) 조사결과 요약 내용은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정책시사점 중심으로 요약함

다. 경제활동 부문

-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는 다각화 되어가는 반면, 취·창업 정보 부족, 근로조건 매치 및 일자리 부족의 문제로 취·창업에 어려움을 경험함.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 강화 필요
-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 및 여성의 수요 반영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 여성들의 취·창업 상담·교육 참여 의향이 높고, 실제 취업 가능성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도 높음. 여성의 안정적 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에 이르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민선6기 일자리 사업의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
 - 민선6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기반 특화산업에서 여성의 창업 유도 및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성별영향평가분석이 필요함

라. 일·가정 양립 부문

-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장시간 근로시간 관행 개선'으로 나타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도민의 정책 수요도 높고, 관련 제도도 상당 수준 마련되었지만, 인지도 및 이용 수준은 낮음. 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전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정부는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지표체계」를 개발하여 2014년부터 발표하고 있음. 정부의 지표체계를 반영한 제주지역 일·가정 양립 지표 개발 관리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에 대한 공무원 이해와 인식 개선 필요
 -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들은 '근로자 사기진작', '근로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목표 내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이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는 용어로 공용화됨으로써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및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확대 필요

마. 자녀돌봄 및 가족생활 부문

- 맞벌이·비맞벌이, 취업모·미취업모를 모두 고려한 자녀 돌봄 지원 정책 필요
 - 취업모 뿐만 아니라 미취업모에게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다양함
 - 취약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육서비스가 미 취업모 가정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육아나눔터 등의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바. 지역사회 안전 부문

- 지역별 도민의 안전 수준 인식에 차이 많고, 여성의 안전감 인식이 대체로 낮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안전, 도시개발, 지역균형 발전 등 관련한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인지 정책이 필요함
-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 및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폭력 발생 현장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사. 여성 복지 증진 부문

- 농촌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필요
 - 읍면지역 여성의 60.0%가 농사와 가사일 병행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
- 농촌지역에 특화된 여성 소득활동 지원 체계 필요
-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강화 필요

아. 건강, 여가·문화, 교육 부문

- 여성의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필요
- 남녀 간 여가활동시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여성의 고령화가 높은 제주 지역의 고령층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을 위한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 수요조사에 나타난 도민의 여성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주요 분야별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분야별 제주 여성정책 과제 제언〉

분야	정책 과제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전반	①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개선 ② 여성정책 서비스의 지역 균형 개선 ③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의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	① 제주 여성 일자리 전략단(TF팀) 구성·운영 ② 여성 구인·구직 정보 매치 위한 지역 언론 협력 구축 ③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컨설팅, 시간제일자리 DB 구축 등) ④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의 내실화 ⑤ 농촌여성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컨설팅 지원 ② 제주 일·가정 양립 제도 지원 인프라 구축 ③ 제주형 일·가정 양립 정책 지표 개발·관리 ④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자녀돌봄 지원	① 지역사회 육아나눔터 운영 및 점진적 확대 ②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등 다양한 어린이집 확대
지역사회 안전	①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개발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② 여성폭력 통합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3.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	7
가. 여성정책의 개념	7
나. 여성정책의 범위	7
4. 여성정책 조사 현황	13
가. 제주지역 여성정책 조사 현황	13
나. 타 지역 여성정책 관련 선행조사 현황	19
5. 조사 개요	21
가. 조사 대상	21
나. 표본 설계	22
다. 조사 방법	24
라. 조사 내용	24

제2장 여성정책 수요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7
2.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과 정책 수요	30
가.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	30
나. 양성평등 정책 수요	38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및 정책 수요	42
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42
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수요	45
4.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50
가. 제주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50
나. 구직자의 취업 수요	53
다. 취업·창업 애로 사항	60
라. 취업지원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63
마. 취업 상담·교육 참여 의향 및 희망 프로그램	67
5.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요	76
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76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도 및 평가	79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80
라.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82
6. 자녀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정책 수요	85
가.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85
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91
다. 건강가정 지원 정책 수요	94
라. 우선 지원 대상 가족	99
7.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101
가. 지역사회 안전수준 인식	101
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105
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107
8. 여성 복지 증진 정책 수요	109
가. 농촌 여성 복지 증진 정책 수요	109
나. 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 정책 수요	112

9. 건강, 여가·문화, 교육 지원 정책 수요	114
가. 여성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114
나. 여가·문화생활 지원 정책 수요	116
다. 정보화 실태 및 평생교육 지원 정책 수요	123

제3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35
가. 양성평등 부문	135
나. 여성·가족 정책 부문	137
다. 경제활동 부문	139
라. 일·가정 양립 부문	143
마. 자녀돌봄 및 가족생활 부문	146
바. 지역사회 안전 부문	148
사. 여성 복지 증진 부문	150
아. 건강, 여가·문화, 교육 부문	152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을 위한 제언	 156
가.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전반	156
나. 여성 경제활동 지원	158
다. 일·가정 양립 지원	163
라. 자녀돌봄 지원	167
마. 지역사회 안전 강화	168
 참고문헌	 170
부록.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173

표 목 차

<표 1-1> 국가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과제	8
<표 1-2>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의 주요 과제	9
<표 1-3>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시책	10
<표 1-4>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	12
<표 1-5> 제주지역 여성정책 관련 조사 현황(2001~2014)	16
<표 1-6> 전국 및 타 지역 여성정책 조사 현황	20
<표 1-7> 제주지역 읍면동, 성, 연령별 20-64세 모집단 인구 분포(2015.4.)	22
<표 1-8> 조사 표본	23
<표 1-9>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	24
<표 2-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7
<표 2-2> 사회부문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1
<표 2-3> 성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2
<표 2-4> 혼인상태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4
<표 2-5> 연령대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5
<표 2-6> 지역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7
<표 2-7>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38
<표 2-8> 사회인구학적특성별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39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가족 정책에 대한 인지도	42
<표 2-10>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45
<표 2-11> 지역별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정책 1순위	46
<표 2-12> 연령대별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49
<표 2-13> 제주여성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50
<표 2-14> 제주여성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여성 응답)	52
<표 2-15>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54
<표 2-16>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56
<표 2-17> 구직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 소득	59
<표 2-18> 제주사회에서 취업·창업 시 어려운 점	61
<표 2-19>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63
<표 2-20> 행정시별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64
<표 2-21> 동·읍면 지역별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65

<표 2-22>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66
<표 2-23> 향후 (재)취업·창업 관련 상담·교육 참여 의향	68
<표 2-24> 성별 취업·창업 교육 참여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69
<표 2-25> 취업·창업 교육 참여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여성 응답)	71
<표 2-26>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73
<표 2-27> 동·읍면 지역별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	74
<표 2-28> 연령대별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75
<표 2-29> 일·가정 양립 어려움	76
<표 2-30>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도	79
<표 2-31>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80
<표 2-3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80
<표 2-3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81
<표 2-34>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83
<표 2-35>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86
<표 2-36>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88
<표 2-37>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91
<표 2-38> 초등학생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93
<표 2-39> 건강가정 지원 정책 필요성	94
<표 2-40> 건강가정 지원 정책 이용 의향	95
<표 2-41> 가족교육, 가족 상담 지원 정책 이용 의향	95
<표 2-42> 가족문화, 자녀돌봄 지원 정책 이용 의향	96
<표 2-43> 우선 지원 대상 가족	100
<표 2-44>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101
<표 2-45> 성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102
<표 2-46> 연령대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103
<표 2-47> 동·읍면 지역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수준 인식	104
<표 2-48>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105
<표 2-49> 지역 및 성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106
<표 2-50> 가정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107
<표 2-51> 성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107
<표 2-52> 성매매 예방 위해 필요한 정책	108
<표 2-53> 농촌 여성의 어려움 1순위	109

<표 2-54> 농촌 여성의 복지증진과 역량강화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110
<표 2-55>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112
<표 2-56> 성별 주관적 건강 수준 인식	114
<표 2-57> 성별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115
<표 2-58> 여성의 연령대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116
<표 2-59> 여가활동 시간(1주일 기준)	117
<표 2-60> 성별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	118
<표 2-61> 연령대별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	118
<표 2-62> 연령대별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여성 응답)	119
<표 2-63> 여가생활 만족도	120
<표 2-64> 연령대별 여가생활 향상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122
<표 2-65> 동·읍면지역별 여가생활 향상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122
<표 2-66> 정보화 실태	123
<표 2-67> 동·읍면 지역별 정보화 실태	123
<표 2-68> 평생교육 수요	126
<표 3-1> 분야별 여성정책 과제 제안	156
<표 3-2>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표 체계	165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6
<그림 2-1> 제주사회 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1
<그림 2-2> 성별 제주사회 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3
<그림 2-3> 혼인상태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4
<그림 2-4> 연령대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6
<그림 2-5> 지역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37
<그림 2-6>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38
<그림 2-7> 행정시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1순위	40
<그림 2-8> 성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40
<그림 2-9> 성별 제주 여성 가족 정책 인지도	43
<그림 2-10>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45
<그림 2-11> 행정시별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47
<그림 2-12> 동·읍면 지역별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	47
<그림 2-13> 성별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48
<그림 2-14> 연령대별 가장 필요한 여성 · 가족 정책 1순위	50
<그림 2-15> 제주여성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전체 응답)	51
<그림 2-16> 제주여성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여성 응답)	52
<그림 2-17> 행정시, 제주고향 여부별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54
<그림 2-18> 성별, 경력단절여성 여부별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55
<그림 2-19> 연령대별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57
<그림 2-20> 혼인상태별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58
<그림 2-21> 성별 구직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 소득	59
<그림 2-22>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63
<그림 2-23> 행정시별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64
<그림 2-24> 동·읍면 지역별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65
<그림 2-25> 경력단절 여성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지도 및 이용 경험	67
<그림 2-26> 성별 취업·창업 교육 참여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69
<그림 2-27>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창업 교육 참여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	72
<그림 2-28> 성별, 맞벌이 여부별 일 · 가정 양립의 어려움	77
<그림 2-29>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	78

<그림 2-30> 연령대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	78
<그림 2-3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81
<그림 2-32> 성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83
<그림 2-33> 동·읍면 지역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	84
<그림 2-34>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85
<그림 2-35> 여성의 취업상태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87
<그림 2-36> 동·읍면 지역별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1순위	89
<그림 2-37> 맞벌이여부별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1순위	90
<그림 2-38>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91
<그림 2-39> 제주가 고향인지 여부별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92
<그림 2-40> 동·읍면 지역별 건강가정지원 정책 이용 의향	98
<그림 2-41> 성별 건강가정지원 정책 이용 의향	98
<그림 2-42> 가구유형별 건강가정지원 정책 이용 의향	99
<그림 2-43> 우선 지원 대상 가족	100
<그림 2-44>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101
<그림 2-45> 성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103
<그림 2-46> 연령대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104
<그림 2-47> 읍면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농촌 여성의 어려움 1순위	110
<그림 2-48> 읍면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제주 농촌 여성 지원 정책 1순위 ..	111
<그림 2-49> 장애여성이 생각하는 여성 장애인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113
<그림 2-50> 여성이 원하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	115
<그림 2-51> 성,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121
<그림 2-52> 동·읍면 지역별 정보화 실태	124
<그림 2-53> 연령대별 정보화 실태	125
<그림 2-54> 60-64세 연령층의 성별 컴퓨터·인터넷 이용 능력	125
<그림 2-55> 평생교육 수요	128
<그림 2-56> 동·읍면 지역별 평생교육 수요	129
<그림 2-57> 연령대별 평생교육 수요 (여성)	130
<그림 2-58> 연령대별 평생교육 수요 (남성)	131
<그림 2-59> 장애여부별 평생교육 수요	132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
4. 여성정책 조사 현황
5. 조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동 법령에 근거하여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된 1997년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음. 그동안 여성정책의 범위는 성평등 일반을 포함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복지, 인권, 건강,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왔음
- 한편, 2015년은 여성정책의 역사에 제도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 시점임.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여성정책을 견인해 왔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지역사회는 여성정책시책에도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동안 국가 여성정책 계획의 시행 및 제주도의 특성화된 여성정책 마련을 위하여 199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왔으며, 현재까지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수립에 이르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고지영 외, 2014)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및 제주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토대 위에서 지역 여성의 삶의 질 증진과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체감형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체감형 여성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제주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수요 조사는 부족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도민 정책 수요조사는 2011년 제주여민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욕구조사(고의경, 2011), 그리고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 수립을 위해 실시한 도민 의견조사(문순덕 외, 2010) 이후에 없었던 것이 사실임

-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의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향상 및 주요 여성정책 분야별로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여성정책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주도민의 여성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 검토

- 다음으로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에 포함될 주요 조사 분야와 내용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시책과 내용, 「지역 성평등지수」, 여성정책 수요 조사와 관련한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함

2) 여성정책 조사현황 검토

-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여성정책 관련 도민 의견조사 현황과,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 여성정책 수요 조사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봄
 - 제주사회에서 실시된 여성정책 관련 조사는 2000년대 이후의 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전국 및 타 지자체의 조사는 종합적인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몇 개의 사례를 살펴봄

3)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실시·분석

- 분야별,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도민의 여성정책 수요 분석
 -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과 정책 수요’를 비롯하여 총 8개 분야의 정책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함

4) 정책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 분야별 조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함
-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함

나.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으로 여성정책 관련 선행 조사연구 및 정책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사전 조사(pre-test), 그리고 여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 고찰을 위한 관련 정책 검토

-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정책 개념과 범위 검토
- 「양성평등기본법」에서의 정책 개념과 범위 검토
- 「지역 성평등지수」에 나타난 주요 성평등지표 검토

2) 여성정책 관련 제주지역 및 타 지역 선행 조사연구 검토

- 2000년대 이후 제주지역에서 실시된 여성정책 조사연구 검토
- 국책기관, 지역 정책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된 여성정책 관련 종합적인 정책 수요 조사 사례 검토

3) 전문가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내용 : 연구범위 및 설문지(안) 검토
 - 일시 : 2015. 4. 8. & 5. 10. (2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지(안) 의견 수렴
 - 내용 : 연구방향, 조사 방법, 조사 내용, 설문지(안) 자문
 - 일시 : 자문회의(2015. 4.17), 설문지(안) 의견 수렴 (2015. 5.1 ~ 5.8)

4) 사전 조사 (pre-test) 실시

- 대상 : 미혼·기혼 남녀 15명 편의표집에 의한 조사
- 목적 :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 수정·보완
- 일시 : 2015. 5. 11 ~ 5. 15

5) 여성정책 수요 조사 실시

- 대상 : 제주도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20-64세 성인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대면 조사
- 조사기간 : 5. 20 ~ 5. 30
- 이상의 연구 수행 방법과 절차를 도표화하면 <그림 1-1>과 같음. [마침표 삭제]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중앙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및 관련 정책 검토 · 선행 조사연구 검토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의견 수렴('15. 4. 8)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5. 4. 17)
4단계	설문지(안) 의견 수렴 및 사전 조사	⇒	· 담당 부서 의견 수렴('15. 5. 10) ·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 수렴('15. 5. 1 ~ 5. 8) · 사전 조사('15. 5. 11 ~ 5. 15)
5단계	여성정책 수요조사 실시	⇒	· 20-64세 남녀 대상 설문조사 실시('15. 5. 20 ~ 5. 30)
6단계	조사 결과 분석		· 조사결과 분석 · 집필

3.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여성정책의 개념

-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대체로 법령상의 여성 정책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여 왔음(정형옥·안태운, 2010)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된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으로 규정됨(제3조)
 -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은 법령의 목적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제1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동 목적에 근거하면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기본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14.5.28.)되고 2015.7.1.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양성평등기본법」명시하는 양성평등정책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
 - 이를 반영하면 양성평등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이전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의 발전’을 통한 남녀평등 촉진의 의미를 내포하였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강조하고 있음

나. 여성정책의 범위

1)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범위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주요 범위는 우선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령에서 명시하는 기본시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법령에 근거해서 수립·

시행되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과 국가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여성정책의 범위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된 여성정책 기본시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방대함 :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공직 참여, 고용평등, 성희롱의 방지,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 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설립 등, 여성복지 증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여성 국제협력,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임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 중인 정부의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음

<표 1-1> 국가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과제

정책과제	종 과 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2.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주 :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여성정책의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여성정책 계획의 시행 및 제주도의 특성화된 여성정책 계획 마련을 위하여 199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해 왔으며, 현재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한 상태임(고지영 외, 2014).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의 정책영역별 주요 과제는 <표 1-2>와 같음

<표 1-2>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의 주요 과제

정책 영역	정책과제
양성평등정책 기반정비와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와 강화 • 성인지제도 운영 내실화와 추진역량 강화 • 여성의 대표성과 정책참여 확대
여성폭력근절과 안전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에 대한 통합적 위기대응시스템 강화 • 인권보장 및 안전사회 조성
돌봄과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지원 강화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여성 경제활동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 여성 고용의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여성·가족의 복지과 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 복지 서비스 확대 • 생애 주기별 건강 지원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양성평등 의식 고양 • 양성평등 문화 활동 지원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의 조사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국가 및 제주지역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영역과 과제들을 고려하고자 함

2)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 범위

- 그동안 국가 여성정책의 기본법령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14.5.28.)되고 2015.7.1.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법적 근거는 우선적으로 국가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법령에 뿌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주지역 여성정책의 범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시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양성평등정책의 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기본시책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표 1-3>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시책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음

〈표 1-3〉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시책

기본 시책	주요 내용
양성평등정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주류화 조치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 국가성평등지수, 지역성평등지수
양성평등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조치 • 정책결정과정 · 공직 · 정치 · 경제활동 참여 • 모 · 부성의 권리 보장, 일 · 가정 양립 지원 • 여성 인적자원 개발, 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의 금지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성희롱 실태조사 • 복지증진, 건강 증진
양성평등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한 가족,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조성 • 양성평등주간, 여성친화도시 • 국제협력, 평화통일 과정 참여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에 포함할 여성정책의 범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시책의 내용을 고려하고자 함

3) 「지역성평등지수」

- 여성정책의 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 앞서 논의한 법령 및 계획 외에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성평등지수」의 주요 지표들을 추가로 검토하고자 함
- 「지역성평등지수」는 시 · 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취약한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측정되고 있음(주재선 외, 2014). 「지역성평등

지수」는 그 출발부터 국가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사업으로 추진되었고²⁾,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이 지향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성평등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나아가, 동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성평등지수」에 나타난 제주지역의 성평등 수준 분석은 제주사회에서 취약한 성평등 내지 여성정책 분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준거가 됨.

- 「지역성평등지수」는 8개 영역,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표 1-6>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를 나타냄
 - 개별지표별로 살펴보면, 제주사회는 의사결정 영역에서 관리자 비율, 인권·복지 영역에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와 같은 안전 문제, 가족 영역에서 가사노동시간 성비 및 육아휴직자 성비와 같은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그리고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정보 격차 등 문화·정보 영역의 성평등 수준이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여성정책 추진을 통한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승진 등 고용부문, 안전, 일·가정 양립, 여가·문화·정보 부문 등의 성평등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 수요조사의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용 및 가족 생활에서의 성평등 수준, 일·가정 양립, 여가생활, 정보화 격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향후 제주지역의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임

2) 「지역성평등지수」는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8~2013)의 사업으로 제시되었음(주재선 외, 2014, p.3).

〈표 1-4〉 「지역성평등지수」에 나타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수준과 순위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 경제활동	69.1	1	68.5	3	71.2	2	73.1	1	73.8	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79.7	1	78.5	1	78.4	1	81.0	1	79.3	1
성별임금격차(임금성비)	62.0	2	61.6	4	60.0	7	59.8	7	59.9	6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65.6	10	65.4	12	75.1	5	78.4	4	82.1	3
▪ 의사결정	34.1	1	16.2	13	28.8	1	21.7	8	19.7	10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15.4	8	15.4	14	15.4	14	15.4	14	15.4	14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27.7	3	29.5	3	30.8	4	32.9	3	35.8	2
관리자 비율 성비	59.1	1	3.7	16	40.2	1	16.9	9	7.9	14
▪ 교육·직업훈련	91.2	12	91.4	13	91.6	13	91.8	13	92.0	13
평균교육년수 성비	82.4	13	82.8	13	83.2	13	83.6	13	84.0	1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복지	67.4	4	69.3	4	72.4	4	75.8	4	78.4	3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74.9	1	78.4	1	82.9	1	86.0	1	89.2	1
기초생활보장자	60.0	10	60.3	10	61.9	9	65.6	9	67.6	9
▪ 보건	97.9	1	98.2	1	98.1	1	98.4	1	98.2	1
건강관련 삶의 질(EQ-5D)	95.7	16	96.4	14	96.3	14	96.8	9	96.5	10
건강검진수검률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안전	61.5	13	60.9	13	64.1	10	62.8	11	63.2	7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비	67.9	10	78.1	4	77.3	4	76.4	7	79.9	6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	55.0	14	43.7	16	51.0	13	49.1	14	46.6	14
▪ 가족	53.9	10	54.5	14	54.7	14	64.1	4	63.0	6
가사노동시간 성비	25.3	6	24.9	6	24.5	8	24.1	10	23.7	12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86.0	16	85.0	16	92.9	10	100.0	1	100.0	1
셋째 아이 이상 출생성비	85.2	10	78.4	16	84.4	15	93.9	3	93.6	7
육아휴직자 성비	19.3	3	29.7	2	17.2	12	38.3	3	34.7	7
▪ 문화·정보	76.9	15	78.2	15	79.6	12	76.9	15	75.9	16
여가시간 성비	68.8	16	67.6	16	66.4	16	65.1	16	63.9	16
여가시간만족도 성비	81.9	13	84.7	8	87.9	6	80.1	13	75.4	16
인터넷 이용률 성비	80.1	10	82.4	12	84.5	13	85.4	11	88.3	11

주 : 주재선 외, 2014.

4. 여성정책 조사 현황

가. 제주지역 여성정책 조사 현황

- 2000년대 이후 제주지역 및 타 지역의 여성정책 수요 조사 관련한 선행 조사연구를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의 조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함

1) 조사연구 추진체계

- 2000년대 이후 제주지역의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는 지역 내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에 따라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음
- 2000년대 중반까지의 제주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는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주로 수행하였음. 한편,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제주 여성의 교육, 정책 관련 시설들을 한 곳에 모으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설치(2006. 7. 1. ~ 2008. 3. 4.)되고, 이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기획조사부에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함(문순덕, 2010)
-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부(2008. 3. 4. ~ 2010. 1. 8.)로 흡수되면서 조사연구기능은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이관되었고, 여성교육기능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2010. 1. 13. 개관)로 귀속되었음(문순덕, 2010)
- 2014년 제주지역 여성정책 전문기관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2014. 3. 31. 개원)되어 제주지역 여성정책 조사를 비롯한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게 됨

2) 주요 조사 현황

- 2000년대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여성정책 관련하여 다양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표 1-5>는 연도별로 조사명, 조사 개요, 조사 내용, 연구 추진기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약·제시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제주지역에서 실시된 여성정책 관련 조사동향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한정된 조사가 대부분이며, 주로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표본수는 여성의 대표성을 고려하기에는 적은 편이며,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수요 조사 또는 실태 조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분야별로 조사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 분야

- 2000년대 중반에 직장여성의 근무만족(김진영·남진열, 2005), 여성 근로자의 고용 실태(고재문 외, 2006),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정승훈, 2007) 등 여성 고용 관련 조사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음. 이후 경제활동 관련 조사는 다소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13년 경력단절 여성 관련 조사(정영태·조영희, 2013)가 실시되었음

□ 출산·육아·가족관련 분야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주요 국정 이슈로 등장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주지역의 여성정책 관련 조사의 상당수가 출산·육아 관련 분야에 집중되었음. 조사 분야는 출산 가치관·출산환경·출산 정책 관련(임애덕, 2007; 강대옥 외, 2008; 김대호, 2008; 정민 외, 2009)

□ 부부·가족 분야

- 부부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드물게 이루어진 편임. 부부의 양성평등 실태에 관한 조사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고(강대옥·임애덕, 2003), 가족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가 2009년에 이루어졌음(정영태 외, 2009)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분야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조사연구로는 제주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들의 활동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정대연 외, 2004), 제주지역의 전 현직 여성 도의원을 대상으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조사한 연구(문순덕·김진호, 2013)등이 있음

□ 특정 집단 대상 조사

- 대학생, 장애인, 농업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치참여, 경제활동, 복지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도 진행되었음. 예를 들면, 대학생의 성, 가족 및 정치참여 의식에 대한 조사(김진영·임애덕, 2002), 신세대 제주여성의 가치관 관련 조사(정영태·김혜연, 2005,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복지욕구 관련 조사(강경희 외, 2007),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관련 조사(강경희, 2007) 등이 있음

□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

-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는 2010년 이후에 일부 수행되었음
 - 가장 종합적인 조사로는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 수립을 위하여 실시된 도민 의견조사(문순덕 외, 2010)가 있음. 동 조사는 가족, 경제, 인력개발, 사회·문화, 인권, 복지, 성주류화, 여성친화도시 등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로 20세 이상 남녀 300명 대상의 소규모 조사였음
 - 2011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제주여민회가 공동으로 제주지역 여성정책 과제선정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동 조사는 여성인권, 경제활동, 돌봄, 복지 분야에 집중된 조사였고, 20-70세 여성 225명의 소규모 조사였음(고 의경, 2011)
 - 2014년에는 새로 개원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주지역 여성·가족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도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으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실시된 여성정책 관련 조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조사였고, 조사 내용은 크게 가족, 가정폭력, 성폭력 분야에 집중되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관련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는 드문 편으로, 대표성 있는 여성정책 수요조사가 필요한 시점임

〈표 1-5〉 제주지역 여성정책 관련 조사 현황(2001~2014)

조사 연도	조사명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연구 주관기관 (출처)
2014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도내 일반가구 거주 19세 이상 남녀 표집방법: 층화계통표집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표본수 : 3,000명 조사기간: 8.18 ~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 혼인·출산·보육, 가족생활, 가족가치관, 정책 인지도 및 욕구 가정폭력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경험, 가정폭력피해의 영향, 가정폭력 대응, 정책인지도와 욕구 성폭력 :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경험, 성폭력 피해 영향, 성폭력 대응, 정책인지도와 욕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권희정·염미경, 2014; 이연화·홍연숙, 2014; 이화진·홍연숙, 2014)
2013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 욕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경력단절여성 표집방법: 유의표집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표본수 : 510명(여성 310) 조사기간: 11.30 ~ 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경험, 경력단절 경험, 재취업 여건 및 욕구, 재취업 프로그램 및 제도개선 등 	제주발전연구원 (정영태·조영희, 2013)
2011	제주지역 여성정책 과제선정을 위한 욕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만 20-70세 제주 거주 여성 표집방법: 편의표집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표본수 : 2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권, 경제활동, 돌봄, 복지 	한국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 (고의경, 2011)
2011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의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제주지역의 전·현직 여성 도의원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표본수 : 15명 조사기간: 7월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정당적 관점, 법·제도적 개선,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지역별 정당 여성의무공천제, 사회문화적 관점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김진호, 2013)
201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와 예방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20-50세 남녀 표집방법 : 임의표집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표본수 : 510명(여성 310) 조사기간: 11.30 ~ 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역할인식, 폭력 인식, 폭력에 대한 처벌과 수위, 폭력피해자 지원제도, 폭력 예방프로그램 	제주발전연구원 (정영태, 2010)
2010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 수립을 위한 도민 의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20세 이상 남녀 표집방법 : 할당표집 조사방법 : 자기기입조사 표본수 : 300명 조사기간: 8.9 ~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경제, 인력개발, 사회·문화, 인권, 복지, 권익·성주류화, 여성친화도시 분야 정책 과제 의견 수렴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 외, 2010)

주: 표본수는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수임.

(계속)

(계속)

조사 연도	조사명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연구 주관기관 (출처)
200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일반가구의 20세 이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표집방법: 편의표집 조사방법: 1:1 면접조사 조사기간: 5.11 ~ 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관계, 가족가치관, 노후생활, 자녀, 일가정, 건강과 여가, 가족정책 등 	제주발전연구원 (정영태 외, 2009)
2009	제주지역여성의 출산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제주지역 국공립보육시설에 3세 이하 영아를 맡기고 있는 어머니 표본수: 38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계획, 출산동기, 임신·피임·출산 교육경험, 임신 중 건강상태·태고, 분만 경험, 산후조리, 출산환경만족도, 출산과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및 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정민 외, 2009)
2008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지원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제주지역 20대-50대 자녀양육 경험 있는 취업 여성 표집방법: 지역, 직업 고려한 할당표집 조사방법: 1:1 면접조사 표본수: 529명 조사기간: 5. 11 ~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양육실태, 직장에서의 육아지원 실태,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욕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강대옥 외, 2008)
2008	출산여성의 사회진출 욕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출산경험이 있는 25-45세 기혼여성 표본수: 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경험, 취업중단사유, 취업이나 사회활동의 필요성 및 의향, 사회진출 주요요소 평가, 취업 가능성 및 구직 어려움, 창업여건 평가 및 창업 어려움, 사회진출 교육의 필요성 및 경험 등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김대호, 2008)
2007	제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도내 여성장애인 표집방법: 편의표집 조사방법: 자기기업조사 표본수: 252명 조사기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직업 만족도, 사회활동 참여정도, 성역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강경희, 2007)
2007	제주특별자치도민 출산 가치관 및 출산장려 정책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도내 50여개 사업체의 사용자, 중간관리자, 근로자, 예비근로자(남녀) 표집방법: 편의표집 조사방법: 면접 자기기업방행 표본수: 575명 조사기간: 9.7 ~ 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가치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족 출산에 대한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직장내 출산/육아에 대한 태도, 출산/육아관련법에 대한 태도, 여성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임애덕, 2007)

주: 표본수는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수임.

(계속)

(계속)

조사 연도	조사명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연구 주관기관 (출처)
2007	제주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도내 여성농업인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표본수 : 5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특성, 농사경력, 노동시간, 가사노동, 농업정보 취득 통로, 농업관, 출산, 건강, 복지욕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강경희 외, 2007)
2007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도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표집방법 : 단순무작위 조사방법 : 1:1 개별면접 표본수 : 315명 조사기간 : 5.14 ~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취업 원인, 직무환경, 근로조건, 차별대우 개선, 고용안정 	제주발전연구원 (정승훈, 2007)
2007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생생수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도내 10대 이상 여성 표집방법 : 편의표집 조사방법 : 자기기입 조사 표본수 : 200명 조사기간 : 5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여성에 대한 의식 알아보기(가족내에서, 친척행사에서, 지역에서, 학교·학원에서, 일터에서,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공공장소에서, 대중매체 및 각종저작물에서) 	제주여민회 (2007)
2006	도내 여성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및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도내 사업체 여성 근로자 표집방법 : 편의표집 조사방법 : 자기기입조사 표본수 : 834명 조사기간 : 6.15 ~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지원, 직장생활, 직무 경험, 성역할, 취업관련 성차별 경험,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고재문 외, 2006)
2005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19-35세 제주 여성 표집방법: 지역층화표집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표본수 : 521명 조사기간: 10.20 ~ 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성 관련 사회문제들에 대한 여성의 의식과 가치관 	제주발전연구원 (정영태 · 김혜연, 2005)
2005	직장여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근무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도내 50인 이상 사업체 여성 근로자 표집방법 : 임의표집 조사방법 : 우편조사 표본수 : 533명 조사기간 : 11월(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여성의 가족특성, 고용관련 사항, 직무만족과 취업태도, 직무수준, 직무소진, 직장의 근무환경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교육문화센터 (김진영 · 남진열, 2005)
2004	제주도 소속 여성위원의 활동실태 및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제주도 전체 위원회 중 여성위원 표집방법 : 전수조사 조사방법 : 우편조사 표본수 : 167명 조사기간 : 6.23 ~ 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참여실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부심,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여성위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정대연 외, 2004)

주: 표본수는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수임.

(계속)

(계속)

조사 연도	조사명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연구 주관기관 (참고문헌 출처)
2002	부부양성평등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북제주군 가구 거주 20세 이상 남녀 표집방법: 할당표집 조사방법: 1:1 면접조사 표본수: 850명 조사기간: 11.20 ~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과 가정생활, 가정간호, 여가생활, 인터넷, 사회정치참여의식, 집안일, 육아 및 자녀세대, 가족관계, 성폭력 및 성희롱 의식, 경조사에 대한 실태 	북제주군여성발전 위원회 (강대옥·임애덕, 2003)
2001	제주지역 대학생의 성, 가족 및 정치참여 의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제주지역 6개 대학의 대학생 표집방법: 층화표집 조사방법: 자기기입조사 표본수: 524명 조사기간: 5.1 ~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의식, 성폭력 관련 인식, 가족의식, 여성의 사회·정치참여에 관한 인식 	제주도여성특별 위원회 (김진영·임애덕, 2002)

주: 표본수는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수임.

나. 타 지역 여성정책 관련 선행조사 현황

-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조사 및 타 지역에서 수행된 조사연구를 일부 살펴보았고, <표 1-6>은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함³⁾
- 우선, 전국 규모의 조사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 여성정책 수요조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김태홍 외, 2012). 동 조사는 정부의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실시된 것임. 조사대상은 전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20-64세 남녀 1,758명이며 조사내용은 남녀인식 및 태도, 여성정책 각 분야별 정책수요(대표성, 일자리, 교육 및 문화, 보건, 복지, 가족, 안전 등)로 구성됨. 조사의 특징은 각 분야별 실태보다는 ‘정책수요’에 집중된 조사라는 데 있음
-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의 여성정책

3) 2010년 이후의 조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음. 2010년 이전의 타 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관련한 선행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정형옥·안태윤(2012) 참고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2012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정형욱·안태운, 2012). 동 조사는 경기도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9-64세 남녀 3,6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분야는 경제활동, 여성복지, 여성폭력 및 안전, 건강·문화·여가, 돌봄, 가족, 정책추진체계,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등임

〈표 1-6〉 전국 및 타 지역 여성정책 조사 현황

조사 연도	조사명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연구 주관기관 (출처)
2013	서울시 4050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40-50대 여성 · 표집방법 : 인구비례할당표집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표본수 : 400명 · 조사기간 : 12.6 ~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실태, 서울시정 인식, 여성정책 인식 및 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변은지, 2013)
2012	2012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경기도 일반가구 거주 19-64세 남녀 · 표집방법 : 층화계통추출법 ·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 표본수 : 3,647명 · 조사기간 : 11.11 ~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활동, 취약계층 여성복지, 여성폭력 및 안전, 건강·문화·여가, 돌봄, 가족, 정책추진체계,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욱·안태운, 2012)
2012	2012 여성정책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전국 일반가구 거주 20-64세 남녀 · 표집방법 : 층화계통추출법 ·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 표본수 : 1,758명 · 조사기간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인식 및 태도, 각 분야별 정책수요(대표성, 일자리, 교육 및 문화, 보건, 복지, 가족, 안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외, 2012)
2012	2040 경북여성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경북에 거주하는 만20-40대 여성 · 표집방법 : 2단계층화표집 ·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 표본수 : 509명 · 조사기간 : 9.17 ~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경제활동, 출산 및 자녀양육, 안전 및 인권, 문화생활, 여성정책수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이경숙 외, 2012)
2010	민선5기 서울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서울시 만 20세-65세 여성 · 표집방법 : 다단계층화할당표집 ·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 표본수 : 1,500명 · 조사기간 : 7.8 ~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프로젝트 인지도 및 만족도, 돌봄정책, 여성의 일 관련 정책, 여성의 문화여가활동 관련 정책, 안전·건강 관련 정책, 여성의 생활편리증진 정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인선 외, 2010)

○ 타 지자체 여성정책 수요조사로는 서울시의 민선5기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수요

조사(정인선 외, 2010), 40대~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 조사(변은지, 2013), 경북 지역에서 실시한 여성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이경숙 외, 2012) 등이 있음

- 서울시의 민선5기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는 20-65세 여성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조사내용은 여행프로젝트 인지도 및 만족도, 돌봄, 일, 문화·여가, 안전·건강, 여성의 생활편리증진 정책 등임
- 경북지역의 조사는 2040 미래 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시된 조사로, 조사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 509명이며, 조사분야는 경제활동, 출산 및 자녀양육, 안전 및 인권, 문화생활, 여성정책 수요 등임
- 전국 규모의 여성정책 수요조사, 또는 타 지역에서 수행한 여성정책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표본수를 확보하고, 조사대상은 대체로 고령층을 제외한 성인 남녀이며, 조사 분야는 여성정책 전반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5. 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의 목표 모집단
 -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로 정의되지만,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섬, 기술시설, 특수사회 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조사모집단으로 함
 - 조사 대상 선정
 -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내에서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 대상자를 최종조사대상자로 선정함⁴⁾
 - 각 읍면동 지역 조사 POST(읍·면·동·리 사무소 기준)에서 왼쪽으로 매 5번째 가구방문
 - 해당가구 유효응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사당일 기준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 선정
- 4) 조사대상에서 고령층을 제외한 이유는 조사의 내용 중에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돌봄, 일 · 가정 양립의 문제 등 고령층과 관련성이 다소 적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전국 및 타 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의 경우 대체로 고령층을 제외하는 동향을 참고한 결과임. 제주지역 고령 여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표본설계

- 표집방법은 지역(읍면동),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층화할당 표집을 이용하였음
- 읍면동 지역의 만 20세-64세 인구의 성, 연령별 주민등록인구통계표를 기준으로 표본수를 할당하는 층화할당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표본이 모집단인 제주도민의 의견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추출함
- 2015년 4월 기준, 제주지역 읍면동, 성, 연령별 인구수는 <표 1-7>과 같음

<표 1-7> 제주지역 읍면동, 성, 연령별 20-64세 모집단 인구 분포(2015.4.)

(단위: 명)

구분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주도	390,983	37,582	34,194	43,650	41,792	57,056	51,782	47,782	45,188	14,900	17,057
제주시	291,502	28,513	26,057	33,229	32,525	42,040	39,614	34,035	32,709	10,364	12,416
한림읍	12,154	1,187	899	1,212	1,066	2,016	1,417	1,774	1,485	569	529
애월읍	19,320	1,680	1,415	2,274	1,960	3,213	2,399	2,698	2,194	758	729
구좌읍	9,642	895	758	1,088	797	1,579	951	1,447	1,185	462	480
조천읍	12,561	1,257	1,058	1,311	1,124	1,982	1,536	1,733	1,507	516	537
한경면	5,693	437	358	539	356	836	494	760	613	1,049	251
추자면	1,262	119	58	142	89	218	91	230	156	85	74
우도면	1,014	99	90	123	65	168	88	148	131	54	48
일도동,건입동	32,456	3,460	3,077	3,468	3,363	4,184	4,207	4,025	4,199	1,174	1,299
이도동	40,663	3,908	4,306	4,483	4,618	4,945	5,255	4,014	4,326	1,132	3,676
삼도동	15,244	1,563	1,358	1,756	1,630	2,114	2,008	1,821	1,856	506	632
용담동	16,156	1,725	1,466	1,843	1,634	2,227	1,998	1,996	1,940	646	681
아라-오라동	19,514	1,835	1,668	2,571	2,543	2,919	2,680	2,134	1,986	613	565
연동	29,671	3,166	2,903	3,344	3,747	3,824	4,459	3,175	3,439	787	827
노형동	33,754	3,290	3,063	3,484	4,020	5,370	6,027	3,396	3,459	780	865
화북동	16,105	1,584	1,497	1,941	1,960	2,294	2,387	1,842	1,673	454	473
삼양-봉개동	11,226	1,086	962	1,599	1,440	1,620	1,446	1,258	1,130	343	342
이호·외도·도두동	15,067	1,222	1,121	2,051	2,113	2,531	2,171	1,584	1,430	436	408
서귀포시	99,481	9,069	8,137	10,421	9,267	15,016	12,168	13,747	12,479	4,536	4,641
대정읍	10,437	894	799	1,049	918	1,670	1,293	1,491	1,310	488	525
남원읍	11,118	1,056	943	1,108	908	1,716	1,262	1,664	1,414	524	523
성산읍	8,691	767	605	834	663	1,315	867	1,501	1,194	512	433
안덕면	5,960	567	453	622	513	994	639	876	738	298	260
표선면	7,066	646	589	709	539	1,086	834	1,014	933	355	361
송산·영찬·효돈동	9,150	851	741	904	750	1,375	1,050	1,392	1,201	450	436

구분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정방·중앙·천지동	7,523	663	517	741	623	998	908	1,076	1,187	364	446
동홍동	13,772	1,226	1,186	1,427	1,572	2,110	2,171	1,550	1,549	434	547
서흥·대륜동	12,709	1,156	1,162	1,530	1,429	1,835	1,593	1,493	1,441	530	540
대천·중문·예래동	13,055	1,243	1,142	1,497	1,352	1,917	1,551	1,690	1,512	581	570

주 : 지역별 표본할당 시 해당 읍면동의 인구수가 너무 적어 각 표본할당(성·연령) Cell이 1명 미만이 할당되는 경우 유사한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표본구를 선정함.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할당할 경우에도 가급적 '사회문화적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지역구 범위'와 유사하게 조정하여 통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적용함.

○ <표 1-8>은 최종 할당된 조사표본을 제시함

<표 1-8> 조사 표본

(단위: 명)

구분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제주도	1,000	91	91	95	123	122	156	106	134	39	43
제주시	744	69	69	70	97	91	118	77	95	26	32
한림읍	31	2	3	2	4	4	5	4	4	2	1
애월읍	50	4	4	5	6	7	7	6	7	2	2
구좌읍	25	2	2	3	2	4	3	4	3	1	1
조천읍	32	3	3	3	3	5	4	4	5	1	1
한경면	15	1	1	1	1	2	1	2	2	3	1
일도동, 건입동	85	9	9	8	10	9	13	9	12	3	3
이도동	103	9	12	9	13	11	16	9	12	3	9
삼도동	38	4	3	4	4	5	5	4	6	1	2
용담동	42	4	4	4	5	5	6	5	5	2	2
아라·오라동	52	5	4	6	8	6	8	5	6	2	2
연동	76	8	7	7	12	8	13	7	10	2	2
노형동	87	8	8	7	12	12	18	7	11	1	3
화북동	41	4	4	4	6	5	7	5	4	1	1
삼양·봉개동	29	3	2	3	5	3	5	3	3	1	1
이호·외도·도두동	38	3	3	4	6	5	7	3	5	1	1
서귀포시	256	22	22	25	26	31	38	29	39	13	11
대정읍	27	2	2	2	3	3	4	3	5	1	2
남원읍	27	2	3	2	3	3	4	3	5	1	1
성산읍	22	2	2	2	2	2	3	3	4	1	1
안덕면	16	1	1	2	1	3	2	2	2	1	1
표선면	19	2	2	2	1	3	2	3	2	1	1
송산·영천·효돈동	24	2	2	2	2	2	4	2	4	3	1
정방·중앙·천지동	20	2	1	2	2	2	3	2	4	1	1
동홍동	35	3	3	3	5	5	6	3	5	1	1
서흥·대륜동	33	3	3	4	4	4	5	4	4	1	1
대천·중문·예래동	33	3	3	4	3	4	5	4	4	2	1

주 :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도면, 추자면 제외함.

다. 조사 방법

- 조사는 전문리서치 기관의 전문 면접원에 의한 가구 방문 1 :1 면접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5년 5월 20일 ~ 5월 30일까지(11일간)임

라. 조사 내용

-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은 <표 1-9>와 같음

<표 1-9>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양성평등 인식과 정책 수요	제주사회 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필요한 정책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및 정책 수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수요
경제활동	경제활동 실태 (취업여부, 취업특성, 미취업 사유 등) 구직자 취업 수요, 취업·창업 애로 사항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위해 필요한 정책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이용경험 향후 취업·창업 관련 상담·교육 참여 의향 및 희망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도 및 평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요
자녀돌봄, 가족생활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 양육의 어려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수요 건강가정지원 정책 수요
안전	지역사회 안전 수준 인식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수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여성 복지 증진	농촌여성의 복지 증진 정책 수요 여성 장애인의 복지 증진 정책 수요
건강, 여가문화, 교육	주관적 건강 수준 인식 및 여성의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여가활동 시간,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의 어려움 여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정보화 실태, 평생교육 수요 평생교육 수요
일반적 사항	지역, 성별, 연령, 고향, 혼인상태, 최종학력,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장애인 여부

주: 세부 내용은 <부록> 설문지 참조.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과 정책 수요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및 정책 수요
4.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5.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요
6. 자녀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정책 수요
7. 지역사회 안전 인식과 정책 수요
8. 여성 복지 증진 정책 수요
9. 건강, 여가·문화, 교육지원 정책 수요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1>과 같음

<표 2-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 체		1,000	100.0
행정구역	제주시	744	74.4
	서귀포시	256	25.6
동읍면	제주시 동	590	59.0
	제주시 읍면	154	15.4
	서귀포시 동	145	14.5
	서귀포시 읍면	111	11.1
성별	남성	454	45.4
	여성	546	54.6
연령대	20대	181	18.1
	30대	219	21.9
	40대	278	27.8
	50대	240	24.0
	60-64세	82	8.2
학력	중졸이하	81	8.1
	고졸	392	39.2
	전문대졸	277	27.7
	4년제 대졸이상	250	25.0
취업 여부	취업	830	83.0
	미취업	170	17.0
혼인 상태	미 혼	237	23.7
	기 혼	692	69.2
	별거, 이혼, 사별	71	7.1
맞벌이 여부	맞 벌 이	498	72.0
	외 벌 이	194	28.0
	합계	692	100.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9	16.9
	200-299만원	240	24.0
	300-399만원	246	24.6
	400-499만원	146	14.6
	500-599만원	93	9.3
	600만원 이상	106	10.6
장애 여부	장애	76	7.6
	비장애	924	92.4

○ 행정구역별 분포

- 응답자의 행정구역별 분포는 제주시 744명(74.4%), 서귀포시 256명(25.6%)임. 2015년 4월 기준,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제주도내 20-64세 인구는 제주시 289,226명(74.4%), 서귀포시 99,481명(25.6%)(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으로, 응답자의 행정구역별 분포는 도 인구분포와 비례함
- 응답자의 분포를 읍면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 지역 590명(59.0%), 제주시 읍면 지역 154명(15.4%), 서귀포시 동 지역 145명(14.5%), 서귀포시 읍면 지역 111명(11.1%)으로 나타남. 읍면지역별 인구 역시 2015년 4월 기준 도내 20-64세 인구의 읍면동 지역 인구분포와 비례함⁵⁾

○ 성별 분포

-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454명(45.4%), 여성 546명(54.6%)임. 2015년 4월 기준,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도내 20-64세 인구의 성별 분포는 남성 199,584명(51.3%), 여성 189,123명(48.7%)임(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조사표본의 성별 분포는 모집단과 비교할 때 여성이 약간 과표집 되었음. 이는 본 조사의 목적에 비추어 여성의 정책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 표집에 유연성을 허용한 결과임

○ 연령별 분포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181명(18.1%), 30대 219명(21.9%), 40대 278명(27.8%), 50대 240명(24.0%), 60-64세 82명(8.2%)임. 조사 대상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모집단인 도내 20-64세 인구의 연령별 인구분포에 비례함⁶⁾

○ 학력별 분포

- 조사 대상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중졸이하 81명(8.1%), 고졸 392명(39.2%), 전문대졸 277명(27.7%),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250명(25.0%)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20-64세 인구의 학력수

5) 2015년 4월 기준,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도내 20-64세 인구의 읍면동 지역별 분포는 제주시 동 지역 229,856명(59.1%), 제주시 읍면 지역 59,370명(15.3%), 서귀포시 동 지역 56,209명(14.4%), 서귀포시 읍면 지역 43,272명(11.1%)임(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6) 2015년 4월 기준,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도내 20-64세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는 20대 71,410명(18.4%), 30대 85,023명(21.9%), 40대 108,273명(27.9%), 50대 92,305명(23.7%), 60-64세 31,696명(8.2%)임(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준을 비교한 결과, 조사표본은 중졸이하 인구가 다소 적게 표집 되고, 전문대졸 이상 인구가 약간 과표집된 경향이 있음. 그러나 모집단 통계가 5년 전인 2010년 통계임을 고려할 때 지난 5년 간 도내 인구의 학력수준이 향상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되고, 모집단과의 차이는 우려할 만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⁷⁾

○ 혼인상태별 분포

-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미혼 237명(23.7%), 기혼 692명(69.2%), 별거·이혼·사별 71명(7.1%)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도내 20-64세 인구의 혼인상태는 미혼 25.7%, 유배우 65.1%, 사별·이혼 9.2%로 나타났음. 우리사회의 만혼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최근에는 동 연령대의 유배우 인구가 좀 더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사표본에서는 기혼자의 비율이 약간 과표집된 경향이 있음

○ 취업상태 및 맞벌이 여부

- 조사 대상 응답자의 취업 분포는 취업자 830명(83.0%), 미취업자 170명(17.0%)으로 나타남. 조사표본의 취업자 비율은 통계청의 2013년 통계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큰 격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⁸⁾
- 응답자 중에서 기혼자인 경우 맞벌이 여부를 조사하였음. 조사 대상자 중 기혼 응답자는 692명이며, 이들 중에서 맞벌이는 498명(72.0%), 외벌이는 194명(28.0%)로 나타남. 통계청 자료와 비교하면, 2013년 10월 기준 제주도 유배우 가구(125천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9%(76천가구)로 나타났음(통계청, 2014). 통계청의 동 자료는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20-64세의 생산인구 연령층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됨

7) 각 시도의 연령별 교육수준별 인구 현황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파악 가능함.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내 20-64세 인구의 학력분포는 중졸이하 17.2%, 고졸 42.5%, 전문대졸 18.3%, 4년제 대학 이상 21.9%로 나타남(연구자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통계 자료를 직접 가공한 결과임)

8) 지역의 연령별 취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하반기 기준, 제주지역의 20-64세 인구 중 취업자는 77.8%(남성 85.0%, 여성 70.4%)로 나타남(연구자가 원자료를 직접 분석한 결과임)

○ 가구 소득

- 응답자의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169명(16.9%), 200만원대 240명(24.0%), 300만원대 246명(24.6%), 400만원대 146명(14.6%), 500만원대 93명(9.3%), 600만원 이상 106명(10.6%)으로 나타났다(음9)

○ 장애 여부

- 응답자 중에서 장애인은 76명(7.6%)으로, 도내 20-64세 인구 중 등록장애인 인구(2013년 기준, 17,172명)의 비율(4.6%)보다 소폭 높은 수치임. 이는 장애인 인구가 과소표집될 것을 우려하여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장애인 표집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한 결과임

2.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과 정책 수요

가.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

1) 사회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 제주사회의 주요 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도민 인식을 조사함

- 비교 대상은 '전반적 양성평등 수준', '사회활동과 참여', '정치 참여', '임금·소득', '직장생활, 승진 등', '가사, 육아, 가족생활'의 6개 부문임
- 조사 척도는 7점 척도(1점 매우 불평등 ~ 7점 매우 평등)를 사용함
- <표 2-2>와 <그림 2-1>은 각 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나타냄

9) 인구의 연령대별 가구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국가통계는 없는 편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표본 설문조사인 「제주 사회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음. 2014년 제주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20-59세 응답자의 가구소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만원 미만 29.5%, 200만원대 27.6%, 300만원대 16.9%, 400만원대 12.5%, 500만원대 6.3 %, 600만원 이상 7.3%로 나타남(제주특별자치도, 2014). 본 연구의 조사표본에서 20-59세 연령층의 가구소득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 대비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16.9%)이 약 12%포인트 가량 적게,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19.9%)이 약 6%포인트 많게 표집 되었음.

〈표 2-2〉 사회부문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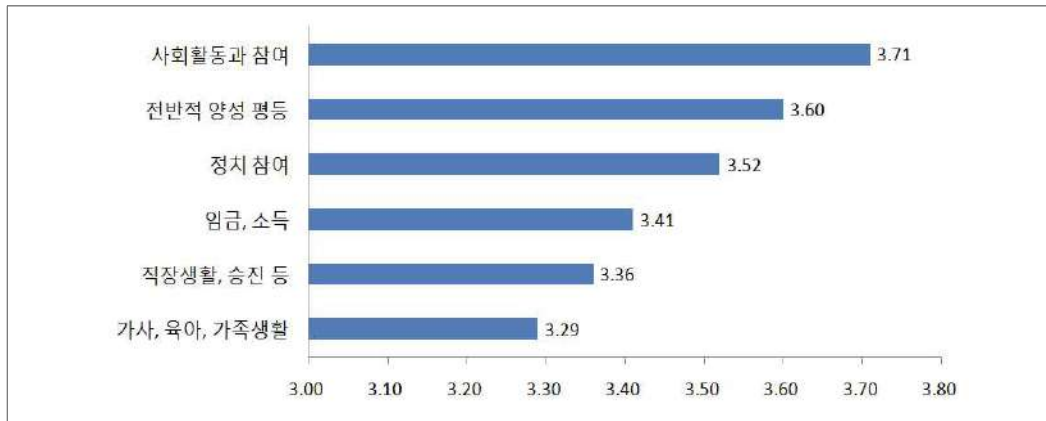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계		불평등				보 통	평등				평균 ¹⁾
				1	2	3			5	6	7	
전반적 양성 평등	1,000	100.0	45.4	2.4	8.7	34.3	40.3	14.3	11.1	2.3	0.9	3.60
사회활동과 참여	1,000	100.0	41.7	2.3	8.9	30.5	39.3	19.0	14.0	3.3	1.7	3.71
정치 참여	1,000	100.0	49.3	3.6	13.1	32.6	36.5	14.2	9.5	2.1	2.6	3.52
임금 · 소득	1,000	100.0	54.4	4.8	13.1	36.5	32.2	13.4	9.8	2.1	1.5	3.41
직장생활, 승진 등	1,000	100.0	56.7	4.4	14.8	37.5	31.5	11.8	9.1	1.4	1.3	3.36
가사, 육아, 가족생활	1,000	100.0	57.1	5.4	18.4	33.3	32.1	10.8	8.4	0.8	1.6	3.29

주: 1) 7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7 매우 평등)의 평균임.

〈그림 2-1〉 제주사회 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7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7 매우 평등)의 평균임.

○ 전반적인 양성평등 수준 인식

-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양성평등 수준은 평균 3.60점으로 7점 척도의 중앙값(4점)인 '보통'보다 낮음. 응답 빈도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45.4%가 제주사회가 성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평등하다는 인식은 14.3%에 불과함

○ 사회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 '사회활동과 참여' 부문이 3.7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치 참여'(3.52점), '임금 · 소득'(3.41점), '직장생활, 승진 등'(3.36점), '가사, 육아, 가족생활'(3.29점)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 '빈도'로 살펴보면,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에 대해 응답자의 57.1%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고, '직장생활, 승진 등'에 대하여 56.7%, '임금·소득' 부문에 있어서 54.4%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함

- 전반적으로 제주도민은 제주사회가 성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가장 성 불평등한 부문은 가족생활 영역이며,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직장생활, 승진 등' 고용 부문이 가장 성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함

□ 성별 양성평등 수준 인식

- <표 2-3>, <그림 2-2>는 제주사회 주요 부문에 대한 성별 양성평등 수준 인식을 나타냄

<표 2-3> 성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계			불평등			보통	평등				평균 ¹⁾	t
				1	2	3			5	6	7		
전반적 양성 평등	남성	454	100.0	35.9	1.5	4.4	30.0	44.9	19.2	15.4	2.9	0.9	3.80
	여성	546	100.0	53.3	3.1	12.3	37.9	36.4	10.2	7.5	1.8	0.9	3.42
사회활동과 참여	남성	454	100.0	35.2	1.3	5.3	28.6	40.1	24.6	17.4	4.6	2.6	3.91
	여성	546	100.0	47.1	3.1	11.9	32.1	38.6	14.3	11.2	2.2	0.9	3.53
정치 참여	남성	454	100.0	41.9	2.9	11.5	27.5	38.8	19.4	12.8	3.1	3.5	3.70
	여성	546	100.0	55.5	4.2	14.5	36.8	34.6	9.9	6.8	1.3	1.8	3.36
임금·소득	남성	454	100.0	45.4	3.7	9.3	32.4	35.9	18.8	13.9	2.9	2.0	3.63
	여성	546	100.0	61.9	5.7	16.3	39.9	29.1	9.0	6.4	1.5	1.1	3.23
직장생활승진 등	남성	454	100.0	48.0	3.3	9.9	34.8	35.5	16.5	12.3	2.4	1.8	3.58
	여성	546	100.0	63.9	5.3	18.9	39.7	28.2	7.8	6.4	0.5	0.9	3.17
가사, 육아, 가족생활	남성	454	100.0	46.2	3.1	12.3	30.8	37.2	16.5	13.2	1.1	2.2	3.57
	여성	546	100.0	66.0	7.3	23.4	35.3	27.8	6.0	4.4	0.5	1.1	3.05

주: 1) 7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7 매우 평등)의 평균임.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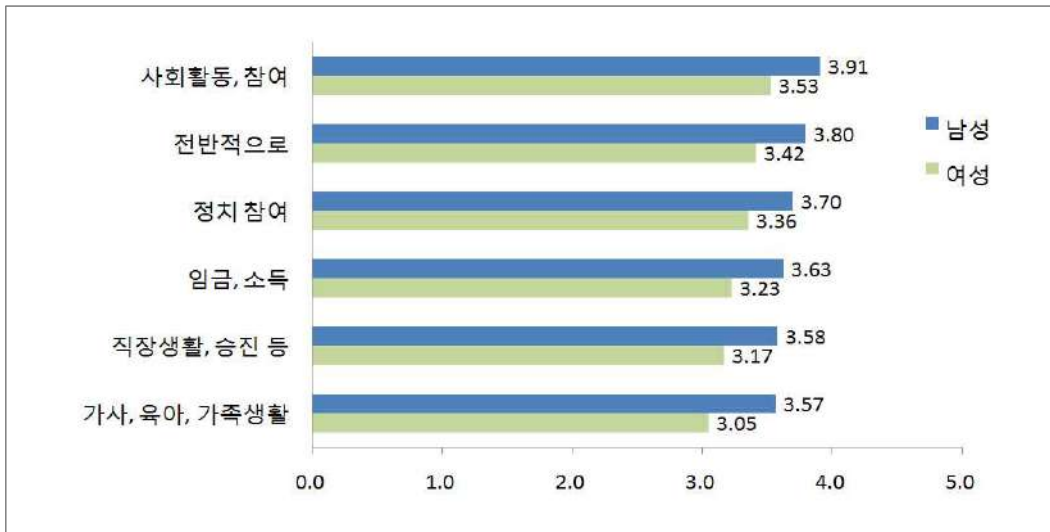
- 성별, 사회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은 우선 그 순서에 있어서 남녀 인식이 동일함

- 남녀 모두 '사회활동과 참여' > '정치 참여' > '임금·소득' > '직장생활·승진 등' >

‘가사, 육아, 가족생활’의 순으로 양성평등하다고 인식함

〈그림 2-2〉 성별 제주사회 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7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7 매우 평등)의 평균임.

- 모든 사회부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양성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함
 - 전반적인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남성 3.80점, 여성 3.42점으로 성별 차이 (0.38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성별 인식 차이가 큰 부문은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임. 동 부문의 평균 점수는 남성 3.57점, 여성 3.05점이며, 남녀 간 격차(0.52점)는 타 부문과 비교하여 가장 큼
 -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 다음으로 성별 격차가 큰 부문은 ‘직장생활, 승진 등’의 고용 부문과 ‘임금·소득’ 부문임. 고용 부문에 대한 양성평등 수준 인식은 남성 3.58점, 여성 3.17점으로 남녀 간 격차는 0.41점임. ‘임금·소득’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 인식은 남성 3.63점, 여성 3.23점으로 남녀 간 격차는 0.40점임

□ 혼인상태별 양성평등 수준 인식

- <표 2-4>, <그림 2-3>은 혼인상태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 인식을 나타냄

〈표 2-4〉 혼인상태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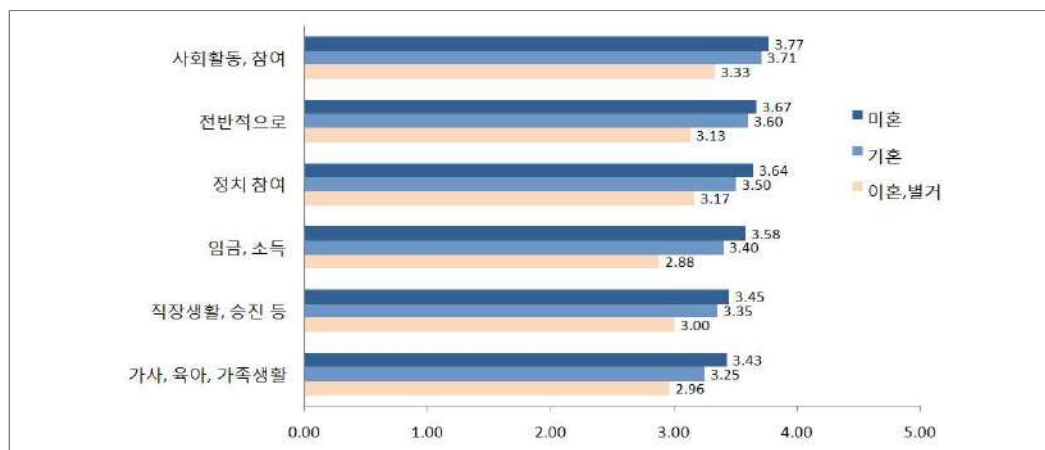
	계 ¹⁾			불평등				보 통	평등				평균 ²⁾	F
					1	2	3			5	6	7		
전반적 양성 평등	미혼	237	100.0	40.5	2.5	8.0	30.0	45.1	14.4	9.7	3.4	1.3	3.67	6.012 ^{**}
	기혼	692	100.0	45.1	2.3	8.8	34.0	39.9	15.0	12.1	2.0	0.9	3.60	
	이혼,별거	52	100.0	71.1	3.8	11.5	55.8	25.0	3.8	3.8	0.0	0.0	3.13	
사회활동 과 참여	미혼	237	100.0	35.0	2.1	8.4	24.5	46.4	18.6	13.9	3.0	1.7	3.77	3.509 [*]
	기혼	692	100.0	42.4	2.3	9.0	31.1	37.9	19.8	14.7	3.5	1.6	3.71	
	이혼,별거	52	100.0	65.4	3.8	13.5	48.1	25.0	9.5	3.8	1.9	3.8	3.33	
정치 참여	미혼	237	100.0	44.2	2.5	8.4	33.3	43.0	12.6	7.6	0.8	4.2	3.64	3.628 [*]
	기혼	692	100.0	55.5	4.2	14.5	36.8	34.6	9.9	6.8	1.3	1.8	3.50	
	이혼,별거	52	100.0	63.5	5.8	17.3	40.4	30.8	5.7	3.8	0.0	1.9	3.17	
임금 · 소득	미혼	237	100.0	46.9	1.3	11.8	33.8	41.4	11.9	6.8	3.0	2.1	3.58	8.214 ^{**}
	기혼	692	100.0	55.6	5.6	13.3	36.7	29.5	14.8	11.4	2.0	1.4	3.40	
	이혼,별거	52	100.0	73.0	11.5	17.3	44.2	25.0	1.9	1.9	0.0	0.0	2.88	
직장생활, 승진 등	미혼	237	100.0	51.1	3.0	13.1	35.0	38.4	10.6	7.6	1.3	1.7	3.45	3.638 [*]
	기혼	692	100.0	57.4	4.8	15.0	37.6	30.1	12.6	9.8	1.6	1.2	3.35	
	이혼,별거	52	100.0	75.0	7.7	19.2	48.1	19.2	5.7	3.8	0.0	1.9	3.00	
가사, 육아, 가족생활	미혼	237	100.0	52.7	4.6	13.9	34.2	34.2	13.0	9.7	0.8	2.5	3.43	4.310 [*]
	기혼	692	100.0	57.2	5.9	19.8	31.5	32.4	10.3	8.2	0.7	1.4	3.25	
	이혼,별거	52	100.0	75.0	3.8	23.1	48.1	23.1	1.9	1.9	0.0	0.0	2.96	

주: 1)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 및 별거의 세 항목으로 구분함. 전체 응답자 중 사별인 경우는 19명으로 매우 적었고, 사별은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와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닐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함.

2) 7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7 매우 평등)의 평균임. **p<.01, *p<.05.

〈그림 2-3〉 혼인상태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7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7 매우 평등)의 평균임.

- 모든 사회부문에서 이혼·별거한 사람들일수록 미혼자나 기혼자에 비해 제주사회가 양성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함
 - 전반적인 양성평등 수준 : 미혼 3.67점, 기혼 3.60점, 이혼·별거 3.13점으로 이혼·별거자의 평가가 가장 낮음. 응답 빈도로 살펴보면, 제주사회가 양성평등하지 않다는 응답은 미혼 40.5%, 기혼 45.1%, 이혼·별거 70.1%로, 이혼·별거한 사람의 거의 2/3가 제주사회를 양성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함
- 특히 ‘임금·소득’ 부문과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이혼·별거자의 평가가 매우 낮음
 - ‘임금·소득’ 부문은 미혼 3.58점, 기혼 3.40점, 이혼·별거 2.88점으로 나타남
 -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은 미혼 3.43점, 기혼 3.25점, 이혼·별거 2.96점
- 이혼·별거 중인 경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성 불평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역으로 성 불평등이 이혼·별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됨

□ 연령대별 양성평등 수준 인식

- <표 2-5>, <그림 2-4>는 연령대별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인식을 나타냄

〈표 2-5〉 연령대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계		불평등	1	2	3	보통	평등	5	6	7	평균 ¹⁾	F
직장 생활, 승진	20대	181	100.0	50.3	3.3	12.7	34.3	39.2	10.5	7.2	1.7	1.7	3.46	2.987*
	30대	219	100.0	62.1	6.4	19.2	36.5	29.2	8.7	7.8	0.5	0.5	3.16	
	40대	278	100.0	60.1	4.7	15.1	40.3	27	12.9	9.4	2.2	1.4	3.33	
	50대	240	100.0	52.9	2.9	12.1	37.9	32.9	14.2	11.3	0.8	2.1	3.48	
	60-64세	82	100.0	56.1	4.9	14.6	36.6	31.7	12.2	9.8	2.4	0	3.34	
가사, 육아, 가족 생활	20대	181	100.0	53.6	14.9	34.8	34.3	34.3	12.2	8.8	1.1	2.2	3.41	4.036**
	30대	219	100.0	61.6	21.5	32.4	28.3	28.3	10.0	8.7	0.5	0.9	3.14	
	40대	278	100.0	61.5	23.0	31.3	28.8	28.8	9.7	6.8	1.4	1.4	3.15	
	50대	240	100.0	51.3	12.5	35.4	36.7	36.7	12.1	9.6	0.0	2.5	3.47	
	60-64세	82	100.0	54.9	19.5	32.9	35.4	35.4	9.8	8.5	1.2	0.0	3.32	

주: 7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7 매우 평등)의 평균임. **p<.01, *p<.05.

- ‘직장생활, 승진 등’의 고용 부문과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에서 연령대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 두 부문 모두 30대의 인식이 가장 낮음
- ‘직장생활, 승진 등’ 부문은 50대가 최고점(3.48점), 30대가 최하점(3.16점)을 나타냄
-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은 50대가 최고점(3.47점), 30대가 최하점(3.14점)을 나타냄

〈그림 2-4〉 연령대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7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7 매우 평등)의 평균임.

- 자녀 출산·양육의 주 연령기인 30대가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의 성 불평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경력단절의 위험에 대한 갈등, 직장 및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갈등, 그리고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 양성평등 수준 인식

- 제주시 동(同) 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네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주민의 양성평등수준 인식을 비교함(<표 2-6>, <그림 2-5> 참조)
- ‘임금·소득’ 부문, ‘정치 참여’ 부문에 있어서 지역별 인식 차이가 나타남
- ‘임금·소득’ 부문은 서귀포시 동 지역이 3.6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주시 동지역 3.36점, 제주시 읍면지역 3.47점, 서귀포시 읍면지역 3.33점으로 나타남
- ‘정치 참여’ 부문은 서귀포시 동 지역이 3.76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시 동지역/

읍면지역 3.50점, 서귀포시 읍면지역 3.35점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서귀포시 동 지역 주민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서귀포시 읍면지역 주민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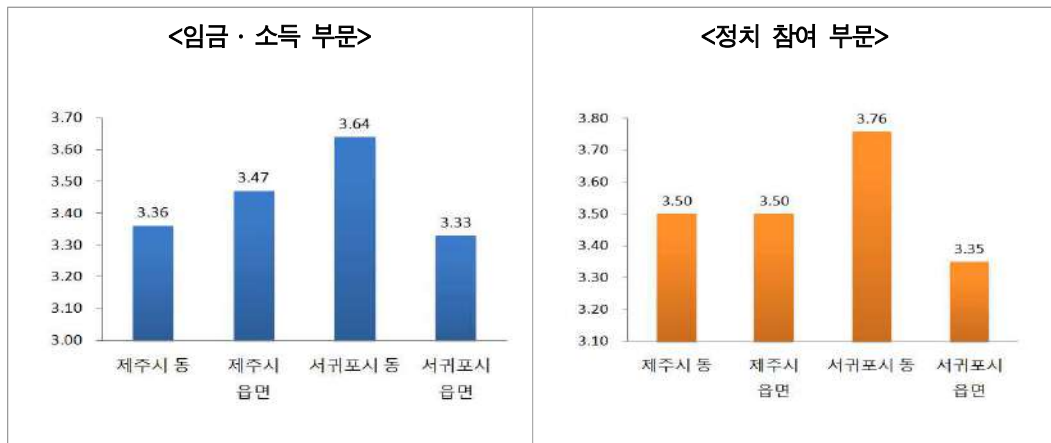
〈표 2-6〉 지역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계		불평등	1	2	3	보통	평등	5	6	7	평균 ¹⁾	F
임금·소득	제주시 동 지역	590	100.0	58.1	5.3	14.1	38.8	28.3	13.6	9.8	2.5	1.2	3.36	2.754*
	제주시 읍면지역	154	100.0	51.9	5.2	11	35.7	35.7	12.3	7.1	1.9	3.2	3.47	
	서귀포시 동지역	145	100.0	41.4	2.1	11.7	27.6	41.4	17.2	14.5	1.4	1.4	3.64	
	서귀포시 읍면지역	111	100.0	55	5.4	12.6	36.9	36.0	9.0	7.2	0.9	0.9	3.33	
정치 참여	제주시 동 지역	590	100.0	49.8	3.6	13.6	32.7	37.3	12.9	8.1	2.2	2.5	3.50	2.914*
	제주시 읍면지역	154	100.0	50.0	3.9	13	33.1	37.7	12.3	7.1	1.9	3.2	3.50	
	서귀포시 동지역	145	100.0	40.7	2.8	11.7	26.2	34.5	24.8	19.3	2.1	3.4	3.76	
	서귀포시 읍면지역	111	100.0	56.8	4.5	12.6	39.6	33.3	9.9	7.2	1.8	0.9	3.35	

〈그림 2-5〉 지역별 제주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7점 척도(1 매우 불평등 ~ 7 매우 평등)의 평균임.

나. 양성평등 정책 수요

1) 양성평등 제주사회 위한 정책 수요

○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표 2-7>, <그림 2-6>)

- 1순위와 2순위의 합으로 보면, 1위는 ‘여성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21.7%)로 나타남
- 다음으로 ‘가사 및 육아부담의 남녀불평등 개선’(17.2%), ‘일반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인식 개선’(16.6%), ‘기업, 조직, 직장의 성차별 문화 개선’(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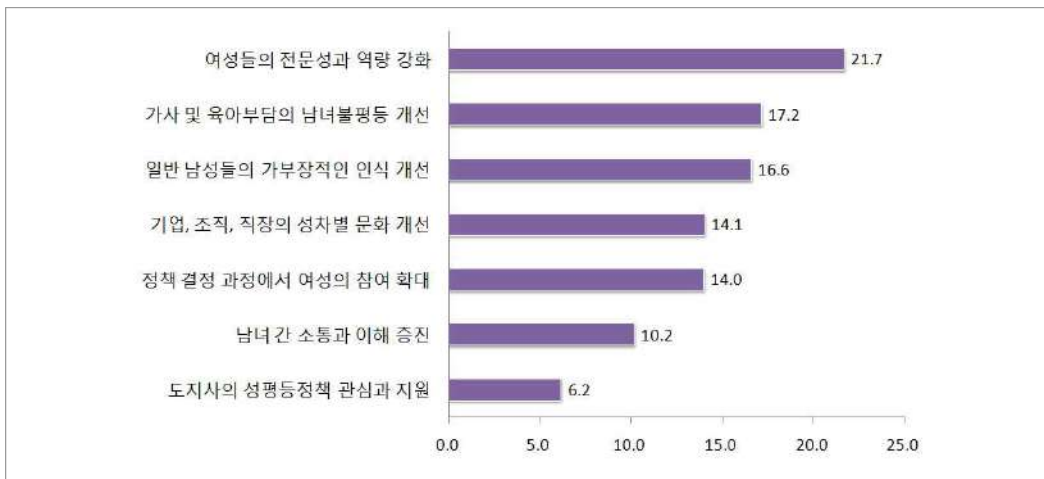
〈표 2-7〉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성평등 정책	1순위		2순위		1,2 순위 합	
	빈도	%	빈도	%	빈도	%
여성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290	29.0	144	14.4	434	21.7
가사 및 육아부담의 남녀불평등 개선	112	11.2	231	23.1	343	17.2
일반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인식 개선	184	18.4	148	14.8	332	16.6
기업, 조직, 직장의 성차별 문화 개선	101	10.1	180	18.0	281	14.1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34	13.4	146	14.6	280	14.0
남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82	8.2	122	12.2	204	10.2
도지사의 성평등정책 관심과 지원	95	9.5	28	2.8	123	6.2
기타	2	0.2	1	0.1	3	0.2
계	1,000	100.0	1,000	100.0	2,000	100.0

〈그림 2-6〉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점)



주: 가장 필요한 것 1순위와 2순위의 합을 백분율화 한 것임. '기타'(2명) 제외.

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양성평등정책 수요를 비교 조사한 결과 지역, 성,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나타남 (<표 2-8> 참조)

〈표 2-8〉 사회인구학적특성별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단위: 명, %)

구분	계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일반 남성들 가부장적 인식 개선	정책 결정과정 여성의 참여확대	가사, 육아부담 남녀 불평등 개선	기업, 조직, 직장 성차별 문화개선	도지사 성평등 정책 관심과 지원	남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기타	χ^2
전체	1,000 100.0	29.0	18.4	13.4	11.2	10.1	9.5	8.2	0.2	
지역	제주시	744 100.0	28.0	18.1	14.4	12.4	10.1	7.5	9.3	0.3
	서귀포시	256 100.0	32.0	19.1	10.5	7.8	10.2	15.2	5.1	0.0
성별	남성	454 100.0	26.0	17.8	13.9	8.1	10.8	11.7	11.2	0.4
	여성	546 100.0	31.5	18.9	13.0	13.7	9.5	7.7	5.7	0.0
연령	20대	181 100.0	21.5	19.3	12.7	9.4	14.4	9.4	12.2	1.1
	30대	219 100.0	28.8	17.8	12.8	16.4	9.1	7.3	7.8	0.0
	40대	278 100.0	32.0	19.1	11.9	11.9	7.2	9.0	9.0	0.0
	50대	240 100.0	30.4	18.8	15.4	7.1	11.3	10.8	6.3	0.0
	60-64세	82 100.0	31.7	14.6	15.9	11.0	9.8	13.4	3.7	0.0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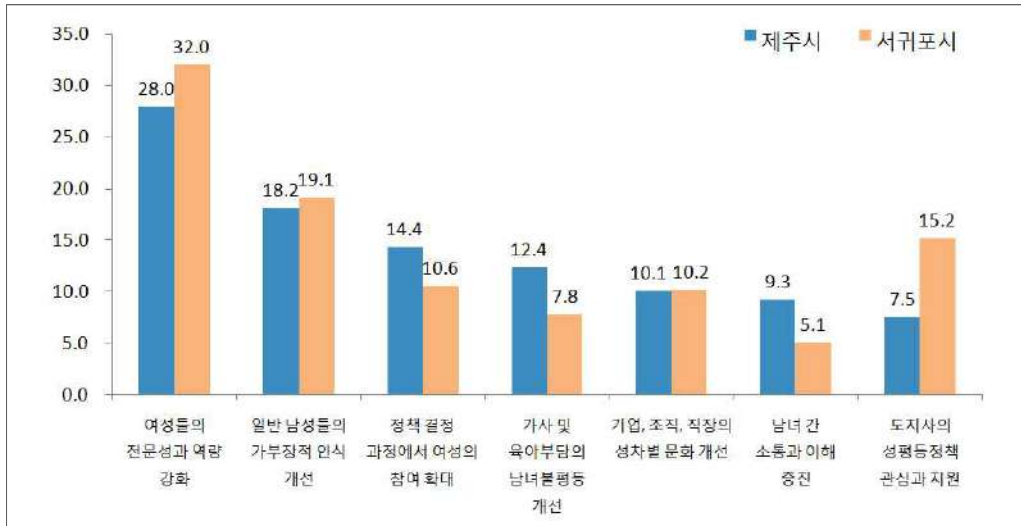
□ 지역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1순위

-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1위는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2위는 ‘남성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으로 동일함
-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행정시별 인식 차이가 나타남
- 제주시는 3위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14.4%), 4위 ‘가사, 육아 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12.4%), 5위 ‘기업, 조직, 직장의 성차별 문화 개선’(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는 3위 ‘도지사의 성평등정책 관심과 지원’(15.2%), 4위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10.6%), 5위 ‘기업, 조직, 직장의 성차별 문화 개선’(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 참조)

- 전반적으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도의 정책적 개입과 사회제도적 개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임

〈그림 2-7〉 행정시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1순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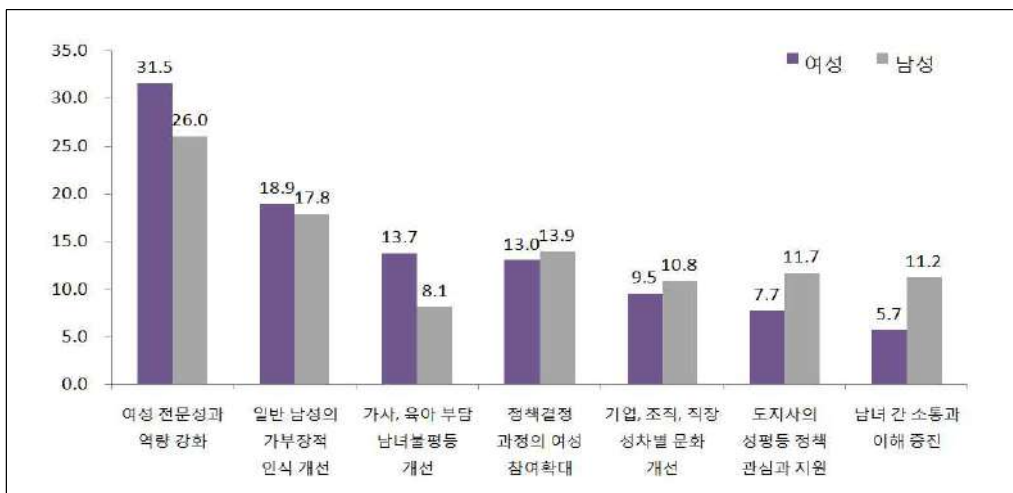


주: 가장 필요한 것 1순위에 대한 응답임. '기타'(2명) 제외.

□ 성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1순위

〈그림 2-8〉 성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단위: %)



주: 가장 필요한 것 1순위에 대한 응답임. '기타'(2명) 제외.

- 양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에 있어서 남녀의 상위 1, 2위 응답이 동일함
 - 남녀 모두 1위는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2위는 '남성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으로 나타남 (<그림 2-8> 참조)
- '가사, 육아 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남녀 인식 차이가 큼
 - 여성의 경우, '가사, 육아 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3.7%로 3위로 나타남. 여성에게 '가사, 육아 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은 정책 결정에서의 여성 참여, 기업이나 조직에서의 성차별 문화 개선, 도지사의 성평등 정책 관심, 남녀 간 소통 등의 요인보다 더 우선순위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가사, 육아 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로 8위, 즉, 모든 비교 부문 중 최하위로 나타남
- 가사, 육아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남녀 간 의견 차이가 가장 큰 것을 볼 때, 부부간 역할 분담 갈등이 예상되며, 민주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남녀 간 소통과 남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연령대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1순위

- 연령대별로 가장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1위는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동일함
-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정책에 있어서 20대~50대는 '일반 남성들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으로 동일하고, 60-64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정책 수요가 높은 항목에 있어서 연령대별 인식 차이가 큼 (<표 2-8> 참조)
 - 20대는 '기업, 조직, 직장에서의 성차별 문화 개선', 30대는 '가사, 육아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 40대는 '가사, 육아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공동 3위)', 50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60-64세는 '일반 남성들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으로 나타남
- 요약하면, 대체로 전 연령층에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남성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함

- 그 외에, 20대는 사회(기업, 조직 등)에서의 성차별 문화 개선, 30대와 40대는 가사와 육아에서의 양성평등, 50대 이상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및 정책 수요

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 전반적 인지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인 56.5%가 ‘모른다’고 응답하고, ‘안다’는 응답은 9.1%에 그침
 - 5점 척도(1 전혀 잘 알지 못한다 ~ 5 매우 잘 알고 있다)의 평균 점수는 2.42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통)보다 낮은 수준임(<표 2-9> 참조)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정책인지도를 비교한 결과, 연령, 학력, 취업여부, 가구소득, 혼인상태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표 2-9> 참조)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가족 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점)

		계		모른다	전혀 잘 알지 못한다	별로 잘 알지 못한다	보통	안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평균 ¹⁾	F
전체		1,000	100.0	56.5	11.3	45.2	34.4	9.1	8.3	0.8	2.42	
연령 대	20대	180	100.0	63.5	17.1	46.4	30.4	6.1	5.0	1.1	2.27	7.423**
	30대	219	100.0	58.0	12.3	45.7	34.7	7.3	7.3	0.0	2.37	
	40대	278	100.0	48.2	5.0	43.2	40.3	11.5	11.2	0.4	2.59	
	50대	239	100.0	54.2	10.4	43.8	34.6	11.3	9.2	2.1	2.49	
	60-64세	82	100.0	72.0	19.5	52.4	22.0	6.1	6.1	0.0	2.15	
학력	중졸이하	81	100.0	70.4	22.2	48.1	18.5	11.1	11.1	1.2	2.20	6.038**
	고졸	392	100.0	59.2	13.5	45.7	33.9	6.9	6.9	0.5	2.35	
	전문대졸	277	100.0	53.8	7.9	45.8	40.1	6.1	6.1	1.1	2.45	
	대졸 이상	250	100.0	50.8	8.0	42.8	34.0	15.2	15.2	0.8	2.57	

		계		모른다	전혀 잘 알지 못한다	별로 잘 알지 못한다	보통	안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평균 ¹⁾	F
취업 여부	취업	830	100.0	54.5	10.5	44.0	35.3	9.4	10.2	0.8	2.46	11.795**
	미취업	170	100.0	66.5	15.3	51.2	30.0	2.9	3.5	0.6	2.22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9	100.0	65.1	16.0	49.1	29.6	5.3	4.7	0.6	2.25	2.395*
	200-299만원	240	100.0	60.8	12.9	47.9	28.3	10.8	9.6	1.3	2.38	
	300-399만원	246	100.0	51.2	11.4	39.8	40.7	8.1	7.7	0.4	2.46	
	400-499만원	146	100.0	48.6	8.2	40.4	44.5	6.8	6.2	0.7	2.51	
	500-599만원	93	100.0	57.0	5.4	51.6	31.2	11.8	11.8	0.0	2.49	
	600만원 이상	106	100.0	55.7	9.4	46.2	30.2	14.2	12.3	1.9	2.51	
혼인 상태	미혼	237	100.0	62.0	17.3	44.7	32.5	5.5	4.6	0.8	2.27	8.393**
	기혼	692	100.0	53.2	8.2	44.9	36.3	10.5	10.0	0.6	2.50	
	이혼, 별거	52	100.0	71.2	17.3	53.8	21.2	7.7	3.8	3.8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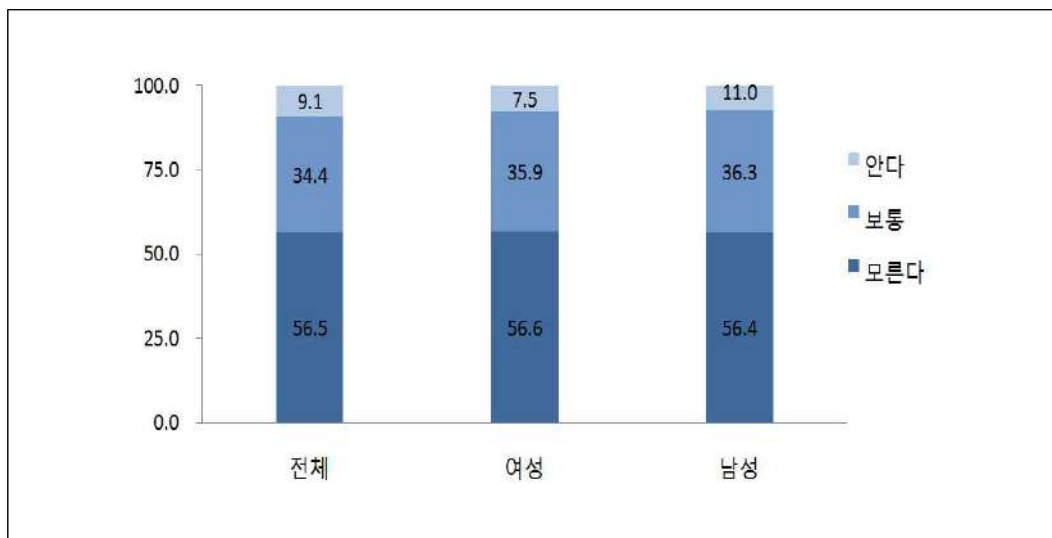
주: 5점 척도(1 전혀 잘 알지 못한다 ~ 5 매우 잘 알고 있다)의 평균임. **p<.01, *p<.0.05.

□ 성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에 있어서 남녀 간의 평균 점수 차이는 없지만, ‘안다’는 응답은 여성 7.5%, 남성 11.0%로 여성이 낮음 (<그림 2-9> 참조)

<그림 2-9> 성별 제주 여성 가족 정책 인지도

(단위: %)



□ 연령대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 40대의 인지도(2.59점)가 가장 높고, 20대(2.27점)와 60-64세(2.15점)의 인지도 낮음
- ‘안다’는 응답은 40대 11.5%, 50대 11.3%, 30대 7.3%, 20대와 60-64세가 각각 6.1%로 나타남

□ 학력수준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 4년대졸 이상(2.57점)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중졸이하(2.20점)의 인지도가 가장 낮음
- 중졸이하 학력층에서 여성·가족정책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은 무려 70.4%로 대졸 이상 학력층의 응답(50.8%)과 격차가 매우 큼

□ 취업여부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 취업자(2.46점) 대비 미취업자의 인지도(2.22점)가 유의미하게 낮음
- ‘안다’는 응답 비율은 취업자의 9.4%, 미취업자의 2.9%로 3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남

□ 가구소득수준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평균 인지도 점수는 200만원 미만 2.25점, 200-299만원 2.38점, 300-399만원 2.46점, 400-499만원 2.51점, 500-599만원 2.49점, 600만원 이상 2.51점으로 나타남
- ‘안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 중에 4.7%에 그친 반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3.1%로 두 배 이상 차이 남

□ 혼인상태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 기혼자의 인지도(2.50점)가 가장 높고 미혼자(2.27점)와 이혼·별거자의 인지도(2.23점)가 유사한 수준으로 낮음
- 기혼자의 53.2%가 제주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이혼·별거자의 무려 71.2%가 ‘모른다’고 응답함
- 전반적으로 취약집단일수록 정책 인지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집단을 위한 정책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수요

1) 전반적 정책 수요

○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함

〈표 2-10〉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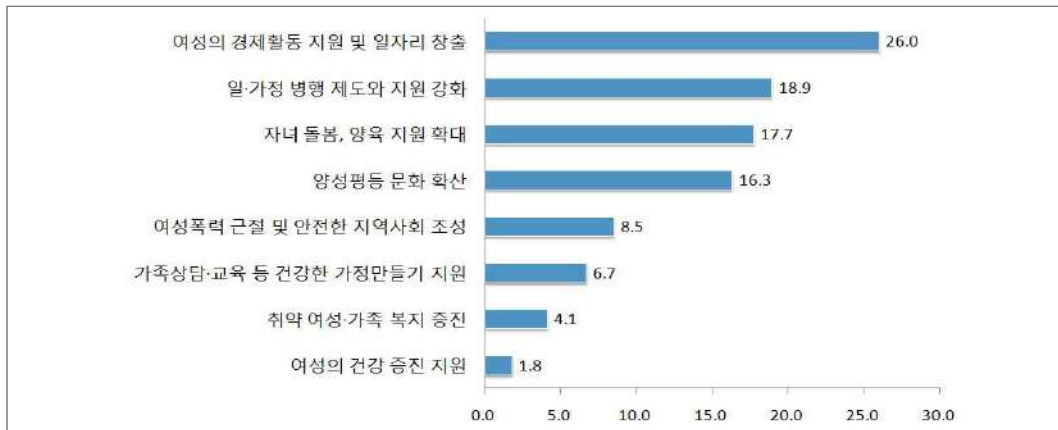
(단위: 명, %)

	빈도	비율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260	26.0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강화	189	18.9
자녀 돌봄, 양육 지원 확대	177	17.7
양성평등 문화 확산	163	16.3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85	8.5
가족상담, 가족 교육 등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	67	6.7
취약 여성·가족 복지 증진	41	4.1
여성의 건강 증진 지원	18	1.8

-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6.0%)로 나타남(<표 2-10> 참조)
- 다음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강화’(18.9%), ‘자녀 돌봄, 양육 지원 확대’(17.7%), ‘양성평등 문화 확산’(16.3%),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8.5%), ‘가족상담·교육 등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6.7%), ‘취약 여성·가족 복지 증진’(4.1%), ‘여성의 건강 지원’(1.8%)의 순으로 나타남(<표 2-10>, <그림 2-10> 참조)

〈그림 2-10〉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단위: %)



2) 사회인구학적특성별 정책 수요

□ 지역별 여성·가족 정책 수요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별로 여성·가족 정책 수요에 소폭 차이가 나타남

- 제주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7.0%) >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강화’(21.4%) > ‘자녀 돌봄, 양육 지원 확대’(18.8%) > ‘양성평등 문화 확산’(14.0%) >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6.7%)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11>, <그림 2-11> 참조)
- 서귀포시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3.1%)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23.1%)이 가장 필요한 정책 공동 1위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자녀돌봄, 양육지원 확대’(14.5%), ‘여성 폭력 근절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13.7%),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강화’(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양성평등, 폭력 근절 및 안전 강화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앞서며 그 수요도 높음

〈표 2-11〉 지역별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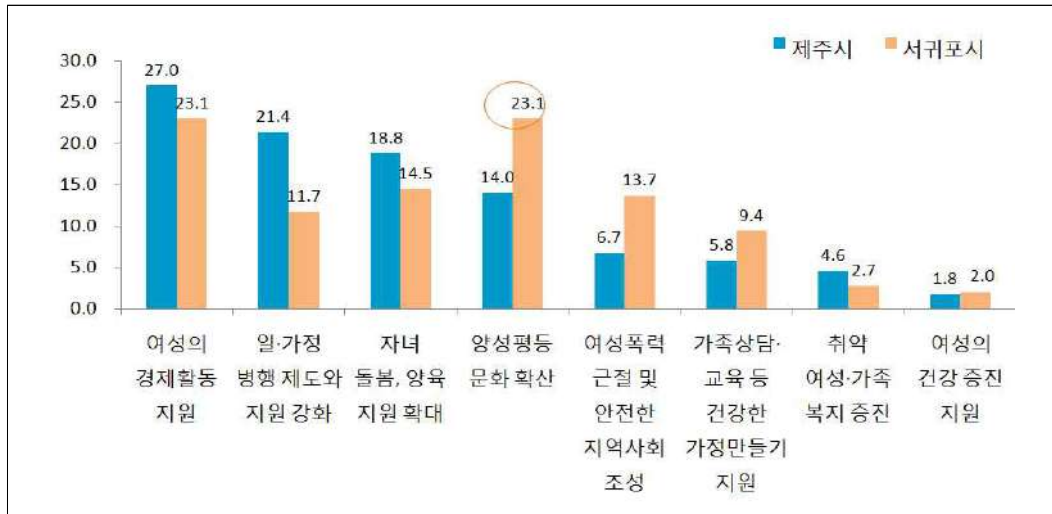
(단위 : 명, %)

		계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	일·가정 생활 병행 위한 제도와 지원 강화	자녀 돌봄, 양육 지원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여성 폭력 근절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	가족 상담, 교육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	취약 여성 가족 복지 증진	여성의 건강 증진 지원	χ^2
전체		1,000	100.0	26.0	18.9	17.7	16.3	8.5	6.7	4.1	1.8	
행정시	제주시	744	100.0	27.0	21.4	18.8	14.0	6.7	5.8	4.6	1.8	31.877***
	서귀포시	256	100.0	23.1	11.7	14.5	23.1	13.7	9.4	2.7	2.0	
동 읍면	동 지역	735	100.0	28.7	20.0	18.5	14.6	6.9	5.3	4.2	1.8	31.877***
	읍면 지역	265	100.0	18.5	15.9	15.5	21.1	12.8	10.6	3.8	1.9	

**p<.001.

〈그림 2-11〉 행정시별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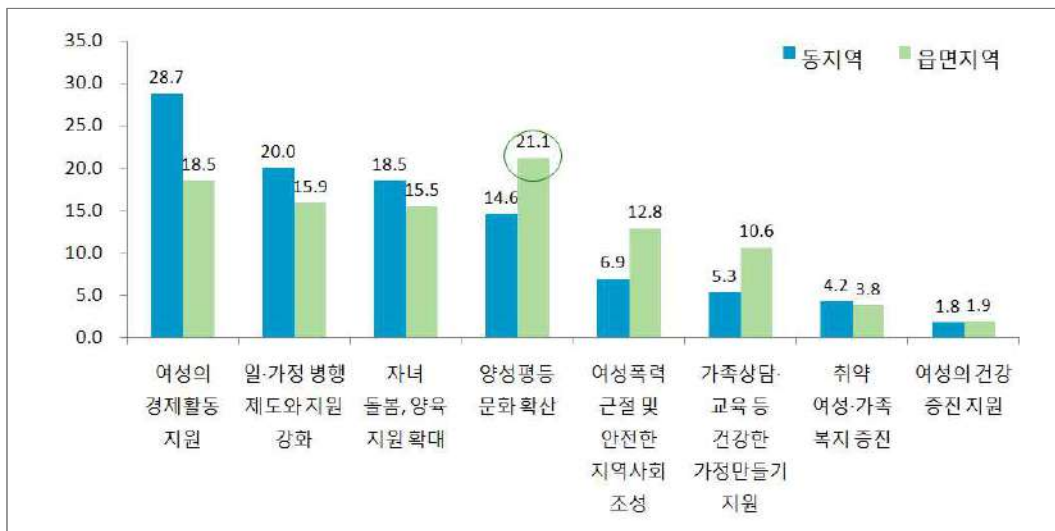
(단위: %)



○ 동(同)·읍면지역별로 여성·가족 정책 우선순위에 차이가 나타남

〈그림 2-12〉 동·읍면 지역별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단위: %)



- 동지역은 앞서 제시한 전체 응답과 동일한 순서로 나타남(<표 2-10>, <그림 2-12> 참조)

- 읍면지역의 경우, 정책수요 1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21.1%)으로 나타났고, 그 외 정책 순위는 동지역과 동일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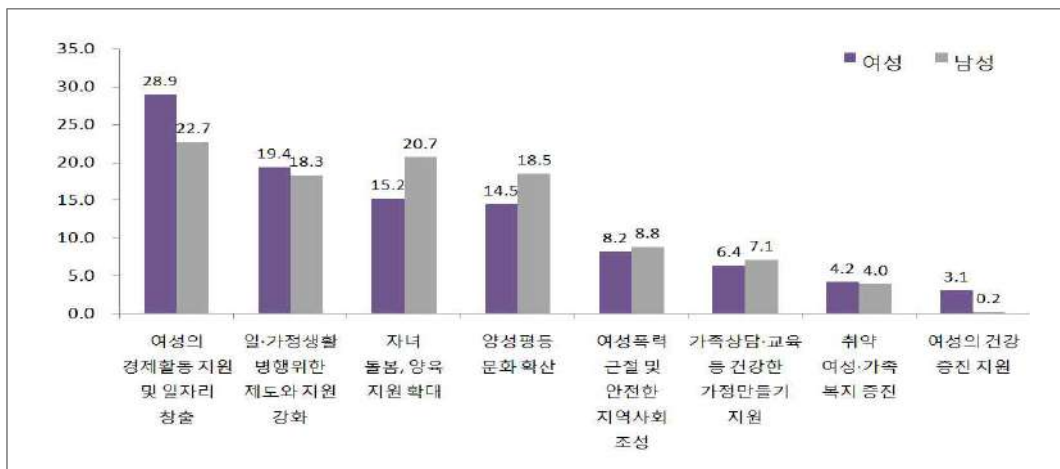
- 읍면지역일수록 동지역보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 수요가 우선순위에서 앞서며, 그 수요도 높다는 것이 특징적임

□ 성별 여성·가족정책 수요

- 여성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8.9%), '일·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제도와 지원 강화'(19.4%), '자녀 돌봄, 양육 지원 확대'(15.2%), '양성평등 문화 확산'(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2-13> 참조)
- 남성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2.7%)이 여성과 동일하게 1위로 나타남. 다음으로 '자녀 돌봄, 양육지원 확대'(20.7%), '양성평등 문화 확산'(18.5%), '일·가정생활 병행을 위한 제도와 지원 강화'(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차이는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 순위에서 가장 두드러짐
 - 일·가정생활 병행 위한 제도와 지원 강화에 대한 수요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성 2순위, 남성 4순위로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더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남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음
 - 일·가정 양립이 남녀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남성의 인식 개선 및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그림 2-13> 성별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단위: %)



주: 성별 차이는 $p < .01$ 에서 유의미함.

□ 연령대별 여성·가족 정책 수요

- 20대는 '일·가정생활 병행 위한 제도와 지원 강화'(22.1%), '자녀 돌봄, 양육 지원 강화'(21.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19.9%), '양성평등 문화 확산'(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12>, <그림 2-14> 참조)
- 30대는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 확대'(26.0%)가 최우선 순위이고, 다음으로 '일·가정생활 병행 위한 제도와 지원 강화'(25.1%),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4.2%), '양성평등 문화 확산'(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0대, 50대는 1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2위 '양성평등 문화 확산', 3위 '일·가정생활 병행 위한 제도와 지원 강화'로 나타남
- 60-64세의 정책 수요는 1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2위 '양성평등 문화 확산', 3위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 확대', 4위 '일·가정생활 병행 위한 제도와 지원 강화' 4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20대와 30대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자녀돌봄 지원 수요가 높고, 40대 이상에서는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수요가 높음

〈표 2-12〉 연령대별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정책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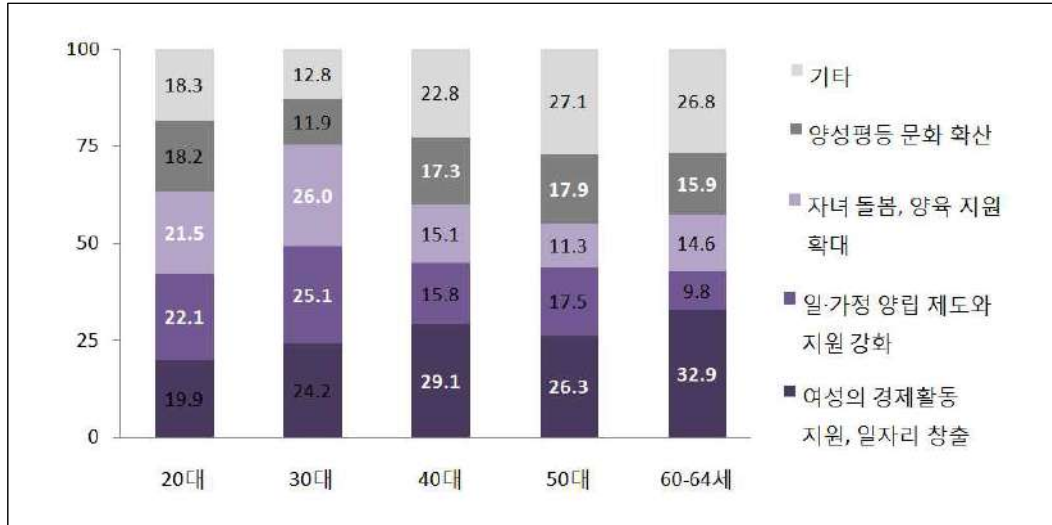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계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	일·가정 생활 병행 위한 제도와 지원 강화	자녀 돌봄, 양육 지원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여성 폭력 근절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	가족 상담, 교육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	취약 여성 가족 복지 증진	여성의 건강 증진 지원	χ^2
전체	1,000	100.0	26.0	18.9	17.7	16.3	8.5	6.7	4.1	1.8	61.547***
20대	181	100.0	19.9	22.1	21.5	18.2	5.0	5.0	6.6	1.7	
30대	219	100.0	24.2	25.1	26.0	11.9	5.5	2.7	3.2	1.4	
40대	278	100.0	29.1	15.8	15.1	17.3	9.4	7.6	3.6	2.2	
50대	240	100.0	26.3	17.5	11.3	17.9	12.1	10.0	3.3	1.7	
60-64세	82	100.0	32.9	9.8	14.6	15.9	11.0	8.5	4.9	2.4	

***p<.001.

〈그림 2-14〉 연령대별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1순위

(단위 : 명, %)



4.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가. 제주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 제주 여성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1순위에 대해 조사함

〈표 2-13〉 제주여성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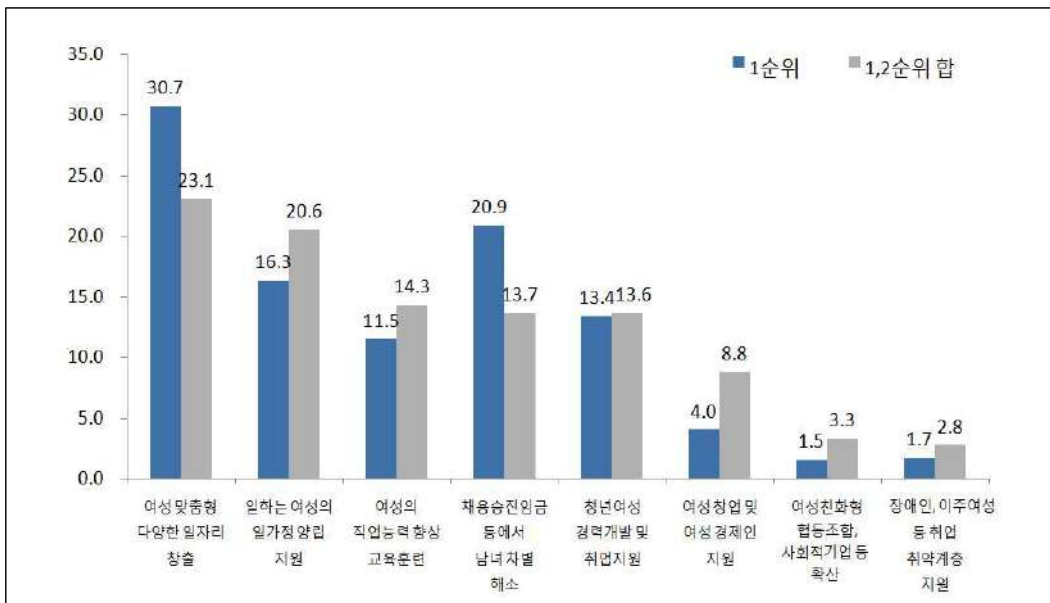
(단위: 명, %)

경제활동 지원 정책	1순위		2순위		1,2 순위 합	
	빈도	%	빈도	%	빈도	%
계	1,000	100.0	1,000	100.0	2,000	100.0
여성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 창출	307	30.7	154	15.4	461	23.1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163	16.3	248	24.8	411	20.6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115	11.5	171	17.1	286	14.3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남녀 차별 해소	209	20.9	64	6.4	273	13.7
청년여성들의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	134	13.4	138	13.8	272	13.6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	40	4.0	135	13.5	175	8.8
여성친화형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확산	15	1.5	51	5.1	66	3.3
장애인, 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17	1.7	38	3.8	55	2.8

- 전체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는 ‘여성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 창출’(30.7%)로 나타남
- 다음으로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남녀 차별 해소’(20.9%),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13> 참조)
- 제주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1순위와 2순위의 합
 -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23.1%)이 여전히 1위로 나타남
 - 다음으로 2위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20.6%), 3위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14.3%), 4위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남녀차별 해소’(13.7%), 5위 ‘청년 여성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13.6%), 6위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8.8%)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13>, <그림 2-15> 참조)
- 종합하면, 정책 수요 1순위와 2순위를 합했을 때,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 위한 교육훈련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상위로 나타남

〈그림 2-15〉 제주여성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전체 응답)

(단위: %)



○ 여성이 생각하는 제주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 여성 응답자의 제주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를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2-14>, <그림 2-1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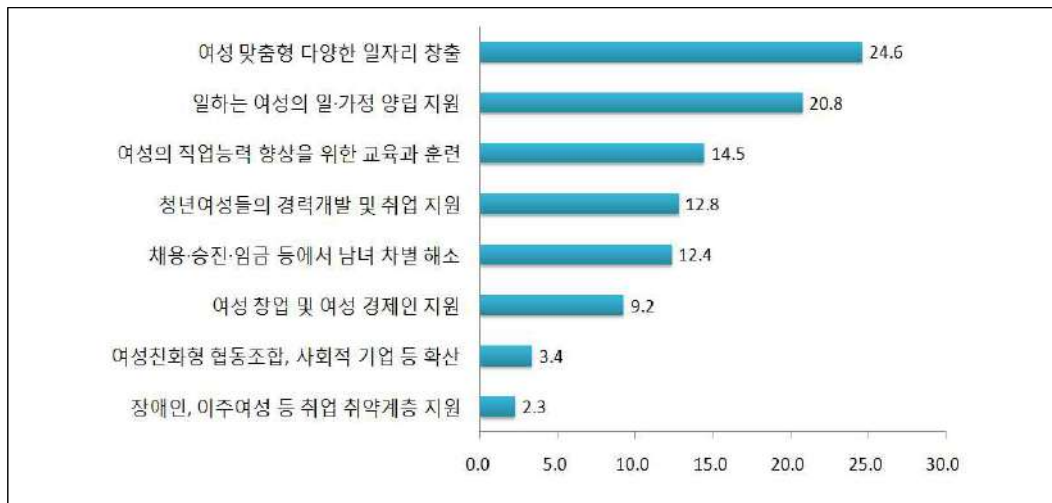
<표 2-14> 제주여성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여성 응답)

(단위: 명, %)

경제활동 지원 정책	1순위		2순위		1,2 순위 합	
	빈도	%	빈도	%	빈도	%
계	546	100.0	546	100.0	1092	100.0
여성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 창출	178	32.6	91	16.7	318	24.6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96	17.6	131	24.0	269	20.8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60	11.0	98	17.9	187	14.5
청년여성들의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	69	12.6	71	13.0	166	12.8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남녀 차별 해소	101	18.5	34	6.2	160	12.4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	25	4.6	76	13.9	120	9.2
여성친화형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확산	11	2.0	26	4.8	44	3.4
장애인, 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6	1.1	19	3.5	30	2.3

<그림 2-16> 제주여성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여성 응답)

(단위: %)



주: 1순위와 2순위의 합을 백분율화 한 것임.

- 정책수요 1순위와 2순위를 합했을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응답과 동일함. 즉, 여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1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24.6%), 2위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20.8%), 3위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14.5%), 4위 '청년 여성들의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나. 구직자의 취업 수요

1)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

○ 구직자의 성, 연령별 특성

-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현재 미취업상태이면서 구직 중인 사람은 82명임
- 구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21명(25.6%), 여성 61명(74.4%)으로 나타남
- 구직자의 연령대는 20대 24명(29.3%), 30대 25명(30.5%), 40대 18명(21.9%), 50대 8명(9.8%), 60-64세 7명(8.5%)으로 나타남(별도 표 제시하지 않음)

○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는 전일제 39.0%, 시간제 61.0%로 나타남

○ 행정시별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

- 제주시는 시간제(67.7%), 서귀포시는 전일제(64.7%)를 선호함(<표 2-15>, <그림 2-17> 참조)

○ 제주가 고향인지여부별 희망 일자리 형태

- 제주가 고향이 아닌 정착주민인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압도적으로 선호(81.8%)하는 반면, 제주가 고향인 경우 전일제 46.6%, 시간제 53.3%로 나타남(<그림 2-17> 참조)

〈표 2-15〉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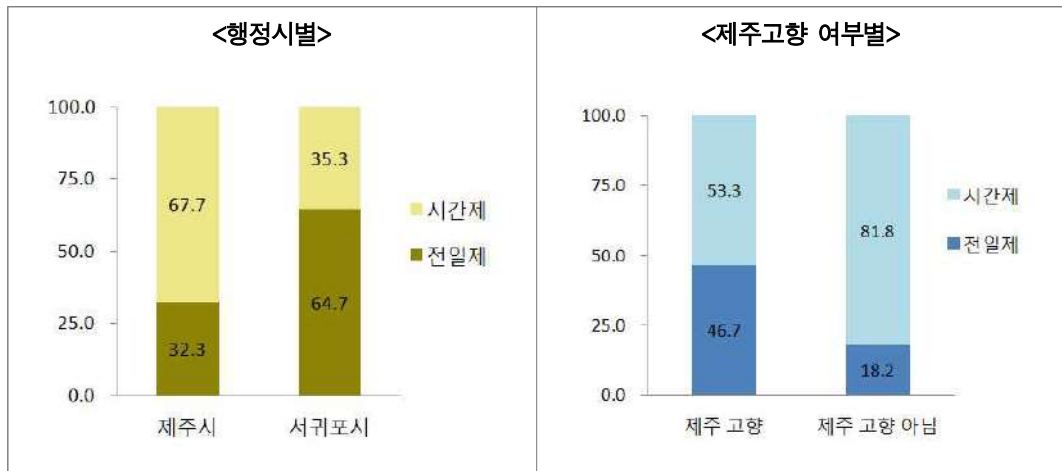
(단위: 명, %)

		계		전일제	시간제	χ^2
전체		82	100.0	39.0	61.0	
행정시	제주시	65	100.0	32.3	67.7	5.594*
	서귀포시	17	100.0	64.7	35.3	
고향	제주	60	100.0	46.7	53.3	5.489*
	비제주	22	100.0	18.2	81.8	
성별	남성	21	100.0	57.1	42.9	3.895*
	여성	61	100.0	32.8	67.2	
경력단절 여성 여부 ¹⁾	경력단절 아님	24	100.0	50.0	50.0	5.869*
	경력단절	35	100.0	20.0	80.0	
연령대	20대	24	100.0	58.3	41.7	6.788
	30대	25	100.0	36.0	64.0	
	40대	18	100.0	33.3	66.7	
	50대	8	100.0	12.5	87.5	
	60-64세	7	100.0	28.6	71.4	
혼인상태	미혼	28	100.0	67.9	32.1	16.559**
	기혼	48	100.0	20.8	79.2	
	이혼, 별거	5	100.0	40.0	60.0	

주: 1) 경력단절 여성은 과거 일 경험이 있으나 결혼, 임신, 출산, 가사, 육아, 자녀교육, 가족 간호 등의 이유로 일을 중단한 사람으로 측정함. 본 조사에서 과거 일 경험이 있으나 일을 중단한 여성은 59명이며, 이 중 경력단절 여성은 35명(54.1%)임.

〈그림 2-17〉 행정시, 제주고향 여부별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단위: %)



○ 성별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

- 여성은 시간제(67.2%), 남성은 전일제(57.1%)를 좀 더 선호함(<표 2-15>, <그림 2-18> 참조)

○ 경력단절 여성의 희망 일자리 형태

- 현재 구직중인 경력단절 여성의 80.0%가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함. 구직자 중 미취업 사유가 경력단절이 아닌 여성의 경우 50.0%만 시간제를 선호함(<그림 2-18> 참조)

○ 연령대별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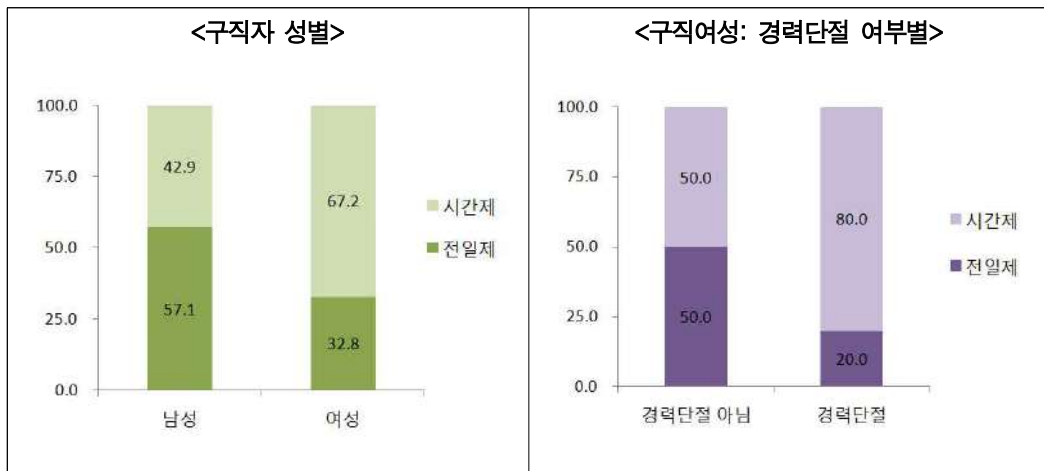
- 20대는 전일제(58.3%), 30대 이상은 다수가 시간제를 선호함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도는 없었지만, 20대와 다른 연령대 간의 차이는 주목할 만한 차이로 보임(<표 2-15> 참조)

○ 혼인상태별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

- 미혼은 전일제(67.9%)를 선호하고, 기혼자의 79.2%, 이혼·별거자의 60.0%가 시간제를 선호함(<표 2-15> 참조)

<그림 2-18> 성별, 경력단절여성 여부별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단위: %)



- 전반적으로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시 주민, 여성, 30대 이상, 경력단절 여성, 정착주민, 미혼이 아닌 경우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높음
- 구직자 특성별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의 취업 지원이 필요함

2)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유형

- 향후 1년 내에 일을 하게 될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해 조사함
- 현재 미취업자(170명) 중에서 향후 1년 내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123명임
- 희망 일자리 유형은 ‘공무원, 공공기관’이 34.1%로 가장 수요가 높고, 다음으로 ‘자영업·창업’(28.5%), ‘일반 회사 취업’(25.2%),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12.2%)의 순으로 나타남(<표 2-16> 참조)

〈표 2-16〉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구분		계		일반 회사에 취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자영업, 창업 (프리랜서 포함)	χ^2
전 체		123	100.0	25.2	34.1	12.2	28.5	-
성별	남성	34	100.0	17.6	44.1	14.7	23.5	3.076
	여성	89	100.0	28.1	30.3	11.2	30.3	
연령대	20대	49	100.0	36.7	55.1	2.0	6.1	55.629**
	30대	35	100.0	28.6	22.9	14.3	34.3	
	40대	21	100.0	14.3	23.8	23.8	38.1	
	50대	12	100.0	0.0	8.3	8.3	83.3	
	60-64세	6	100.0	0.0	16.7	50.0	33.3	
혼인 상태	미혼	53	100.0	35.8	50.9	3.8	9.4	30.511**
	기혼	63	100.0	19.0	22.2	17.5	41.3	
	이혼, 별거	6	100.0	0.0	16.7	33.3	50.0	
경력단절 여성		46	100.0	19.6	28.3	13.0	39.1	-

주: 향후 1년 내에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임. **p<.01.

○ 성별 희망 일자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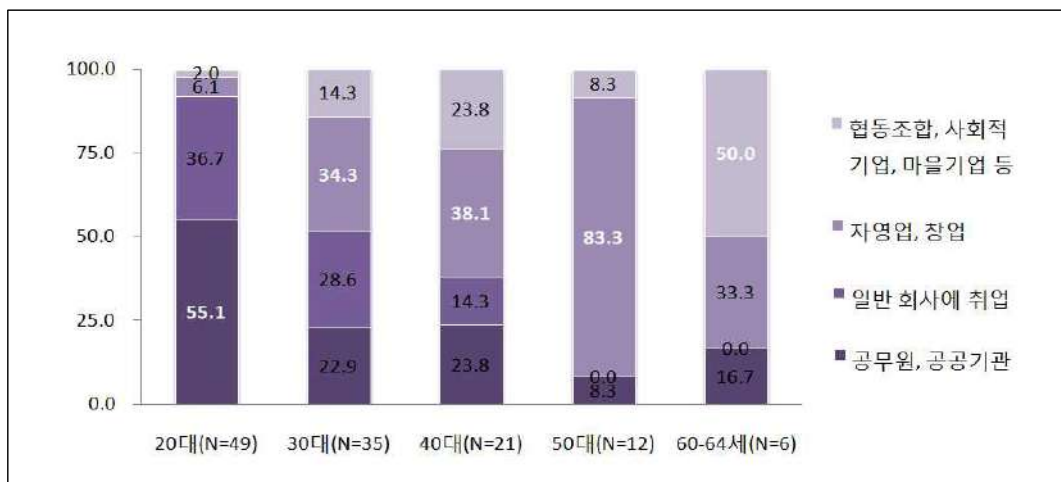
- 여성은 '공무원, 공공기관'과 '자영업·창업'이 각각 30.3%로 1위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일반회사에 취업'(28.1%),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11.2%)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공무원, 공공기관'(44.1%)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자영업·창업'(23.5%), '일반회사에 취업'(17.6%),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 기업 등'(14.7%)의 순으로 나타남(<표 2-16> 참조)

○ 연령대별 희망 일자리 유형

- 20대는 '공무원, 공공기관'(55.1%), '일반 회사 취업'(36.7%) 선호가 다수를 차지함
- 30대는 '자영업·창업'(34.3%)을 가장 선호하고, '일반 회사 취업'(28.6%)과 '공무원, 공공기관'(22.9%)이 약 51.0%를 차지함(<표 2-16>, <그림 2-19> 참조)
- 4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창업'이 우위를 점함.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동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며 일반 회사 취업 희망자는 없음. 또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취업 희망자도 증가하여 60세 이상에서는 반수를 차지

〈그림 2-19〉 연령대별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 혼인상태별 희망 일자리 유형

- 미혼은 '공무원, 공공기관', 기혼·이혼·별거자는 '자영업·창업'을 가장 선호함

〈그림 2-20〉 혼인상태별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 경력단절 여성이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 종류는 ‘자영업·창업’(39.1%), 다음으로 ‘공무원, 공공기관’(28.3%), ‘일반 회사에 취업’(19.6%), 사회적 경제(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요약하면,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이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임
 - 구직자가 찾는 일자리 유형은 일반회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자영업·창업,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 다양함
 - 특히, 연령, 경력단절 여부, 혼인상태 등 구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일자리는 매우 다양함. 예컨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일반회사나 공무원·공공기관 같은 전형적 일자리보다 자영업·창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취업 수요가 60%~90%를 차지함.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자영업·창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과반수를 차지함
- 다양화되어 가는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여성 취업지원 기관에서는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 연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3) 구직자의 희망 월평균 근로 소득

- 구직자의 61.0%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00만원 미만 3.3%, 100~149만원 25.2%, 150~199만원 32.5%, 200~299만원 31.8%,

3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경우는 7.4%에 불과함

- 성, 연령대, 혼인상태별로 희망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표 2-17> 참조)

〈표 2-17〉 구직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 소득

(단위: %)

구분	계	100만원 미만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249만원	250~299만원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만원 이상	χ^2
전 체	123	3.3	25.2	32.5	28.5	3.3	4.1	0.0	3.3	
성별	남성	34	5.9	20.6	14.7	50.0	2.9	2.9	0.0	13.821*
	여성	89	2.2	27.0	39.3	20.2	3.4	4.5	0.0	
연령	20대	49	2.0	8.2	28.6	46.9	4.1	4.1	0.0	39.513*
	30대	35	5.7	22.9	37.1	25.7	2.9	2.9	0.0	
	40대	21	0.0	57.1	33.3	0.0	4.8	4.8	0.0	
	50대	12	8.3	25.0	33.3	25.0	0.0	8.3	0.0	
	60-64세	6	0.0	66.7	33.3	0.0	0.0	0.0	0.0	
혼인 상태	미 혼	53	3.8	7.5	26.4	49.1	3.8	1.9	0.0	33.917***
	기 혼	63	3.2	38.1	36.5	12.7	3.2	6.3	0.0	
	이혼, 별거	6	0.0	50.0	33.3	16.7	0.0	0.0	0.0	
경력단절 여성	46	2.2	34.8	37.0	15.2	4.3	6.5	0.0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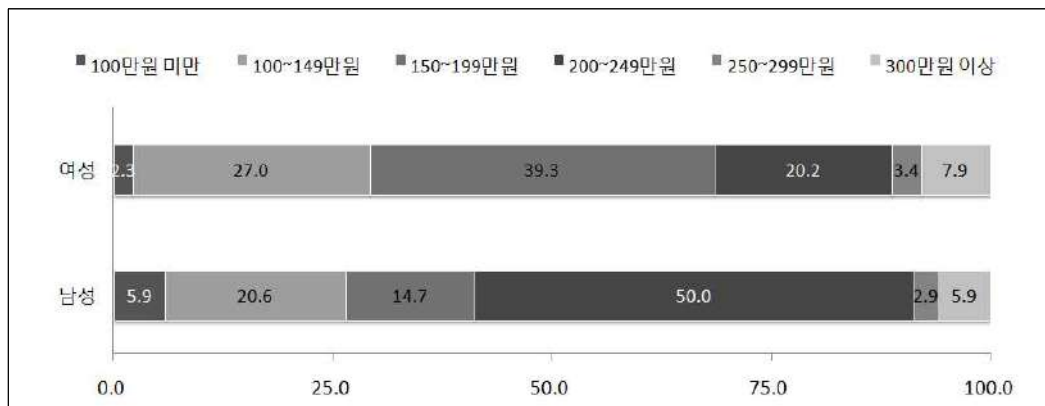
주: 향후 1년 내에 희망하는 근로소득임. ***p<.001, *p<.05.

○ 성별 희망 근로소득

- 여성 구직자의 68.6%가 200만원 미만을 희망함. 150-199만원이 3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149만원이 27.0%로 나타남(<그림 2-21> 참조)
-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남성 구직자의 58.8%가 200만원 이상을 희망함

〈그림 2-21〉 성별 구직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 소득

(단위: %)



○ 혼인상태별 희망 근로소득

- 미혼은 200만원 미만 37.7%, 200-249만원 46.9%, 250만원 이상 14.3% 등으로 나타남
- 이혼·별거자의 77.8%가 200만원 미만을 희망하고, 기혼인 경우 200만원 미만 77.8%, 200만원대 15.9%, 300만원 이상 6.3% 등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 여성 구직자의 74.0%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희망함

- 150-199만원이 37.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149만원이 34.8%로 나타남(<표 2-17> 참조)

○ 일자리 지원 정책 시사점

- 제주지역 근로자의 실제 월평균 근로소득과 비교할 때 구직자의 희망 근로소득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업의 인력수요 및 현실적인 임금 체제와 비교할 때 구직자의 희망 근로소득과의 매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임
- 2013년 기준, 제주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여성 1,298천원, 남성 2,170천원임 (고지영 외, 2014, p.26)
- 본 조사에서 구직자의 희망 근로소득은 액수 자체로는 높지 않지만 제주지역 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것으로 보임
-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자 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구인구직 조건의 적절한 매치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다. 취업·창업 애로 사항

○ 제주사회에서 (재)취업·창업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함

- 가장 어려운 점은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25.3%)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23.0%), '주위에 일자리 자체 부족'(18.5%), '사업 자금 부족'(8.5%)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18> 참조)

〈표 2-18〉 제주사회에서 취업·창업 시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계		일자리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듦	주위에 일자리 자체가 부족함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 안맞음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부담금	성별, 나이, 학력 출신지 등 차별	나의 능력, 경험 부족	사업 자금 부족	배우자, 가족 반대	어려움 없음	기타	χ^2
전 체		1,000	100.0	25.3	18.5	23.0	8.0	8.1	7.2	8.5	0.2	0.9	0.3	
행정시	제주시	744	100.0	23.5	17.6	24.1	8.6	9.3	7.8	7.4	0.1	1.2	0.4	22.947**
	서귀포시	256	100.0	30.5	21.1	19.9	6.3	4.7	5.5	11.7	0.4	0.0	0.0	
동·읍면	동지역	735	100.0	23.8	17.3	24.6	9.1	8.2	6.5	9.0	0.3	1.1	0.1	18.964*
	읍면지역	265	100.0	29.4	21.9	18.5	4.9	7.9	9.1	7.2	0.0	0.4	0.8	
성별	남성	454	100.0	28.2	19.6	22.0	2.0	8.6	6.8	10.8	0.2	1.3	0.4	49.036***
	여성	546	100.0	22.9	17.6	23.8	13.0	7.7	7.5	6.6	0.2	0.5	0.2	
연령	20대	181	100.0	24.9	17.1	30.9	3.9	8.3	10.5	3.3	0.0	1.1	0.0	102.65***
	30대	219	100.0	25.1	16.9	27.4	16.0	5.5	2.7	5.5	0.9	0.0	0.0	
	40대	278	100.0	23.4	19.1	21.2	8.6	9.0	5.4	12.2	0.0	1.1	0.0	
	50대	240	100.0	25.8	19.2	17.5	5.0	7.1	12.1	11.7	0.0	0.8	0.8	
	60-64세	82	100.0	31.7	22.0	15.9	2.4	14.6	3.7	6.1	0.0	2.4	1.2	
학력	중졸이하	81	100.0	29.6	17.3	17.3	3.7	14.8	7.4	7.4	0.0	0.0	2.5	60.535***
	고졸	392	100.0	25.0	14.8	23.7	5.4	8.7	11.2	9.4	0.3	1.3	0.3	
	전문대졸	277	100.0	24.9	19.5	23.1	11.6	7.2	3.2	9.0	0.4	1.1	0.0	
	대졸이상	250	100.0	24.8	23.6	23.6	9.6	6.0	5.2	6.8	0.0	0.4	0.0	
장애 여부	장애	76	100.0	31.6	15.8	22.4	2.6	7.9	7.9	7.9	0.0	0.0	3.9	42.059***
	비장애	924	100.0	24.8	18.7	23.1	8.4	8.1	7.1	8.5	0.2	1.0	0.0	
혼인 상태	미혼	237	100.0	28.7	18.1	29.1	1.3	6.3	11.0	4.2	0.0	1.3	0.0	76.137***
	기혼	692	100.0	25.0	18.9	20.8	10.7	7.8	5.3	10.3	0.3	0.7	0.1	
	이혼, 별거	52	100.0	17.3	13.5	26.9	5.8	17.3	9.6	5.8	0.0	0.0	3.8	
경력 단절 여부 (여성)	경력단절 아님	50	100.0	24.0	18.0	30.0	4.0	6.0	12.0	6.0	0.0	0.0	0.0	24.620***
	경력단절	59	100.0	15.3	17.0	20.3	37.3	6.8	1.7	0.0	1.7	0.0	0.0	

주: 제주사회에서 (재)취업·창업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 1순위. ***p<.001, **p<.00, *p<.05.

○ 행정시별 취업·창업 애로 사항

- 제주시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24.1%), 서귀포시는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30.5%)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동·읍면 지역별 취업·창업 애로 사항

- 동 지역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24.6%), 읍면지역은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29.4%)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성별 취업·창업 애로 사항

- 여성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23.8%), 남성은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28.2%)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등의 부담'으로 인한 취업·창업 어려움은 여성의 13.0% (어려움 4위), 남성의 2.0%(7위)로 성별 차이가 상당히 큼

○ 연령대별 취업·창업 애로 사항

- 20대와 30대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 30대 이상은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
-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등의 부담'으로 인한 취·창업 어려움은 30대(16.0%)가 타 연령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장애여부별 취업·창업 애로 사항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일자리·창업 정보 얻기 힘든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 하였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 장애인 31.6%, 비장애인 24.8%로 장애인의 일자리 정보 습득 어려움이 월등히 높음

○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등의 부담'(37.3%)이 취·창업 어려움 1위로 나타남

○ 요약하면, 제주사회에서 가장 큰 취·창업 어려움은 근로조건 매치의 문제, 취·창업 정보 부족, 일자리 부족의 문제로 나타남

- 도의 일자리 정책은 구직자와 기업 간의 근로조건 매치, 구인·구직 매치 등 취·창업 정보의 홍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함
- 한편, 도민의 취·창업 어려움은 지역, 성, 연령, 학력, 장애여부, 경력단절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라. 취업지원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1) 취업지원 기관 인지도

○ 제주 여성들이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지도를 조사함

- 고용센터(75.3%), 설문대여성문화센터(64.3%), 농업기술원(60.4%), 여성인력개발센터(56.4%) 등 대표적인 공공 고용지원 인프라 및 비교적 오래된 교육훈련 기관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표 2-19>, <그림 2-22> 참조)
- 그러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20.9%), 여성새로일하기센터(20.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8.1%) 등 대표적인 취·창업 지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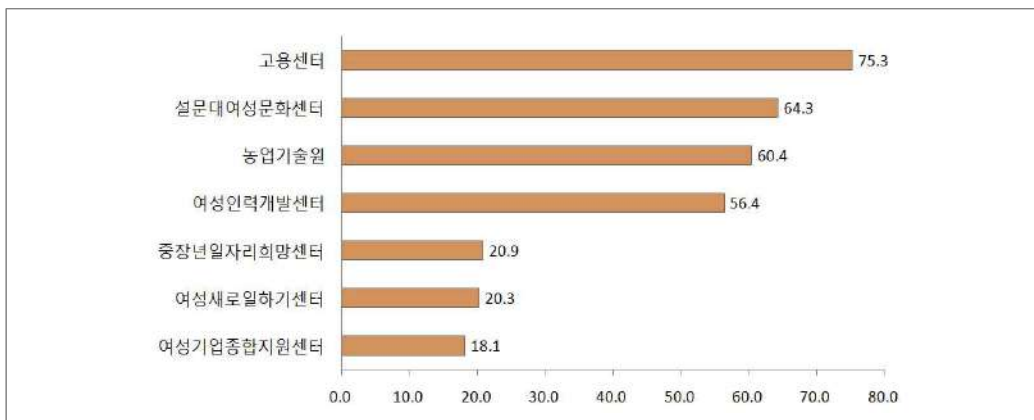
〈표 2-19〉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단위: %)

	계	안다	모른다
고용센터	546	75.3	24.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46	20.3	79.7
여성인력개발센터	546	56.4	4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46	64.3	35.7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546	20.9	79.1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546	18.1	81.9
농업기술원	546	60.4	39.6

〈그림 2-22〉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단위: 명, %)



○ 행정시별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 전반적으로 제주시 여성의 인지도가 서귀포시 여성의 인지도보다 높은 편이고, 몇 몇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시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고용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농업기술원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행정시별 유의미한 차이 없음
- 그러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해서는 제주시 여성의 인지도가 서귀포시 여성의 인지도보다 유의미하게 높음(<표 2-20>, <그림 2-23> 참조). 이는 이러한 기관들이 지리적으로 제주시에 위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0〉 행정시별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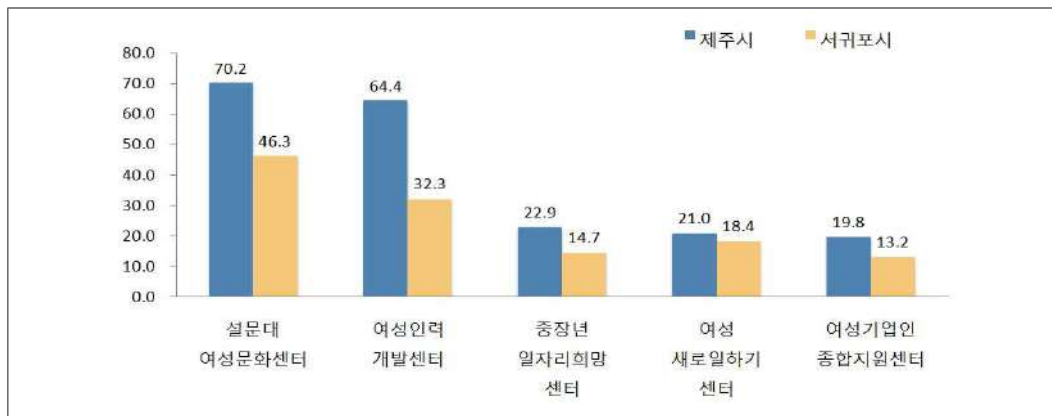
(단위: 명, %)

	제주시			서귀포시			χ^2
	계	안다	모른다	계	안다	모른다	
고용센터	410	76.6	23.4	136	71.3	28.7	1.5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10	21.0	79.0	136	18.4	81.6	0.424
여성인력개발센터	410	64.4	35.6	136	32.3	67.6	42.62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10	70.2	29.8	136	46.3	53.7	25.45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410	22.9	77.1	136	14.7	85.3	4.178*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410	19.8	80.2	136	13.2	86.8	2.925
농업기술원	410	61.2	38.8	136	58.1	41.9	0.149

***p<.001, *p<.05.

〈그림 2-23〉 행정시별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단위: %)



○ 동·읍면 지역별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 전반적으로 동 지역 거주 여성의 인지도가 읍면지역 거주 여성의 인지도보다 높은 편이고,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지도에 있어서 동·읍면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표 2-21>, <그림 2-24> 참조). 고용센터에 대해서는 동지역 여성 77.9%, 읍면지역 67.4%가 '안다'고 응답함.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지도는 동지역 여성 59.6%, 읍면지역 여성 46.7%로 동지역 여성의 인지도가 높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역시 동지역 여성의 인지도(67.2%)가 읍면지역 여성의 인지도(55.6%)보다 높음

<표 2-21> 동·읍면 지역별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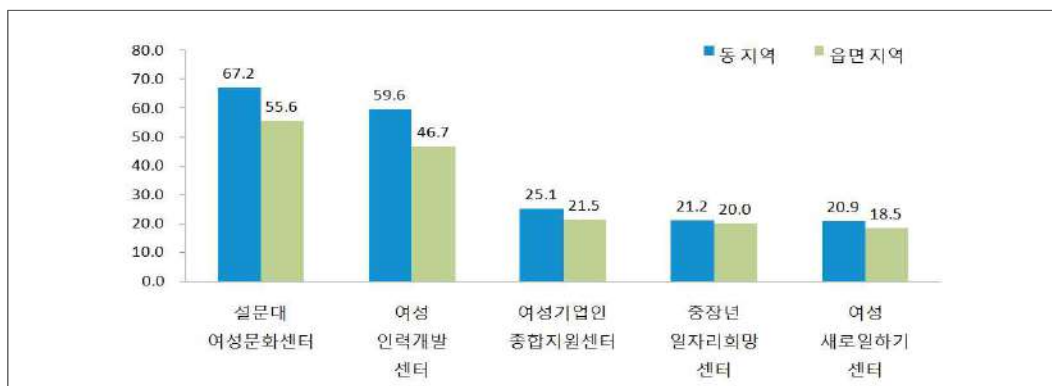
(단위: 명, %)

	동 지역			읍면 지역			χ^2
	계	안다	모른다	계	안다	모른다	
고용센터	411	77.9	22.1	135	67.4	32.6	5.964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11	20.9	79.1	135	18.5	81.5	0.363
여성인력개발센터	411	59.6	40.4	135	46.7	53.3	6.924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11	67.2	32.8	135	55.6	44.4	5.954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411	21.2	78.8	135	20.0	80.0	0.084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411	25.1	74.9	135	21.5	78.5	0.710
농업기술원	411	17.5	82.5	135	20.0	80.0	0.422

**p<.01, *p<.05.

<그림 2-24> 동·읍면 지역별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단위: %)



2)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이용 경험

- 취·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가 있는 여성 중에서 실제 이용 경험과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함
 - 여성들의 취·창업지원 기관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음
 - 고용센터 이용경험이 29.7%로 가장 높은 편이고, 다음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21.7%), 여성인력개발센터(16.6%), 농업기술원(1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9.9%),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2.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9%)의 순으로 나타남(<표 2-22> 참조)
- 취·창업 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대다수(82%~10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표 2-22〉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이용경험			도움정도				
	계	있다	없다	계	별로 안됨	도움 됨	다소 도움	매우 도움
고용센터	411	29.7	70.3	122	12.3	87.7	62.3	25.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1	9.9	90.1	11	18.2	81.8	72.7	9.1
여성인력개발센터	308	16.6	83.4	51	5.9	94.1	80.4	13.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51	21.7	78.3	76	14.5	85.5	69.7	15.8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14	0.9	99.1	1	0.0	100.0	100.0	0.0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99	2.0	98.0	2	0.0	100.0	50.0	50.0
농업기술원	330	11.2	88.8	37	2.7	97.3	51.4	45.9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인지도와 이용 경험을 살펴보고, 그 결과는 <그림 2-25>와 같음
 - 경력단절 여성의 23.7%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안다’고 응답하고, 인지도 있는 여성 중 8.3%만 센터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2-25〉 경력단절 여성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단위: %)



마. 취업 상담·교육 참여 의향 및 희망 프로그램

1) 취업 상담·교육 참여 의향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재)취업이나 창업 관련 상담·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조사함
 - 전체 응답자(1,000명) 중 51.4%가 (재)취업·창업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23> 참조).
- 여성 응답자의 취업·창업 상담·교육 참여 의향
 - 여성 응답자의 52.9%가 향후 (재)취업·창업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3〉 향후 (재)취업 · 창업 관련 상담 · 교육 참여 의향

(단위: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χ^2
전체		1,000	100.0	51.4	48.6	
여성		546	100.0	52.9	47.1	
연령대 (여성)	20대	90	100.0	56.7	43.3	34.766***
	30대	123	100.0	65.9	34.1	
	40대	156	100.0	57.7	42.3	
	50대	134	100.0	44.0	56.0	
	64세 이하	43	100.0	18.6	81.4	
학력 (여성)	중졸이하	45	100.0	24.4	75.6	20.010***
	고졸	245	100.0	51.0	49.0	
	전문대졸	146	100.0	61.0	39.0	
	대졸이상	110	100.0	58.2	41.8	
경력단절여성		59	100.0	57.6	42.4	

***p<.001.

- 여성의 연령, 학력별로 취 · 창업 교육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30대의 참여 의향(65.9%)이 타 연령대보다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의향이 낮아짐. 20대~40대까지는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참여 의향이 없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함. 예컨대, 50대의 56.0%, 60-64세의 81.4%가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학력별 차이를 보면, 전문대졸 여성의 참여 의향이 6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졸 이상(58.2%), 고졸(51.0%), 중졸 이하(24.4%)의 순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 여성의 57.6%가 향후 취 · 창업 상담 ·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고, 이는 여성 평균 참여 의향(52.9%)보다 소폭 높다고 볼 수 있음

2) 취업 · 창업 교육 참여 시 고려 사항

- 취업 · 창업 교육을 받을 경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조사함
 -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27.0%)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취업 · 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6.9%),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의 유연성'(17.7%), '자격증 취득 가능성'(11.8%), '교육기관과의 거리, 교통 편의'(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24> 참조)

○ 여성은 실제 취업 연계, 남성은 전문성을 좀 더 고려함

- 여성은 '취업·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5.1%),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24.7%),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의 유연성'(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29.8%), '취업·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9.1%),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의 유연성'(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 시간대의 유연성(여성 19.2%, 남성 15.9%)과 교육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여성 3.1%, 남성 1.1%) 수요가 높음(<표 2-24>, <그림 2-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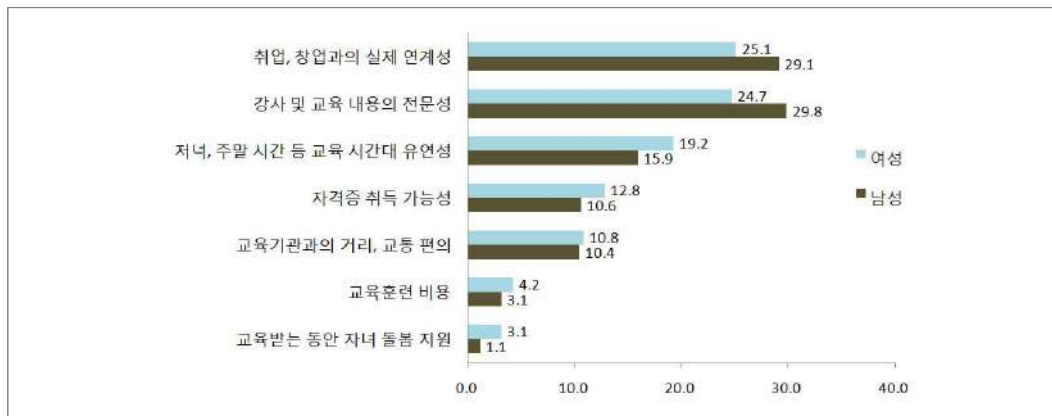
〈표 2-24〉 성별 취업·창업 교육 참여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단위: 명, %)

구분	계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	취업 창업과의 실제 연계성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의 유연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교육기관 거리, 교통 편의	교육 훈련 비용	교육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	χ^2
전 체	999	100.0	27.0	26.9	17.7	11.8	10.6	3.7	2.2	11.886
남성	453	100.0	29.8	29.1	15.9	10.6	10.4	3.1	1.1	
여성	546	100.0	24.7	25.1	19.2	12.8	10.8	4.2	3.1	

〈그림 2-26〉 성별 취업·창업 교육 참여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단위: %)



- 여성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취·창업 교육 참여 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 행정시별 여성의 취·창업 교육 참여 시 고려사항
 - 제주시 여성은 '취업·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7.8%), 서귀포시 여성은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36.0%)을 최우선으로 고려함(<표 2-25> 참조)
 - '교육훈련 비용'에 있어서도 행정시 간 격차 큼(제주시 5.4%, 서귀포시 0.7%)
- 연령대별 여성의 취·창업 교육 참여 시 고려사항
 - 20대~40대 여성은 실제 취업 연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50대 여성은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 60-64세 여성은 교육기관과의 거리 및 교통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20대 여성은 실제 취업 연계(30.0%), 자격증 취득 가능성(18.9%)에 대해서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중요하게 고려함
 - 30대 여성은 '교육 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5.7%)을 타 연령대보다 가장 높게 고려함
 -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훈련비용'을 점차 더 고려하게 됨(20대 1.1%, 30대 1.6%, 40대 4.5%, 50대 6.7%, 60-64세 9.3%)
- 학력별 여성의 취·창업 교육 참여 시 고려사항
 - 중졸이하는 '교육 기관과의 거리, 교통 편의'(26.7%), 고졸과 대졸이상은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각각 22.5%, 36.4%), 전문대졸은 '취업·창업과의 실제 연계성'(30.1%)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자격증 취득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고졸자(15.9%)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5〉 취업·창업 교육 참여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여성 응답)

(단위: 명, %)

구분		계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 유연성	교육 기관 거리, 교통 편의	취업 창업 과의 실제 연계성	자격증 취득 가능성	교육 훈련 비용	교육 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	χ^2
행정시	제주시	410	100.0	21.0	19.5	10.2	27.8	13.7	5.4	2.4	23.244***
	서귀포시	136	100.0	36.0	18.4	12.5	16.9	10.3	0.7	5.2	
연령대	20대	90	100.0	25.6	17.8	3.3	30.0	18.9	1.1	3.3	62.697***
	30대	123	100.0	26.8	20.3	5.7	27.6	12.2	1.6	5.7	
	40대	156	100.0	24.4	21.8	6.4	28.9	12.2	4.5	1.9	
	50대	134	100.0	23.9	16.4	19.4	18.7	13.4	6.7	1.5	
	64세 이하	43	100.0	20.9	18.6	30.2	14.0	2.3	9.3	4.7	
학력	중졸이하	45	100.0	11.1	20.0	26.7	22.2	8.9	11.1	0.0	43.577***
	고졸	245	100.0	22.5	19.6	11.8	21.6	15.9	4.9	3.7	
	전문대졸	146	100.0	24.0	19.2	6.9	30.1	11.6	4.1	4.1	
	대졸이상	110	100.0	36.4	18.2	7.3	27.3	9.1	0.0	1.8	
혼인 상태	미혼	98	100.0	31.6	17.4	4.1	28.6	18.4	0.0	0.0	28.878**
	기혼	406	100.0	24.6	19.5	11.1	25.1	11.8	4.4	3.5	
	이혼, 별거	24	100.0	8.3	25.0	12.5	20.8	12.5	16.7	4.2	
경력단절 여성		59	100.0	20.3	15.3	17.0	25.4	6.8	5.1	10.2	-

***p<.001, **p<.01.

○ 혼인상태별 여성의 취·창업 교육참여 고려사항

- 미혼은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31.6%), 기혼자는 '취업·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5.1%), 이혼·별거자는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 유연성'(25.0%)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이혼·별거한 경우, '교육훈련비용'(16.7%)이 중요한 고려사항 3위로 나타나 다른 집단과 극명한 차이를 나타냄('교육훈련 비용'을 고려하는 경우는 미혼자 중에서는 없고, 기혼자 중에서는 4.4%에 그침)

○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교육참여 고려사항

-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5.4%)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다음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20.3%), '교육 기관과의 거리, 교통 편의'(17.0%),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의 유연성'(15.3%), '교육 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2-27> 참조)
- 경력단절 여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27〉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창업 교육 참여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단위: %)



3) 여성이 희망하는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 여성이 희망하는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 여성들이 희망하는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함

- 여성들이 가장 받고 싶은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1순위와 2순위의 합을 살펴본 결과, 가장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요리·조리'(18.7%)로 나타남(<표 2-26> 참조)
- 다음으로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12.7%), '컴퓨터 관련'(9.0%), '전문강사 교육'(8.9%), '간병, 영양보호사'(8.2%), '텃밭 가꾸기, 농식품 가공 등 농업 관련'(7.3%), '사무업무 관련'(7.1%), '아이돌보미 등 관련 지도사'(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상위권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교육 분야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함. 예컨대, <사회복지사·전문강사·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관련지도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36.7%를 차지함
 - <요리·조리, 홈패션, 공예, 이미용> 등 기능·기술·서비스직 관련 수요는 33.0% 정도를 차지함
 - <컴퓨터·사무업무·회계업무> 등 사무직군 관련 프로그램 수요는 19.9% 정도를 차지함
- 요약하면, 여성이 선호하는 교육은 개별 직군으로는 '요리·조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지만, 직업 분야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교육서비스 관련, 기능·기술 습득 관련, 사무직군 관련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2-26〉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단위: 명, %)

	1순위		1,2순위 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544	100.0	1,084	100.0
요리·조리	143	26.3	203	18.7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80	14.7	125	12.7
컴퓨터 관련	47	8.6	71	9.0
전문강사 교육	41	7.5	75	8.9
간병, 요양보호사	44	8.1	95	8.2
텃밭 가꾸기, 농식품 가공 등 농업 관련	33	6.1	68	7.3
사무업무 관련	31	5.7	91	7.1
아이돌보미 등 관련지도사	45	8.3	80	6.9
홈패션, 의류수선 등	25	4.6	71	6.8
이미용	18	3.3	73	3.9
회계업무 관련	13	2.4	41	3.8
비즈, 도자기 등 공예	12	2.2	32	3.6
회사경영 관련	10	1.8	56	2.8
기타	2	0.4	3	0.3

□ 동·읍면 지역별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표 2-27〉 동·읍면 지역별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동지역		읍면지역	
	빈도 ¹⁾	비율	빈도 ¹⁾	비율
계	818	100.0	266	100
요리·조리	155	18.9	48	18.0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104	12.7	34	12.8
컴퓨터 관련	77	9.4	21	7.9
전문강사 교육	75	9.2	21	7.9
아이돌보미 등 관련지도사	65	7.9	10	3.8
사무업무 관련	58	7.1	19	7.1
간병, 요양보호사	56	6.8	33	12.4
텃밭 가꾸기, 농식품 가공 등 농업 관련	54	6.6	25	9.4
홈패션, 의류수선 등	53	6.5	21	7.9
회계업무 관련	32	3.9	9	3.4
비즈, 도자기 등 공예	32	3.9	7	2.6
이미용	31	3.8	11	4.1
회사경영 관련	23	2.8	7	2.6
기타	3	0.4	0	0.0

주: 1) 받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 1순위와 2순위의 합임.

○ 동(同) 지역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 ‘요리·조리’(18.9%),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12.7%), ‘컴퓨터 관련’(9.4%), ‘전문강사 교육’(9.2%)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27> 참조)

○ 읍면 지역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 상위 1위, 2위 프로그램은 동지역 여성과 동일함 : ‘요리·조리’(18.0%),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12.8%)
- 다음으로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간병, 요양보호사’(12.4%), ‘텃밭 가꾸기, 농식품 가공 등 농업 관련’(9.4%)로 나타남

□ 연령대별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 20대는 ‘요리·조리’(20.6%),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15.0%), ‘사무업무 관련’(13.3%), ‘컴퓨터 관련’(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28> 참조)

- 30, 40대는 '요리·조리'(17.2%),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14.4%), '전문 강사 교육'(11.5%), '아이돌보미 등 관련지도사'(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0대와 60대는: '요리·조리'(20.2%), '간병, 영양보호사'(15.3%), '텃밭 가꾸기, 농식품 가공 등 농업 관련'(13.5%), '컴퓨터 관련'(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8〉 연령대별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단위: 명, %)

	20대		30,40대		50,60대 ¹⁾	
	빈도 ²⁾	비율	빈도 ²⁾	비율	빈도 ²⁾	비율
계	180	100.0	557	100.0	347	100.0
요리·조리	37	20.6	96	17.2	70	20.2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27	15.0	80	14.4	31	8.9
사무업무 관련	24	13.3	45	8.1	8	2.3
컴퓨터 관련	23	12.8	38	6.8	37	10.7
아이돌보미 등 관련지도사	12	6.7	46	8.3	17	4.9
전문강사 교육	12	6.7	64	11.5	20	5.8
회계업무 관련	10	5.6	25	4.5	6	1.7
이미용	8	4.4	23	4.1	11	3.2
홈패션, 의류수선 등	8	4.4	39	7.0	27	7.8
회사경영 관련	8	4.4	18	3.2	4	1.2
간병, 영양보호사	4	2.2	32	5.7	53	15.3
비즈, 도자기 등 공예	4	2.2	22	3.9	13	3.7
텃밭 가꾸기, 농식품 가공 등 농업 관련	3	1.7	29	5.2	47	13.5

주: 1) 60대는 60-64세임.

2) 받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 1순위와 2순위의 합임.

5.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요

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성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전체 응답자의 46.2%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다 ~ 5 매우 어렵다)의 평균은 3.40점임(<표 2-29> 참조)
-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55.4%, 남성의 35.1%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5점 척도의 평균은 여성 3.58점, 남성 3.18점임

〈표 2-29〉 일·가정 양립 어려움

(단위: 명, %, 점)

구분		계 ¹⁾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다	어렵다	다소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²⁾	F
전 체		1000	100.0	15.8	3.1	12.7	38.0	46.2	33.7	12.5	3.40	
성별	남성	454	100.0	20.4	3.7	16.7	44.5	35.1	27.8	7.3	3.18	44.046***
	여성	546	100.0	11.9	2.6	9.3	32.6	55.4	38.6	16.8	3.58	
맞벌이	맞벌이 남성	498	100.0	18.8	2.0	16.8	44.1	37.1	30.2	6.9	3.26	11.220***
	맞벌이 여성	194	100.0	9.6	1.4	8.2	34.9	55.6	38.2	17.4	3.71	
외벌이	외벌이 남성	202	100.0	19.1	2.4	16.7	44.1	36.9	26.2	10.7	3.23	31.530***
	외벌이 여성	296	100.0	8.2	0.9	7.3	31.8	60.0	40.0	20.0	3.62	
연령대	20대	181	100.0	23.2	7.7	15.5	39.2	37.5	28.7	8.8	3.15	9.214**
	30대	219	100.0	9.1	1.8	7.3	33.3	57.6	39.3	18.3	3.65	
	40대	278	100.0	14.1	2.2	11.9	36.3	49.6	35.6	14.0	3.47	
	50대	240	100.0	15.8	2.9	12.9	39.2	45.0	35.0	10.0	3.36	
	60-64세	82	100.0	23.2	0.0	23.2	50.0	26.8	19.5	7.3	3.11	
영유아 ³⁾ 자녀 유무	있음	140	100.0	5.7	0.7	5.0	34.3	60.0	35.7	24.3	3.78	16.760***
	없음	577	100.0	15.1	2.1	13.0	37.3	47.6	35.8	11.8	3.42	
혼인 상태	미 혼	237	100.0	23.2	7.2	16.0	43.0	33.8	26.2	7.6	3.11	15.310***
	기 혼	692	100.0	12.3	1.6	10.7	37.6	50.1	35.8	14.3	3.51	
	별거, 이혼	52	100.0	23.1	5.8	17.3	19.2	57.7	42.3	15.4	3.44	
경력단절 여성여부	비 경력단절	50	100.0	16.0	0.0	16.0	34.0	50.0	40.0	10.0	3.44	8.150**
	경력단절	59	100.0	6.8	1.7	5.1	18.6	74.6	47.5	27.1	3.93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며, 조사대상은 전체 응답자임.

2)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다 ~ 5 매우 어렵다)의 평균임. ***p<.001, **p<.01.

3) 만 5세 이하 자녀를 말함.

○ 맞벌이, 외벌이 가구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

- 맞벌이, 외벌이 가구 간에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맞벌이, 외벌이 가구와 상관없이 여성의 일·가정 어려움이 남성보다 월등히 큼(<그림 2-28>)
- 맞벌이 가구의 성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평균 점수는 여성 3.71점, 남성 3.26점으로 나타났고, 외벌이 가구의 성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평균 점수는 여성 3.62점, 남성 3.23점으로 나타남(평균점수는 5점 기준임)

〈그림 2-28〉 성별, 맞벌이 여부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단위: 점)



주: 1)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다 ~ 5 매우 어렵다)의 평균임.

○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 경력단절 여성의 74.6%가 현재 일을 한다면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함
-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별로 비교하면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경력단절 여성(3.93점), 맞벌이 여성(3.71점), 외벌이 여성(3.62점)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2-29> 참조)

〈그림 2-29〉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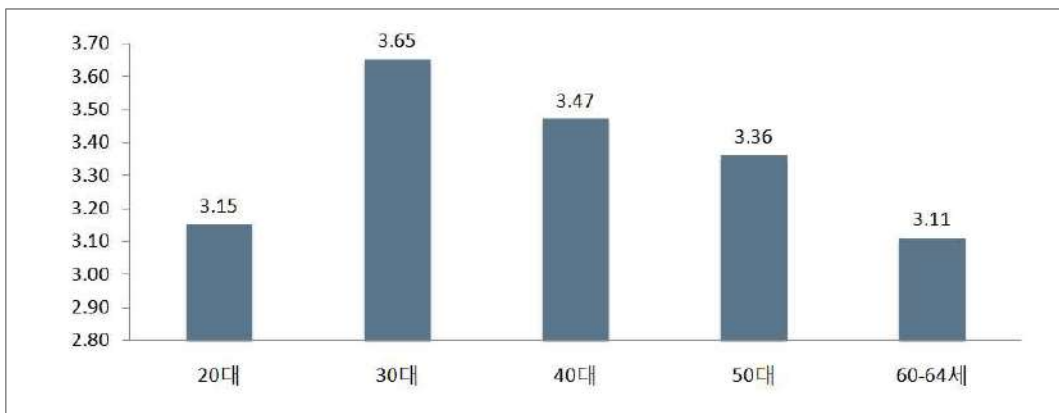
주: 5점 척도(1 전혀 어렵지 않다 ~ 5 매우 어렵다)의 평균이며, 외벌이 여성은 여성 혼자 일하는 외벌이 가구임.

○ 연령대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

- 30대(3.65점), 40대(3.47점), 50대(3.36점), 20대(3.15점), 60-64세(3.11점)의 순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그림 2-30> 참조)

〈그림 2-30〉 연령대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

(단위: 점)



○ 영유아 자녀 유무별 일·가정 양립 어려움

-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3.78점(어렵다 60.0%)이며, 영유아자녀가 없는 경우(3.42점, 어렵다 47.6%)보다 어려움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표 2-29> 참조)

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도 및 평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 출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들에 대해 도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함
- 육아휴직 제도(85.2%), 출산전후 휴가제도(81.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70.3%)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 그러나 가족돌봄휴직 제도(38.5%), 탄력 근무제도(32.4%),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25.3%)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음(<표 2-30> 참조)

〈표 2-30〉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계		안다	모른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1,000	100.0	81.0	19.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1,000	100.0	70.3	29.7
육아휴직 제도	1,000	100.0	85.2	14.8
가족돌봄휴직 제도	1,000	100.0	38.5	61.5
시차출퇴근 등 탄력 근무제도	1,000	100.0	32.4	67.6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1,000	100.0	25.3	74.7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들이 어느 정도 잘 시행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도민 인식을 조사함
-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를 4점 척도(1 전혀 안 됨 ~ 4 매우 잘 됨)로 조사한 결과, 출산전후 휴가제도 2.60점, 육아휴직 제도 2.55점,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24점, 가족돌봄휴직 제도 2.15점, 탄력 근무제도 2.05점,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1.94점으로 나타남(<표 2-31> 참조)
-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도들의 시행에 대해 도민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표 2-31〉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점)

구분	계		안 됨			잘됨	대체로 잘됨	매우 잘됨	평균 ¹⁾
			안 됨	전혀 안됨	별로 안됨				
출산전후 휴가제도	810	100.0	42.0	4.3	37.7	58.0	51.7	6.3	2.6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703	100.0	64.6	15.8	48.8	35.4	31.3	4.1	2.24
육아휴직 제도	852	100.0	46.1	6.1	40.0	53.9	47.1	6.8	2.55
가족돌봄휴직 제도	385	100.0	70.6	16.6	54.0	29.4	27.3	2.1	2.15
시차출퇴근 등 탄력 근무제도	324	100.0	79.3	19.4	59.9	20.7	17.0	3.7	2.05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253	100.0	82.6	25.7	56.9	17.4	14.6	2.8	1.94

주: 각각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의 응답임.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 제주도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수요

-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8.6%)
- 다음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23.5%),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지원'(18.7%),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확대'(12.0%),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11.7%),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하는 제도문화 확산'(5.5%)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32>, <그림 2-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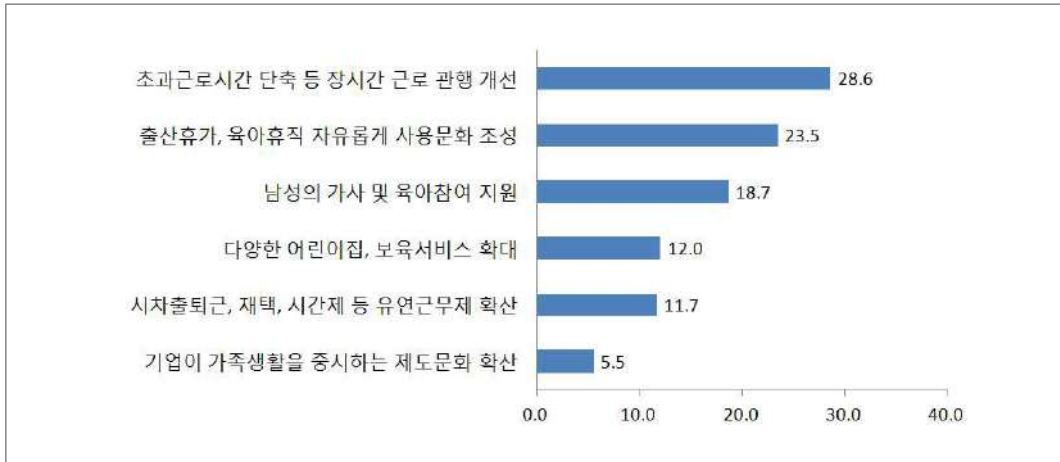
〈표 2-3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단위: 명, %)

경제활동 지원 정책	1순위		2순위		1,2 순위 합	
	빈도	%	빈도	%	빈도	%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286	28.6	71	7.1	461	17.9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235	23.5	172	17.2	286	20.4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지원	187	18.7	129	12.9	411	15.8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확대	120	12.0	266	26.6	272	19.3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117	11.7	229	22.9	273	17.3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하는 제도문화 확산	55	5.5	133	13.3	175	9.4
계	1,000	100.0	1,000	100.0	2,000	100.0

〈그림 2-3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단위: %)



○ 성별 일·가정 양립 정책 수요

- 남녀 모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지원'이 상위 3위로 나타남
- 다음으로 여성은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남성은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확대'로 나타남(<표 2-33> 참조)

〈표 2-33〉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단위: 명, %)

구분		계		초과근로 시간 단축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문화 조성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유연근무 제 확산	안심하고 말길 수 있는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 스 확대	기업이 가족생활 중시 하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 확산	χ^2
전 체		1000	100.0	28.6	18.7	23.5	11.7	12.0	5.5	
성별	남성	454	100.0	31.7	15.6	24.4	9.5	12.6	6.2	11.729*
	여성	546	100.0	26.0	21.2	22.7	13.6	11.5	4.9	

구분		계		초과근로 시간 단축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문화 조성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유연근무 제 확산	안심하고 말길 수 있는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 스 확대	기업이 가족생활 중시 하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 확산	χ^2
연령 대	20대	181	100.0	32.0	13.8	31.5	12.7	7.7	2.2	40.358**
	30대	219	100.0	20.5	21.0	25.6	11.9	16.4	4.6	
	40대	278	100.0	28.1	19.4	20.1	13.7	10.8	7.9	
	50대	240	100.0	34.2	18.3	17.9	10.4	13.3	5.8	
	60-64세	82	100.0	28.0	22.0	28.0	6.1	9.8	6.1	
혼인 상태	미 혼	237	100.0	32.1	14.3	30.8	11.0	8.4	3.4	21.919**
	기 혼	692	100.0	26.2	20.5	21.4	12.1	13.7	6.1	
	이혼, 별거	52	100.0	42.3	13.5	19.2	11.5	7.7	5.8	

**p<.01, *p<.05.

○ 연령대별 일·가정 양립 정책 수요

- 30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이 25.6%로 가장 높고, 그 외 연령대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1위로 나타남(<표 2-33> 참조)

○ 혼인상태별 일·가정 양립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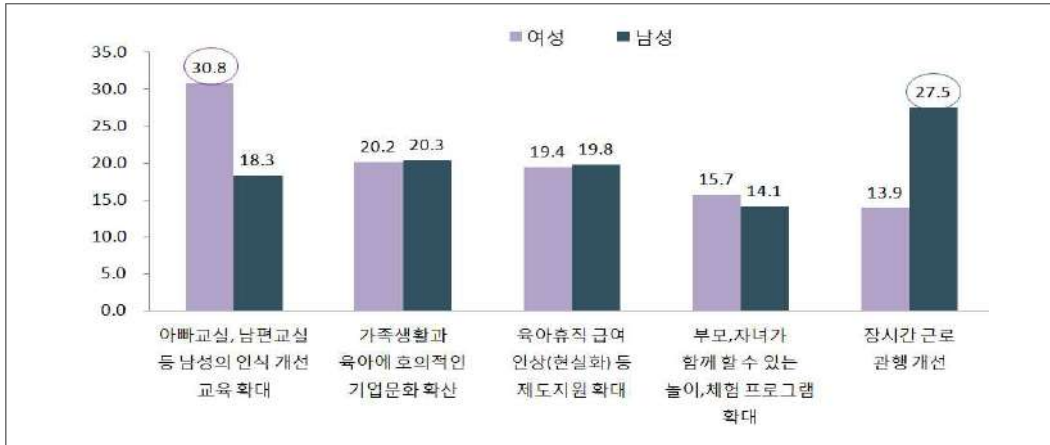
- 미혼, 기혼, 이혼·별거자 모두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1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2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지원' 3위로 나타남
-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미혼이나 이혼·별거자는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기혼자는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확대'로 나타남(<표 2-33> 참조)

라.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 성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그림 2-32〉 성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단위: %)



- 여성은 ‘아빠교실, 남편교실 등 남성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30.8%), 남성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7.5%)을 1위로 선택
- 남성은 가족과 육아에 호의적인 기업문화 확산,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등 제도지원 확대를 남성의 인식 개선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생각과 차이가 나타남
- 여성은 남성의 인식 개선 교육,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남성과 가족의 참여를 동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볼 수 있음(<그림 2-32>, <표 2-34>참조)

〈표 2-34〉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단위: 명, %)

구분		계		아빠교실, 남편교실 남성들의 인식 개선 위한 교육 확대	가족생활과 육아에 호의적인 기업 문화 확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적 지원 확대	부모-자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문화 프로그램 확대	χ^2
전 체		1000	100.0	25.1	20.2	20.1	19.6	15.0	
성 별	남성	454	100.0	18.3	20.3	27.5	19.8	14.1	38.731***
	여성	546	100.0	30.8	20.1	13.9	19.4	15.8	
동·읍면	동 지역	735	100.0	25.6	20.0	22.2	19.0	13.2	12.701*
	읍면 지역	265	100.0	23.8	20.3	14.3	21.1	20.0	

***p<.001, *p<.05.

○ 동·읍면 지역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그림 2-33〉 동·읍면 지역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단위: %)



- 동지역, 읍면지역 모두 ‘아빠교실, 남편교실 등 남성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각각 25.6%, 23.8%)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표 2-33>, <그림 2-33> 참조)
-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동 지역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2.2%)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읍면지역의 수요는 14.3%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 읍면지역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적 지원 확대’(21.1%), ‘가족생활과 육아에 호의적인 기업 문화 확산’(20.8%),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문화 프로그램 확대’(20.0%)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높은 수요를 나타냄. 특히,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문화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수요가 동지역(1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적임(<표 2-33>, <그림 2-33>참조)

6. 자녀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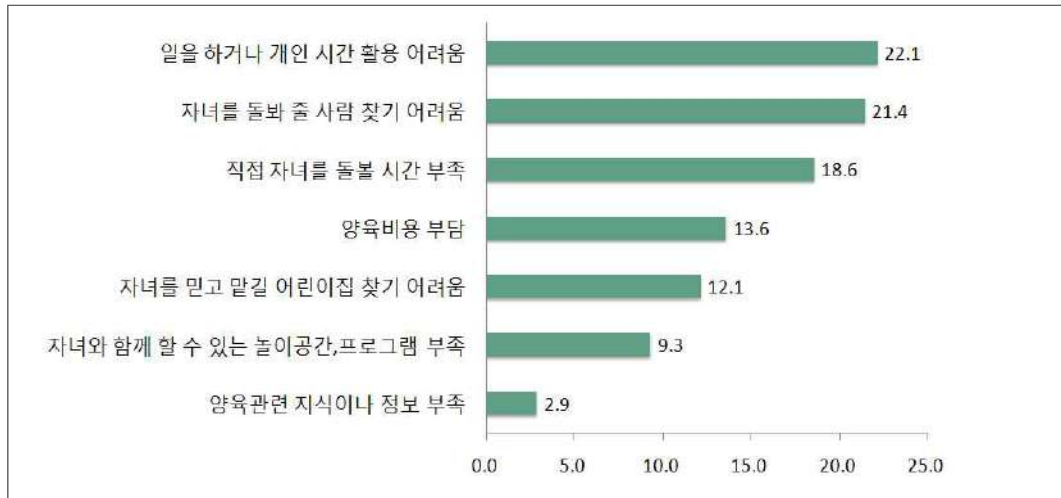
가.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1)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함
- 가장 큰 어려움은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의 어려움'(22.1%), 즉, 일과 개인 생활 또는 가족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21.4%),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 부족'(18.6%), '양육비용 부담'(13.6%), '자녀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 찾기 어려움'(12.1%),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체험 공간, 프로그램 등 부족'(9.3%), '양육 관련 지식 정보 부족'(2.9%)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2-34>, <표 2-35> 참조)

〈그림 2-34〉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표 2-35〉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계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의 어려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	양육비 부담	자녀 믿고 맡길 어린이집 찾기 어려움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체험 공간 등 부족	양육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전 체		140	100.0	22.1	21.4	18.6	13.6	12.1	9.3	2.9
성별	남성	52	100.0	17.3	19.2	19.2	19.2	7.7	13.5	3.8
	여성	88	100.0	25.0	22.7	18.2	10.2	14.8	6.8	2.3
취업여부 (여성)	취업	63	100.0	22.2	20.6	25.4	6.4	15.9	7.9	1.6
	미취업	25	100.0	32.0	28.0	0.0	20.0	12.0	4.0	4.0

○ 성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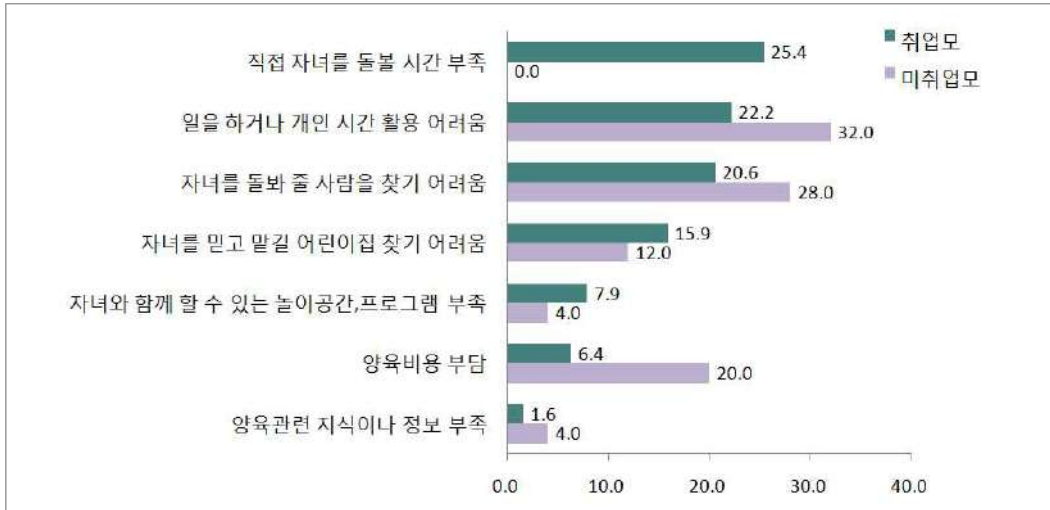
- 남성은 ‘자녀를 돌봐 줄 사람 찾기 어려움’, ‘직접 자녀 돌볼 시간 부족’, ‘양육비 부담’이 각각 19.2%로 공동 1위로 나타남
- 여성은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 어려움’이 25.0%로 1위로 나타남. 다음으로 ‘자녀를 돌봐 줄 사람 찾기 어려움’(22.7%),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 부족’(18.2%), ‘믿고 맡길 어린이집 찾기 어려움’(14.8%)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에게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나 어린이집을 찾는 문제보다도 자녀 양육과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이 남성의 경험과 대조적인 차이 중 하나임

○ 여성의 취업상태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 취업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 부족’(25.4%),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 부족’(22.2%),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취업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의 어려움’(32.0%), 다음으로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28.0%)으로 나타남(〈표 2-35〉, 〈그림 2-35〉 참조)

〈그림 2-35〉 여성의 취업상태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 여성의 취업상태별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시사점

- 취업여성은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런 경우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취업 여성들이 육아휴직, 탄력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미취업여성에게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다양함. 자녀를 직접 돌보는 미취업 모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시간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고, 본인 대신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취업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조사데이터에서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미취업여성(25명)의 92.0%(23명)가 경력단절 여성, 즉 자녀 양육부담으로 인한 취업중단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산,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충 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2)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표 2-36〉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 집 확대	시간 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직장 어린이집 확대	자녀 양육 수당 확대	자녀 양육 다양한 정보 상담 교육 제공	부모, 자녀 함께 할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아파트 단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 육아 지원	가정 파견 보육 서비스 확대	χ^2
전 체		1000	100.0	25.1	24.7	12.8	8.5	8.2	7.6	6.7	3.0	3.4	
동 읍면	동 지역	735	100.0	26.5	24.9	12.7	8.0	9.4	6.3	6.9	2.7	2.6	20.794**
	읍면 지역	265	100.0	21.1	24.2	13.2	9.8	4.9	11.3	6.0	3.8	5.7	
연령	20대	181	100.0	23.8	22.7	14.4	9.4	12.2	6.1	5.5	2.8	3.3	55.340**
	30대	219	100.0	19.2	27.9	14.6	8.7	12.8	5.9	5.0	1.8	4.1	
	40대	278	100.0	25.2	25.2	10.4	6.8	7.2	7.6	7.9	5.4	4.3	
	50대	240	100.0	30.0	23.3	12.5	11.3	3.3	7.5	7.5	1.7	2.9	
	60-64세	82	100.0	29.3	23.2	13.4	3.7	4.9	15.9	7.3	2.4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98	100.0	24.5	29.5	9.8	7.6	7.8	7.0	8.0	2.8	2.8	26.212***
	외벌이	194	100.0	23.2	14.4	17.0	11.3	10.3	10.8	7.2	1.5	4.1	
혼인 상태	미 혼	237	100.0	25.3	20.3	17.3	9.7	9.3	6.3	4.6	3.4	3.8	32.036**
	기 혼	692	100.0	24.1	25.3	11.8	8.7	8.5	8.1	7.8	2.5	3.2	
	이혼,별거	52	100.0	32.7	38.5	5.8	1.9	0.0	3.8	3.8	7.7	5.8	

***p<.001, **p<.01.

-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1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5.1%)로 나타남
- 다음으로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가 24.7%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표 2-36 참조)

○ 동·읍면 지역별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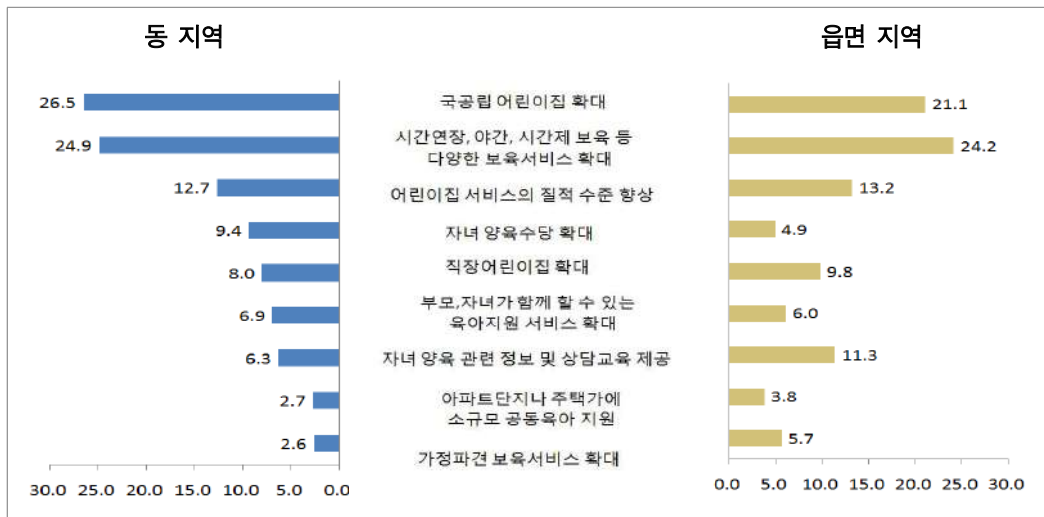
- 동지역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위, 읍면지역은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1위로 나타남.
- 읍면지역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상담교육 제공'수요가 동지역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며(읍면지역 4위, 동지역 7위), 그 수요도 더 높게 나타남(읍면지역 11.3%, 동지역

6.3%)

- 또한, 읍면지역은 ‘가정 파견 보육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동지역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며(읍면지역 7위, 동지역 9위), 정책수요도 동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음(읍면지역 5.7%, 동지역 2.6%)(<표 2-36>, <그림 2-36>) 참조)

〈그림 2-36〉 동·읍면 지역별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1순위

(단위: %)



○ 연령대별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 20대, 50대, 60-64세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1위로 나타남
- 30대, 40대는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가 1위로 나타남. 40대의 경우, ‘부모,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우선순위에서 4위로 다른 연령집단의 우선순위(20대 7위, 30대 7위, 50대 5위, 60-64세 5위)보다 우위로 나타남(<표 2-36> 참조)

○ 맞벌이여부별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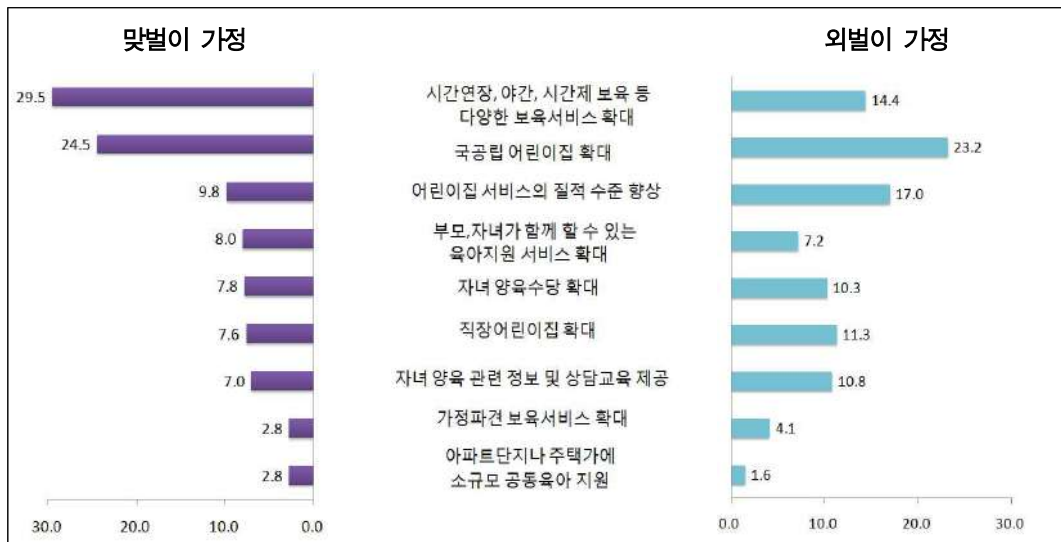
- 맞벌이 가정은 1위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29.5%), 2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4.5%), 3위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8.0%)가 4위로 외벌이 가정(7위)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섬(<그림 2-37> 참조)

- 외벌이 가정의 경우, 1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3.2%), 2위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17.0%), 3위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7〉 맞벌이여부별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1순위

(단위: %)



○ 혼인상태별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 미혼은 1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5.3%), 기혼은 1위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25.3%), 이혼·별거의 경우 1위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38.5%), 2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32.7%)로 나타남
- 이혼·별거자는 타 집단과 대조적으로 '아파트 단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육아 지원'에 대한 수요가 7.7%로 타 집단(미혼 3.4%, 기혼 2.5%)보다 높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3위로 타 집단(미혼 8위, 기혼 8위)보다 높음(<표 2-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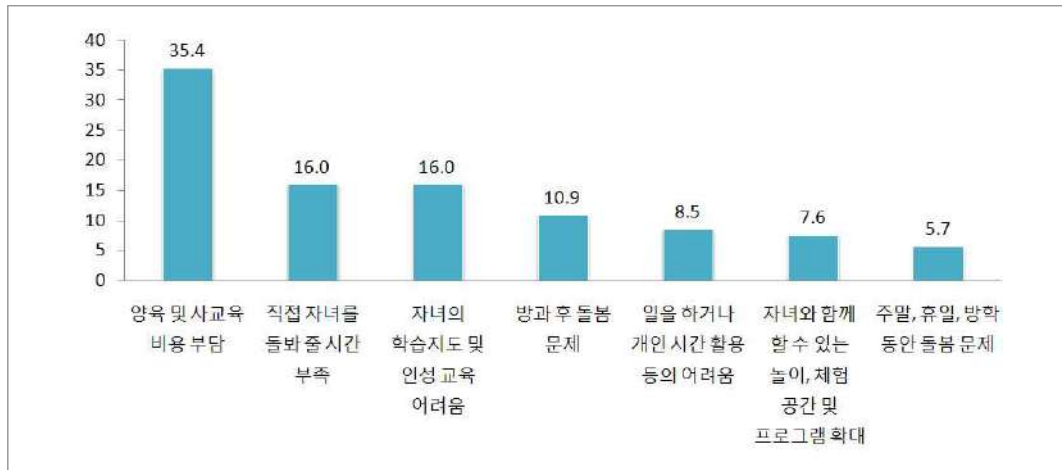
나. 초등학교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1) 초등학교 자녀 양육의 어려움

○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조사함

〈그림 2-38〉 초등학교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표 2-37〉 초등학교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계		양육 및 사교육 비용 부담	직접 자녀를 돌봐 줄 시간 부족	자녀의 학습지도 및 인성 교육 어려움	방과 후 돌봄 문제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 어려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공간 등 부족	주말, 휴일, 방학 동안 돌봄 문제	χ^2
전 체		212	100.0	35.4	16.0	16.0	10.8	8.5	7.6	5.7	
취업여부 (여성)	취업	138	100.0	29.2	18.0	21.4	10.1	9.0	4.5	7.9	14.958*
	미취업	65	100.0	35.5	3.2	16.1	12.9	9.7	22.6	0.0	
고향	제주	167	100.0	36.5	17.4	17.4	10.2	9.6	5.4	3.6	13.398*
	비제주	46	100.0	30.4	13.0	10.9	13.0	4.3	15.2	13.0	

*p<.05.

- 전체 응답자 중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는 212명(21.2%)임
- 초등학교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1위는 '양육 및 사교육 비용 부담'(35.4%)으로 나타났고, '직접 자녀를 돌봐 줄 시간 부족'(16.0%), '자녀의 학습지도 및 인성

교육(16.0%)이 공동 2위로 나타남(<그림 2-38>, <표 2-37> 참조)

○ 여성의 취업여부별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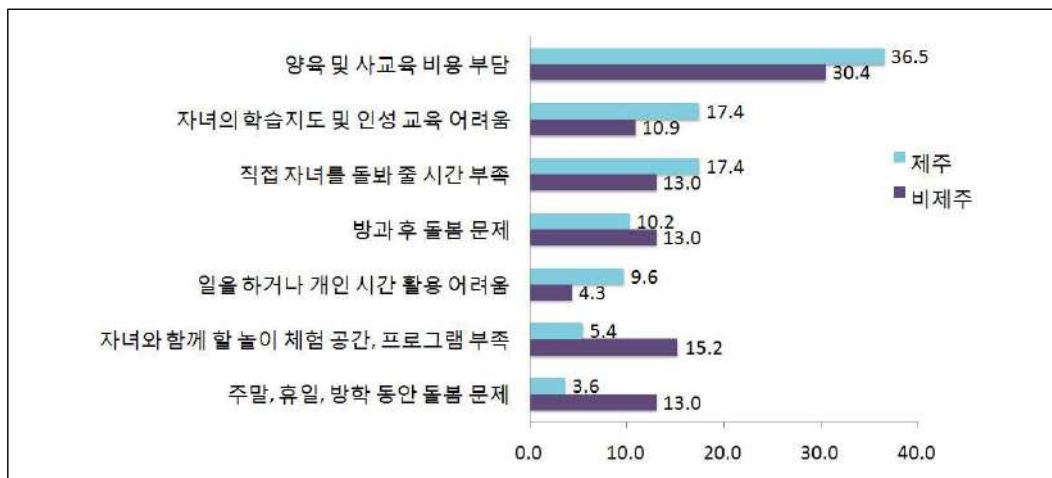
- 취업 여성은 1위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29.2%), 2위 '자녀의 학습지도 및 인성 교육 어려움'(21.4%), '직접 자녀를 돌봐 줄 시간 부족'(18.0%), 4위 '방과후 돌봄 문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37> 참조)
- 미취업 여성은 1위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35.5%), 2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문화·체험 공간, 프로그램 등 부족'(22.6%), 3위 '자녀의 학습지도 및 인성 교육 어려움'(16.1%), 4위 '방과후 돌봄 문제'(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가 고향인지여부별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 고향이 제주인 경우, 1위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36.5%), 공동 2위 '자녀의 학습지도 및 인성 교육 어려움', '직접 자녀를 돌봐 줄 시간 부족'(각각 17.4%), 4위 '방과후 돌봄 문제'(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37>, <그림 2-39> 참조)
- 고향이 제주가 아닌 정착주민의 경우, 1위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30.4%), 2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문화·체험 공간, 프로그램 등 부족'(15.2%), 3위 '직접 자녀를 돌봐 줄 시간 부족' 및 '방과 후 돌봄 문제'(각각 13.0%), 4위 '자녀의 학습지도 및 인성 교육 어려움'(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2-39> 참조)

<그림 2-39> 제주가 고향인지 여부별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2) 초등학교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양육 지원 정책 수요

- 정책 수요 1위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43.3%)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교육비 지원'(18.3%), '휴일, 방학동안 자녀 급식 등 돌봄 서비스 제공'(14.0%), '자녀 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상담교육 제공'(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38> 참조)

○ 동·읍면지역별 초등학교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수요가 1위(동지역 42.3%, 읍면지역 46.0%)로 나타남
- 읍면지역은 동지역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상담, 가정파견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표 2-38> 참조)

〈표 2-38〉 초등학교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단위: 명, %)

구분		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교육비 지원	휴일, 방학동안 자녀 급식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상담 교육 제공	가정파견 돌봄 서비스 확대	부모,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 문화, 체험 공간, 프로그램 부족	χ^2
전 체		1000	100.0	43.3	18.3	14.0	10.3	7.7	6.4	
동읍면	동 지역	735	100.0	42.3	20.3	14.7	9.7	6.7	6.4	12.422*
	읍면 지역	265	100.0	46.0	12.8	12.1	12.1	10.6	6.4	
연령대	20대	181	100.0	40.9	26.0	12.2	7.7	8.3	5.0	41.625**
	30대	219	100.0	39.3	19.6	19.2	6.8	7.8	7.3	
	40대	278	100.0	42.1	21.6	11.2	11.2	6.8	7.2	
	50대	240	100.0	47.5	8.8	15.0	14.6	7.5	6.7	
	60-64세	82	100.0	51.2	14.6	11.0	9.8	9.8	3.7	

**p<.01, *p<.05.

○ 연령대별 초등학교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 모든 연령대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수요가 1위로 나타남

- 20대는 '교육비 지원'(26.0%)에서 타집단보다 수요가 월등히 높음(<표 2-38> 참조).
- 30대는 '휴일, 방학동안 자녀 급식 등 돌봄 서비스 제공'(19.2%) 수요가 타 연령집단보다 가장 높음
- 50대는 '자녀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상담 교육 제공'(14.6%)에 대한 수요가 타 연령집단보다 가장 높음

다. 건강가정 지원 정책 수요

1) 건강가정 지원 정책의 필요성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자녀돌봄 지원 등, 건강한 가정 만들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함
- 응답자의 대다수가 각각의 건강가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가족교육 91.1%, 가족상담 90.7%, 자녀돌봄 87.8%, 가족문화 85.7%(<표 2-39> 참조)

〈표 2-39〉 건강가정 지원 정책 필요성

(단위: 명, %, 점)

구분	계		불필요	전혀 불필요		필요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평균 ¹⁾
				불필요	필요				
가족교육 지원	1000	100.0	8.9	1.1	7.8	91.1	49.4	41.7	3.32
가족상담 지원	1000	100.0	9.3	1.1	8.2	90.7	48.9	41.8	3.31
자녀돌봄 지원	1000	100.0	12.2	1.5	10.7	87.8	49.3	38.5	3.25
가족문화 지원	1000	100.0	14.3	1.6	12.7	85.7	50.8	34.9	3.19

주 : 1) 4점 척도(1 전혀 불필요 ~ 4 매우 필요)의 평균임.

2) 건강가정 지원 정책 이용 의향

- 응답자의 과반수가 건강가정 지원 정책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가족상담 66.1%, 가족교육 65.6%, 가족문화 55.6%, 자녀돌봄 54.6%(<표 2-40> 참조)

〈표 2-40〉 건강가정 지원 정책 이용 의향

(단위: 명, %)

구분	계	있다	없다
가족상담	1000 100.0	66.1	33.9
가족교육	1000 100.0	65.6	34.4
가족문화 확산	1000 100.0	55.6	44.4
자녀돌봄 지원	1000 100.0	54.6	45.4

○ 각각의 건강가정지원 정책 이용 의향에 있어서 지역, 성, 연령, 가구소득, 직종, 가구유형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표 2-41>, <표 2-42> 참조)

〈표 2-41〉 가족교육, 가족 상담 지원 정책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N	가족교육 이용 의향		χ^2	가족 상담이용 의향		χ^2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1000	65.6	34.4		66.1	33.9	
동읍면	동 지역	735	69.8	30.2	21.639**	70.6	29.4	25.201**
	읍 면 지역	265	54.0	46.0		53.6	46.4	
성별	남성	454	58.8	41.2	16.985**	58.8	41.2	19.71
	여성	546	71.2	28.8		72.2	27.8	
연령대	20대	181	59.7	40.3	87.744**	64.1	35.9	84.76**
	30대	219	76.3	23.7		79.5	20.5	
	40대	278	78.8	21.2		75.5	24.5	
	50대	240	57.1	42.9		56.7	43.3	
	64세 이하	82	30.5	69.5		30.5	69.5	
학력	중졸이하	81	30.9	69.1	77.348**	30.9	69.1	68.293**
	고졸	392	58.7	41.3		61.2	38.8	
	전문대졸	277	76.2	23.8		75.5	24.5	
	4년제 대졸이상	250	76.0	24.0		74.8	25.2	
직종	관리,전문가	118	79.7	20.3	26.646**	74.6	25.4	27.022**
	사무	136	75.7	24.3		77.2	22.8	
	판매,서비스	394	62.4	37.6		65.5	34.5	
	농임어업	54	57.4	42.6		59.3	40.7	
	기능,장치기계조립	74	54.1	45.9		45.9	54.1	
	단순노무	54	55.6	44.4		59.3	40.7	

구분		N	가족교육 이용 의향		χ^2	가족 상담이용 의향		χ^2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9	47.9	52.1	39.871**	52.1	47.9	25.904**
	200-299만원	240	61.3	38.8		63.8	36.3	
	300-399만원	246	70.3	29.7		70.3	29.7	
	400-499만원	146	76.0	24.0		75.3	24.7	
	500-599만원	93	68.8	31.2		63.4	36.6	
	600만원 이상	106	75.5	24.5		73.6	26.4	
장애 여부	장애	76	53.9	46.1	4.949*	55.3	44.7	4.311*
	비장애	924	66.6	33.4		67.0	33.0	
혼인 상태	미 혼	237	59.9	40.1	11.130**	64.1	35.9	3.604
	기 혼	692	69.5	30.5		68.5	31.5	
	이혼, 별거	52	53.8	46.2		57.7	42.3	
가구 형태	1인 가구	83	44.6	55.4	37.039***	45.8	54.2	35.769***
	부부 가구	172	54.7	45.4		55.2	44.8	
	부모+미혼자녀 가구	612	71.4	28.6		71.9	28.1	
	한부모+미혼자녀 가구	62	66.1	33.9		69.4	30.7	
	조손가구	9	44.4	55.6		44.4	55.6	
	3세대 이상 가구	55	70.9	29.1		67.3	32.7	

**p<.001, *p<.01, *p<.05.

〈표 2-42〉 가족문화, 자녀돌봄 지원 정책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계	가족문화 이용 의향		χ^2	자녀돌봄 이용 의향		χ^2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1000	55.6	44.4		54.6	45.4	
동읍면	동 지 역	735	60.3	39.7	24.525**	58.8	41.2	19.508**
	읍 면 지 역	265	42.6	57.4		43.0	57.0	
성별	남성	454	49.3	50.7	13.203**	49.8	50.2	7.794
	여성	546	60.8	39.2		58.6	41.4	
연령대	20대	181	54.7	45.3	74.208**	60.8	39.2	98.817**
	30대	219	68.9	31.1		74.0	26.0	
	40대	278	65.8	34.2		58.3	41.7	
	50대	240	42.5	57.5		40.0	60.0	
	60-64세	82	25.6	74.4		19.5	80.5	

구분		계	가족문화 이용 의향		χ^2	자녀돌봄 이용 의향		χ^2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학력	중졸이하	81	27.2	72.8	71.758**	21.0	79.0	74.710**
	고졸	392	45.7	54.3		46.4	53.6	
	전문대졸	277	67.5	32.5		64.6	35.4	
	4년제대졸이상	250	67.2	32.8		67.2	32.8	
직종	관리,전문가	118	65.3	34.7	31.095**	58.5	41.5	29.640**
	사무	136	69.1	30.9		71.3	28.7	
	판매,서비스	394	53.6	46.4		52.5	47.5	
	농임어업	54	38.9	61.1		37.0	63.0	
	기능,장치기계조립	74	39.2	60.8		41.9	58.1	
	단순노무	54	46.3	53.7		46.3	53.7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9	39.6	60.4	26.511**	40.8	59.2	19.391**
	200-299만원	240	54.6	45.4		57.1	42.9	
	300-399만원	246	59.3	40.7		58.9	41.1	
	400-499만원	146	66.4	33.6		60.3	39.7	
	500-599만원	93	55.9	44.1		48.4	51.6	
	600만원 이상	106	59.4	40.6		58.5	41.5	
장애 여부	장애	76	47.4	52.6	2.258	43.4	56.6	4.147*
	비장애	924	56.3	43.7		55.5	44.5	
가구 형태	1인 가구	83	39.8	60.2	37.039***	43.4	56.6	35.769***
	부부 가구	172	42.4	57.6		43.0	57.0	
	부모+미혼자녀 가구	612	61.3	38.7		58.7	41.3	
	한부모+미혼자녀 가구	62	53.2	46.8		58.1	41.9	
	조손가구	9	55.6	44.4		55.6	44.4	
	3세대 이상 가구	55	60.0	40.0		58.2	41.8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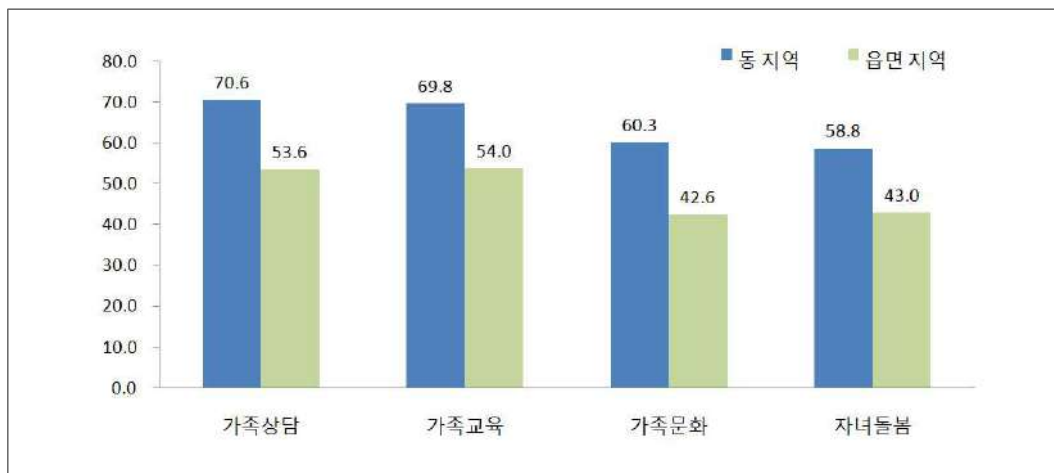
□ 동읍면지역별 건강가정 지원 정책 이용 수요

○ 각 정책별로 동지역의 수요가 읍면지역의 수요보다 높음

- 동지역의 경우, 가족상담 70.6%, 가족교육 69.8%, 가족문화 60.3%, 자녀돌봄 58.8%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은 가족상담 53.6%, 가족교육 54.0%, 가족문화 42.6%, 자녀돌봄 43.0%로 각각에 대해 동지역보다 수요가 낮음

〈그림 2-40〉 동·읍면 지역별 건강가정지원 정책 이용 의향

(단위: %)



주 : 각각에 대해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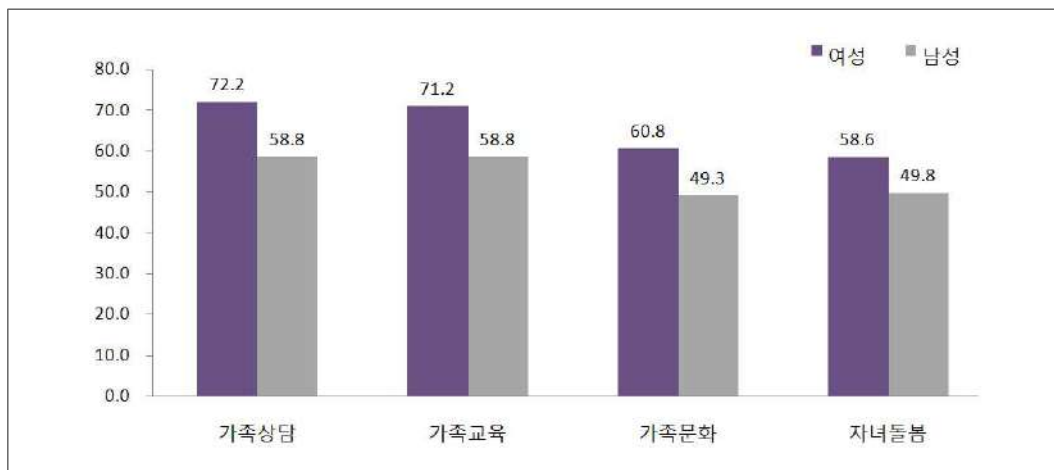
□ 성별 건강가정 지원 정책 이용 수요

○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수요가 남성의 수요보다 높음

- 여성의 경우, 가족상담 72.2%, 가족교육 71.2%, 가족문화 60.8%, 자녀돌봄 58.8%로 나타났고, 남성은 가족상담 58.8%, 가족교육 58.8%, 가족문화 49.3%, 자녀돌봄 49.8%로 나타남

〈그림 2-41〉 성별 건강가정지원 정책 이용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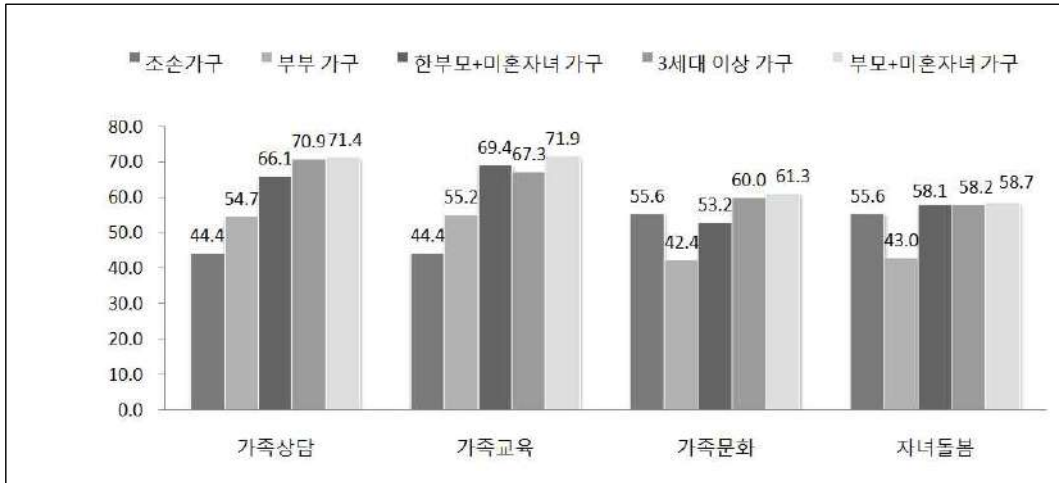
주 : 각각에 대해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임.

□ 가구유형별 건강가정 지원 정책 이용 수요

- 대체로 조손가구의 정책 이용 수요가 낮고, 핵가족(부모+미혼자녀)의 정책 이용 수요가 가장 높음

〈그림 2-42〉 가구유형별 건강가정지원 정책 이용 의향

(단위: %)



주 : 각각에 대해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임.

- 조손가구는 가족상담 44.4%, 가족교육 44.4%, 가족문화 55.6%, 자녀돌봄 55.6%
- 부부가구는 가족상담 54.7%, 가족교육 55.2%, 가족문화 42.4%, 자녀돌봄 43.0%
- 한부모+미혼자녀 가구는 가족상담 66.1%, 가족교육 69.4%, 가족문화 53.2%, 자녀돌봄 58.1%
- 3세대 가구는 가족상담 70.9%, 가족교육 67.3%, 가족문화 60.0%, 자녀돌봄 58.2%
- 부모+미혼자녀 가구는 가족상담 71.4%, 가족교육 71.9%, 가족문화 61.3%, 자녀돌봄 58.7%의 순으로 나타남

라. 우선 지원 대상 가족

-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가족 유형에 대해 조사함
- 우선 지원 대상 가족 1순위를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35.0%), 장애인 가족(21.4%), 독거노인 가구(16.6%), 맞벌이 가족(12.9%), 조손가족(11.9%), 1인 가구(1.6%), 이주민 가족(0.3%), 기타(0.3%)의 순으로 나타남(<표 2-43>, <그림 2-43> 참조).

〈표 2-43〉 우선 지원 대상 가족

(단위: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소득 한부모 가족	350	35.0	227	22.7	577	28.9
장애인 가족	214	21.4	228	22.8	442	22.1
독거노인 가구	166	16.6	244	24.4	410	20.5
맞벌이 가족	129	12.9	57	5.7	186	9.3
조손가족	119	11.9	188	18.8	307	15.4
1인가구	16	1.6	33	3.3	49	2.5
이주민 가족	3	0.3	23	2.3	26	1.3
기타	3	0.3	0.0	0.0	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각 가족유형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임. '기타'(0.2%) 제외.

○ 대체로 취약 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예외적인 것은,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 수요가 낮지 않다는 것임. '맞벌이 가족'은 우선 지원 대상 가족 유형 1순위에서 12.9%(129명)의 응답률을 보였고, 이는 '조손가족' 지원 수요(11.9%)를 앞서는 결과임
- 본 조사 대상의 연령대가 20-64세층인 것을 고려할 때, 아직 노년기에 이르지 않은 연령층에서 맞벌이 가족은 정책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2-43〉 우선 지원 대상 가족

(단위: %)



주: 각 가족유형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응답임. '기타'(3명) 제외.

7.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가. 지역사회 안전수준 인식

○ ‘가정폭력’, ‘성폭력’, ‘강도/절도’, ‘야간 보행’의 네 분야에 대한 도민의 지역사회 안전 수준 인식을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로 조사함

○ 지역사회별 분야별 ‘안전’ 수준 인식

〈표 2-44〉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계		위험	대체로		보통	안전	대체로		평균 ¹⁾
				매우 위험	위험			안전	매우 안전	
가정 폭력	1,000	100.0	8.7	0.9	7.8	43.6	47.7	40.4	7.3	3.45
성폭력	1,000	100.0	11.2	1.3	9.9	42.0	46.8	38.7	8.1	3.42
강도/절도	1,000	100.0	14.2	1.1	13.1	41.6	44.2	37.4	6.8	3.36
야간 보행	1,000	100.0	20.7	3.4	17.3	43.1	36.2	30.8	5.4	3.18

주 : 1)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의 평균임.

〈그림 2-44〉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 평균점수는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의 평균임.

- ‘안전’하다는 인식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47.7%, 성폭력 46.8%, 강도/절도 44.2%, 야간보행 36.2%의 순으로 나타남(<표 2-44> 참조)
-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의 평균 점수로 비교하면 가정폭력 3.45점, 성폭력 3.42점, 강도/절도 3.36점, 야간보행 3.18점으로 나타남
- 각 분야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인식은 절반에 못 미치고, 특히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 인식이 낮음(<표 2-44>, <그림 2-44> 참조)

□ 성별 지역사회 안전수준 인식

- 성폭력, 야간보행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 성폭력에 대해서 여성의 43.2%, 남성의 51.1%가 안전하다고 인식함. 5점 척도의 평균은 여성 3.35점, 남성 3.51점임
 - 야간보행 관련하여 여성의 34.6%, 남성의 38.1%가 안전하다고 인식함. 5점 척도의 평균은 여성 3.12점, 남성 3.24점임(<표 2-45>, <그림 2-45> 참조)

〈표 2-45〉 성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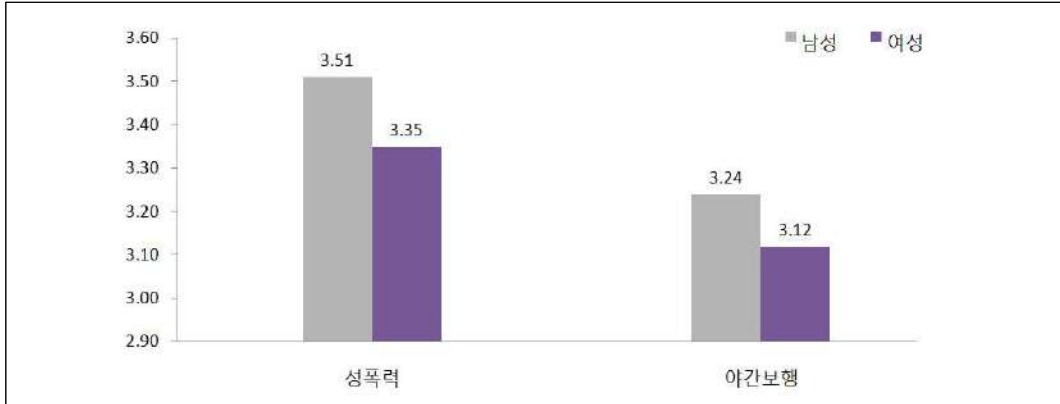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계		위험	매우 대체로		보통	안전	대체로 매우		평균 ¹⁾	t
					위험	위험			안전	안전		
성폭력	남성	454	100.0	10.4	0.4	9.9	38.5	51.1	40.3	10.8	3.51	3.049**
	여성	546	100.0	11.9	2.0	9.9	44.9	43.2	37.4	5.9	3.35	
야간보행	남성	454	100.0	18.7	2.4	16.3	43.2	38.1	30.8	7.3	3.24	2.169*
	여성	546	100.0	22.3	4.2	18.1	43.0	34.6	30.8	3.8	3.12	

주 : 1)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의 평균임. **p<.01, *p<.05.

〈그림 2-45〉 성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주 : 1)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의 평균임.

□ 연령대별 지역사회 안전수준 인식

○ 강도/절도, 야간보행에 있어서 연령이 적을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표 2-46〉 연령대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계		위험	매우 위험	대체로 위험	보통	안전	대체로 안전	매우 안전	평균 ¹⁾	F
강도/절도	20대	181	100.0	16.6	2.8	13.8	47.5	35.9	26.5	9.4	3.26	2.995 [*]
	30대	219	100.0	16.9	1.4	15.5	40.2	42.9	38.8	4.1	3.29	
	40대	278	100.0	14.0	0.0	14.0	41.0	45.0	40.3	4.7	3.36	
	50대	240	100.0	12.5	1.3	11.3	40.4	47.1	39.2	7.9	3.41	
	60-64세	82	100.0	7.3	0.0	7.3	37.8	54.9	42.7	12.2	3.60	
야간보행	20대	181	100.0	25.4	6.6	18.8	42.0	32.6	24.3	8.3	3.09	5.211 ^{**}
	30대	219	100.0	26.9	3.2	23.7	46.1	26.9	24.2	2.7	3.00	
	40대	278	100.0	18.3	2.9	15.5	45.3	36.3	32.4	4.0	3.19	
	50대	240	100.0	15.8	2.5	13.3	39.6	44.6	37.9	6.7	3.33	
	60-64세	82	100.0	15.9	1.2	14.6	40.2	43.9	36.6	7.3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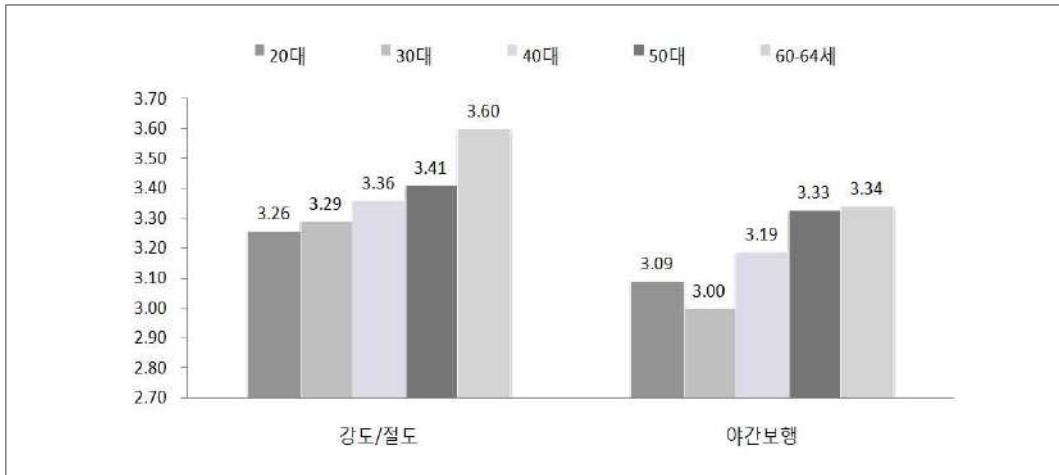
주 : 1)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의 평균임. **p<.01, *p<.05.

- 강도/절도에 관하여 '안전하다'는 인식은 20대 35.9%, 30대 42.9%, 40대 45.0%, 50대 47.1%, 60-64세 54.9%로 나타남. 5점 척도의 평균은 20대가 3.26점으로 가장 낮고, 60-64세가 3.60점으로 가장 높음(<표 2-46>참조)

- 야간보행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인식은 20대 32.6%, 30대 26.9%, 40대 36.3%, 50대 44.6%, 60-64세 43.9%로 나타남. 5점 척도의 평균은 30대가 3.00점으로 가장 낮고, 60-64세가 3.34점으로 가장 높음(<표 2-46>참조)

〈그림 2-46〉 연령대별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 1)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의 평균임.

□ 동·읍면지역별 지역사회 안전수준 인식

-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감은 제주시 동지역이 가장 낮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가장 높음
- 5점 척도 기준, 제주시 동지역 3.26점, 제주시 읍면지역 3.29점, 서귀포시 동지역 3.36점, 서귀포시 읍면지역 3.41점으로 나타남(<표 2-47> 참조)

〈표 2-47〉 동·읍면 지역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수준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계		위험	매우 위험		보통	안전	대체로 안전		평균 ¹⁾	F
				매우 위험	대체로 위험			대체로 안전	매우 안전		
제주시 동 지역	181	100.0	21.7	3.7	18.0	41.5	36.8	3.16	4.2	3.26	3.527*
제주시 읍면 지역	219	100.0	24.7	4.5	20.1	37.0	38.3	3.18	9.1	3.29	
서귀포시 동 지역	278	100.0	21.4	2.8	18.6	51.7	26.9	3.06	3.4	3.36	
서귀포시 읍면 지역	240	100.0	9.0	0.9	8.1	48.6	42.3	3.41	9.0	3.41	

주 : 1) 5점 척도(1 매우 위험 ~ 5 매우 안전)의 평균임. *p<.05.

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표 2-48〉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단위: 명, %, 점)

구분	N		불필요	전혀 필요 없음		필요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평균 ¹⁾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1,000	100.0	3.3	0.3	3.0	96.7	32.6	64.1		3.61
방법 취약 지역 CCTV 설치	1,000	100.0	3.7	0.5	3.2	96.3	34.6	61.7		3.58
경찰의 순찰 강화	1,000	100.0	5.6	0.3	5.3	94.4	42.1	52.3		3.46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1,000	100.0	12.6	0.9	11.7	87.4	47.3	40.1		3.27
여성과 아동을 위한 택시 등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1,000	100.0	13.5	1.1	12.4	86.5	46.9	39.6		3.25
폭력 예방 등 각종 안전 관련한 교육 확대	1,000	100.0	13.1	0.8	12.3	86.9	51.1	35.8		3.22
독거 여성을 위한 방법서비스 지원	1,000	100.0	16.3	1.4	14.9	83.7	52.3	31.4		3.14
호신술 등 폭력대응 위한 체력단련 훈련 지원	1,000	100.0	28.9	2.4	26.5	71.1	46.2	24.9		2.94

주 : 4점 척도(1 전혀 필요 없음 ~ 4 매우 필요)의 평균임

-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방법 취약 지역 CCTV 설치’, ‘경찰의 순찰 강화’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표 2-48 참조)
-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여성과 아동을 위한 택시 등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폭력 예방 등 각종 안전 관련한 교육 확대’, ‘독거 여성을 위한 방법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84~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표 2-48 참조)
- ‘호신술 등 폭력대응 위한 체력단련 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71.1%가 ‘필요’하다고 응답함(<표 2-48 참조)

○ 동·읍면지역별 지역사회 안전 정책 수요

- 전반적으로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의 정책 수요가 높고, 다음으로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나타남(<표 2-49> 참조).
- 제주시 동 지역은 가로등 설치, 방범 취약 지역 CCTV 설치, 경찰의 순찰 강화, 독거 여성을 위한 방범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음(<표 2-49> 참조)
- 서귀포시 동 지역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지원,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심 귀가서비스 운영, 폭력 예방 등 각종 안전 관련 교육 확대에 대한 정책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음

○ 성별 지역사회 안전 정책 수요

-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정책 수요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표 2-49> 참조)

〈표 2-49〉 지역 및 성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단위: 명, 점)

	지역별				성별	
	제주시 동 지역	제주시 읍면 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	서귀포시 읍면 지역	여성	남성
계	590	154	145	111	546	454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3.67	3.49	3.59	3.42	3.64	3.56
방범 취약 지역 CCTV 설치	3.64	3.46	3.51	3.45	3.62	3.52
경찰의 순찰 강화	3.54	3.37	3.39	3.29	3.49	3.43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3.17	3.04	3.26	2.96	3.16	3.11
여성과 아동을 위한 택시 등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3.28	3.17	3.32	3.10	3.30	3.19
폭력 예방 등 각종 안전 관련한 교육 확대	3.23	3.14	3.33	3.11	3.25	3.19
독거 여성을 위한 방범서비스 지원	3.33	3.16	3.31	3.03	3.31	3.22
호신술 등 폭력대응 위한 체력단련 훈련 지원	2.97	2.90	3.00	2.71	3.02	2.83
평균	3.35	3.22	3.34	3.13	3.35	3.26

주 : 4점 척도(1 전혀 필요 없음 ~ 4 매우 필요)의 평균점수임. 지역별, 성별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예외: '폭력 예방 등 각종 안전 관련한 교육 확대'에 관해서 성별 유의미한 차이 없음).

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 가정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가 42.4%로 1위로 나타남(<표 2-50> 참조)
- 다음으로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37.1%),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9.1%),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습 개선'(7.9%), '가정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3.5%)의 순으로 나타남(<표 2-50> 참조)
- 가정폭력 방지 정책 수요에 있어서 성, 연령, 지역,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대체로 발견되지 않음

〈표 2-50〉 가정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빈도	비율
계	1,000	100.0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	424	42.4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371	37.1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	91	9.1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습 개선	79	7.9
가정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	35	3.5

○ 성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표 2-51〉 성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빈도	비율
계	999	100.0
성폭력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	581	58.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234	23.4
지역 내 우범지역 개선 및 치안유지	93	9.3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	64	6.4
성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	27	2.7

-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성폭력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가 58.2%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남(<표 2-51> 참조)
- 다음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23.4%), ‘지역 내 우범지역 개선 및 치안유지’(9.3%),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6.4%), ‘성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2.7%)의 순으로 나타남(<표 2-51> 참조)
- 성폭력 방지 정책 수요에 있어서 성, 연령, 지역,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대체로 발견되지 않음

○ 성매매 예방 위해 필요한 정책

- 성매매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가 44.3%로 1위를 나타냄(<표 2-52> 참조)
- 다음으로는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확대’(16.2%), ‘성 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정 대처’(15.7%), ‘성매매 발생지역 및 시설 단속 강화’(13.1%),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6.2%),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4.5%)의 순으로 나타남(<표 2-52> 참조)
- 성매매 예방 정책 수요에 있어서 성, 연령, 지역,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대체로 발견되지 않음

<표 2-52> 성매매 예방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빈도	비율
계	997	100.0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442	44.3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확대	161	16.2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정 대처	156	15.7
성매매가 발생하는 지역 및 시설 단속 강화	131	13.1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62	6.2
성매매 피해 여성 자립지원	45	4.5

8. 취약 여성 지원 정책 수요

가. 농촌 여성 지원 정책 수요

1) 농촌 여성의 어려움

- 제주사회 농촌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함
- 전체 응답자의 56.0%가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응답함
 - 다음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11.5%),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로 제약이 많음'(8.0%), '사회활동, 문화활동, 자기개발 기회 부족'(7.7%)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53> 참조)

〈표 2-53〉 농촌 여성의 어려움 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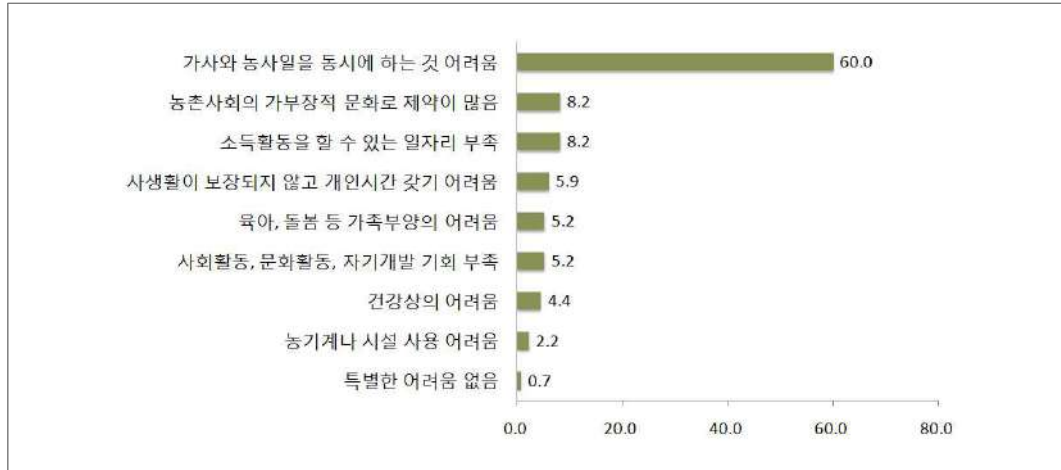
	전체 의견	읍면지역 주민 의견		
		계	여성	남성
계	1,000	265	135	130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 어려움	56.0	55.5	60.0	50.8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	11.5	11.7	8.2	15.4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로 제약이 많음	8.0	9.4	8.2	10.8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시간 갖기 어려움	5.0	5.3	5.9	4.6
사회활동, 문화활동, 자기개발 기회 부족	7.7	4.9	5.2	4.6
육아, 돌봄 등 가족부양의 어려움	4.8	4.5	5.2	3.9
건강상의 어려움	4.1	4.5	4.4	4.6
농기계나 시설 사용 어려움	2.1	2.6	2.2	3.1
특별한 어려움 없음	0.8	1.5	0.7	2.3

○ 읍면 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농촌여성의 어려움

- 읍면지역 여성들이 생각하는 농촌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60.0%가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응답함(<표 2-53>, <그림 2-47> 참조)
- 다음으로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과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로 제약이 많음'이 각각 8.2%로 공동 2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시간 갖기 어려움'(5.9%), '사회활동, 문화활동, 자기개발 기회 부족'(5.2%), '육아, 돌봄 등 가족부양의 어려움'(5.2%)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7〉 읍면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농촌 여성의 어려움 1순위

(단위: %)



2) 농촌 여성 지원 정책 수요

- 제주지역 농촌여성의 복지증진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민 인식을 조사함

〈표 2-54〉 농촌 여성의 복지증진과 역량강화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단위: 명, %)

	전체 의견	읍면지역 주민 의견		
		계	여성	남성
계	1,000	265	135	130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번기 급식서비스 제공	21.9	23.4	27.4	19.2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26.2	20.8	15.6	26.2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	17.0	16.2	15.6	16.9
농촌여성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	8.1	10.6	11.1	10.0
문화,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	9.0	8.3	10.4	6.2
여성 농업 경영인 등록률 제고	3.7	4.9	5.9	3.9
농기계나 시설 사용 지원	3.6	5.3	5.2	5.4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및 영농후계자 양성	7.2	6.0	4.4	7.7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3.3	4.5	4.4	4.6

- 전체 도민이 생각하는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 증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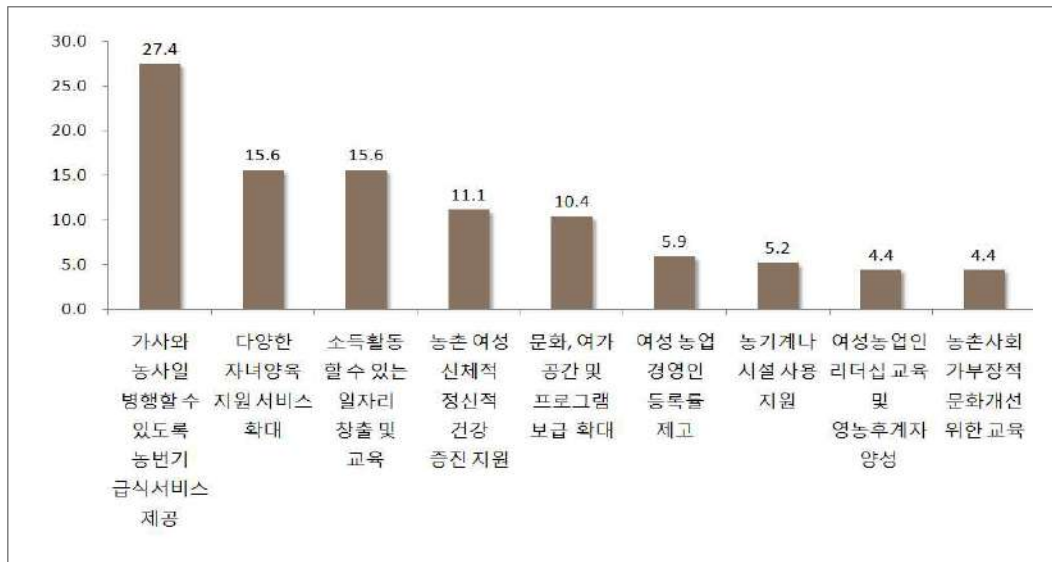
-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26.2%)가 1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번기 급식서비스 제공'(21.9%),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17.0%), '문화,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9.0%), '농촌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8.1%)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54> 참조)

○ 읍면 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농촌 여성을 위한 복지 증진 정책

〈그림 2-48〉 읍면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제주 농촌 여성 지원 정책 1순위

(단위: %)



-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번기 급식서비스 제공'(27.4%)이 1위로 나타나 전체 도민의 의견과 차이가 있음(<표 2-54>, <그림 2-48> 참조)
- 다음으로는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이 각각 15.6%로 공동 2위로 나타남
- '농촌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수요는 11.1%로 4위로 나타나며, 이는 전체 도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읍면지역 여성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임
- 한편, '여성 경영인 등록률 제고'에 대한 수요는 5.9%로 농기계 사용,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수요보다 앞서며, 이는 농촌 지역 여성들이 전문 농업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말해 줌

나. 여성 장애인 지원 정책 수요

- 여성 장애인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함
 - 전체응답자가 생각하는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제도 활성화’(31.8%)와 ‘장애인 맞춤형 직업 개발, 직업 훈련 등 경제활동 지원’(30.8%)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표 2-55> 참조)
 - 다음으로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확대’(9.1%), ‘편의시설, 이동수단, 교통수단 이용 지원’(8.4%), ‘임신, 출산, 자녀양육, 자녀학습 지원’(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5〉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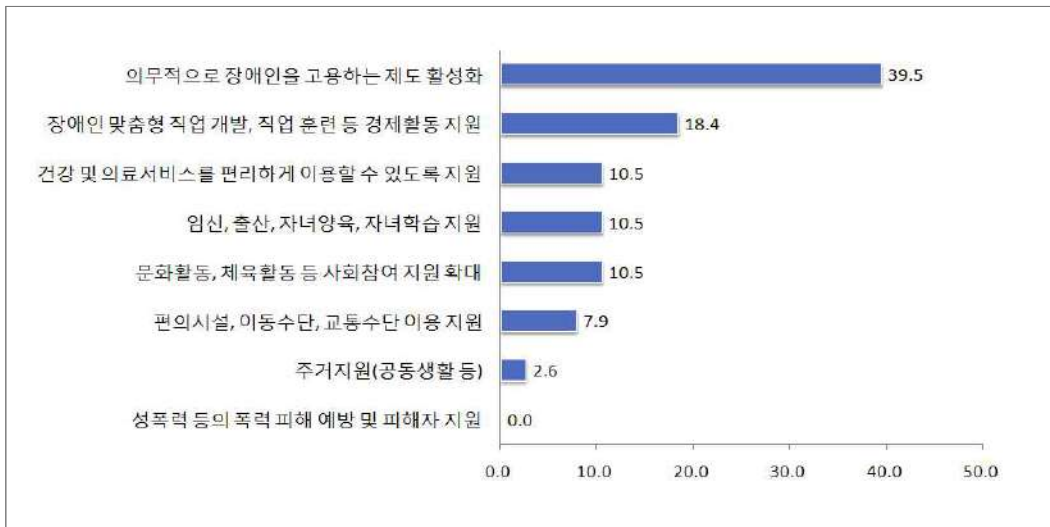
	전체 의견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계	여성	남성
계	1,000	76	38	38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제도 활성화	31.8	42.1	39.5	44.7
장애인 맞춤형 직업 개발, 직업 훈련 등 경제활동 지원	30.8	19.7	18.4	21.1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확대	9.1	9.2	10.5	7.9
임신, 출산, 자녀양육, 자녀학습 지원	7.6	6.6	10.5	2.6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4.3	7.9	10.5	5.3
편의시설, 이동수단, 교통수단 이용 지원	8.4	7.9	7.9	7.9
주거지원(공동생활 등)	1.3	2.6	2.6	2.6
성폭력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6.7	4.0	0.0	7.9

- 여성 장애인이 생각하는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수요
 - 여성 장애인이 생각하는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1순위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제도 활성화’(39.5%)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표 2-55>, <그림 2-49> 참조)
 - 다음으로 ‘장애인 맞춤형 직업 개발, 직업 훈련 등 경제활동 지원’(18.4%)으로 나타남.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 장애인 맞춤형 경제활동 지원 등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가 상위 57.9%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확대’, ‘임신, 출산, 자녀양육, 자녀학습 지원’,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각각 10.5%로 공동 3위로 나타남
- 일반 도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 장애인은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지원 및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정책 수요가 이동수단·교통수단 이용 지원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한 수요(10.5%)는 전체 도민의 인식(4.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림 2-49〉 장애여성이 생각하는 여성 장애인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단위: %)



9. 건강, 여가·문화, 교육 지원 정책 수요

가. 여성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식

- 응답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0%가 '좋다'고 인식하고, 5점 척도(1 매우 나쁘다 ~ 5 매우 좋다)의 평균점수는 3.58점으로 나타남(<표 2-56> 참조)

○ 성별 주관적 건강 수준 인식

-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건강 수준을 낮게 평가함: '좋다'는 응답은 남성 60.4%, 여성 52.4%이며, 평균점수는 남성 3.64점, 여성 3.54점임(<표 2-56> 참조)

〈표 2-56〉 성별 주관적 건강 수준 인식

(단위: 명, %)

구분	계		나쁘다	매우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대체로 좋다		평균 ¹⁾	t
				매우 나쁘다	대체로 나쁘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계	1000	100.0	7.1	1.1	6.0	36.9	56.0	45.4	10.6	3.58	1.974*
남성	454	100.0	7.0	1.5	5.5	32.6	60.4	48.2	12.1	3.64	
여성	546	100.0	7.1	0.7	6.4	40.5	52.4	43.0	9.3	3.54	

주 : 5점 척도(1 매우 나쁘다 ~ 5 매우 좋다)의 평균임. *p<.05.

○ 여성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 전체 응답자가 생각하는 여성의 건강 증진 지원 정책 1위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27.6%)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23.9%)으로 나타남(<표 2-57> 참조)

○ 여성이 원하는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 1위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21.6%)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20.7%)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20.2%)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2-50>)

참조)

-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건강증진 지원’(15.6%) 수요는 여성암 조기검진에 대한 지원 (15.9%)만큼이나 높게 나타나면서, 폐경기 여성 지원에 대한 남성의 인식 (6.2%)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표 2-57> 참조)

〈표 2-57〉 성별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단위: 명, %)

	계	여성	남성
계	1,000	546	454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23.9	21.6	26.7
임신 · ·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27.6	20.7	35.9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	16.9	20.2	13.0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 지원 강화	14.6	15.9	13.0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건강증진 지원	11.3	15.6	6.2
직장 여성을 위한 주말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5.7	6.0	5.3

〈그림 2-50〉 여성이 원하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단위: %)



주 : 여성 응답임.

○ 여성의 연령대별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표 2-58> 참조)

- 여성의 연령대별로 가장 필요로 하는 건강 증진 지원 정책에 차이가 나타남.
- 20대, 30대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각각 31.1%, 35.8%)
- 40대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25.6%)
- 50대는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건강증진 지원'(30.6%)
- 60-64세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25.6%)

〈표 2-58〉 여성의 연령대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수요 1순위

(단위: 명, %)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계	546	90	123	156	134	43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21.6	26.7	18.7	21.2	20.2	25.6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20.7	31.1	35.8	10.9	11.9	18.6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	20.2	17.8	16.3	25.6	22.4	9.3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 지원 강화	15.9	10.0	21.1	18.6	10.5	20.9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건강증진 지원	15.6	3.3	4.1	17.3	30.6	20.9
직장 여성을 위한 주말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6.0	11.1	4.1	6.4	4.5	4.7

주 : 여성 응답임. $\chi^2=91.840(p<.000)$.

나. 여가문화생활 지원 정책 수요

1) 여가활동 시간

- 일주일 평균 여가활동 시간에 있어서 지역, 성, 연령대, 취업여부, 혼인상태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표 2-59> 참조)
- 지역별로는 제주시 읍면지역(8.3시간), 서귀포시 동지역(6.7시간), 제주시 동지역(6.6시간), 서귀포시 읍면지역(5.0시간)의 순으로 나타남(<표 2-59> 참조)
- 성별로는 남성 7.2시간, 여성 6.3시간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표 2-59> 참조)
- 연령대별로는, 20대 8.8시간, 60-64세 7.3시간, 40대 6.5시간, 50대 6.0시간, 30대 5.8시간의 순으로 나타남(<표 2-59> 참조)

-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미취업자 8.6시간, 취업자 6.3시간으로 취업자의 여가활동 시간이 월등히 적게 나타남(<표 2-59> 참조)
-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8.2시간, 이혼·별거 7.6시간, 기혼 6.1시간으로, 기혼자의 여가 활동시간이 가장 적음(<표 2-59> 참조)

〈표 2-59〉 여가활동 시간(1주일 기준)

(단위: 명, 시간)

구분		N	평균	F
전 체		1000	6.7	
지역별	제주시 동	590	6.6	6.417**
	제주시 읍면	154	8.3	
	서귀포시 동	145	6.7	
	서귀포시 읍면	111	5.0	
성별	남성	454	7.2	5.573*
	여성	546	6.3	
연령대	20대	181	8.8	7.905**
	30대	219	5.8	
	40대	278	6.5	
	50대	240	6.0	
	60-64세	82	7.3	
취업 상태	취업	830	6.3	21.735**
	미취업	170	8.6	
혼인 상태	미 혼	237	8.2	11.725**
	기 혼	692	6.1	
	이혼, 별거	52	7.6	

**p<.01, *p<.05.

2) 여가생활 어려움

- 성별 여가생활의 어려움
 - 여가생활의 어려움에 있어서 남녀 모두 '시간 부족', '주위에 마땅한 시설, 프로그램 부족', '돈 부족'이 동일하게 상위 3위로 나타남
 - 성별 가장 큰 차이는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부담'으로 나타남. 여성의 18.1%, 남성의 7.5%가 동 항목을 여가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여 남녀 간 두 배 이상 격차가 나타남(<표 2-60> 참조)

〈표 2-60〉 성별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

(단위: 명, %)

	계	남성	여성
계	1,000 (100.0)	454 (100.0)	546 (100.0)
시간 부족	32.2	35.7	29.3
주위에 마땅한 시설, 프로그램 부족	23.6	25.5	22.1
돈 부족	22.5	23.3	21.9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부담	13.3	7.5	18.1
건강, 나이, 장애 등	4.6	4.7	4.6
교통, 이동 불편	2.1	1.6	2.6
여가생활을 같이 할 사람 없음	1.6	1.8	1.5

p<.000.

○ 연령대별 여가생활의 어려움

- 20대, 40대, 50대는 '시간 부족'(각각 35.9%, 37.3%, 37.2%)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표 2-61> 참조)
- 30대는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부담'(33.8%)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
- 60-64세는 '건강, 나이, 장애 등'(34.2%)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표 2-61> 참조)

〈표 2-61〉 연령대별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

(단위: 명, %)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계	994 (100.0)	181 (100.0)	219 (100.0)	276 (100.0)	239 (100.0)	79 (100.0)
시간 부족	32.2	35.9	24.2	37.3	37.2	12.7
돈 부족	22.5	23.8	19.6	23.2	23.4	22.8
주위에 마땅한 시설, 프로그램 부족	23.6	24.9	19.2	23.6	27.2	22.8
가사, 육아, 가족 돌봄	13.3	8.3	33.8	12.7	2.1	3.8
건강, 나이, 장애 등	4.6	0.0	0.5	1.1	6.3	34.2
교통, 이동 불편	2.1	3.9	2.3	1.1	2.1	1.3
여가생활을 같이 할 사람 없음	1.6	3.3	0.5	1.1	1.7	2.5

p<.000.

○ 여성의 연령대별 여가생활의 어려움

-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여가생활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앞서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석 결과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임
- 다만, 30대 여성들의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한 여가생활 어려움은 44.7%로 거의 반수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함(<표 2-62> 참조)

〈표 2-62〉 연령대별 여가활동이 어려운 이유(여성 응답)

(단위: 명, %)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전체	543 (100.0)	90 (100.0)	123 (100.0)	156 (100.0)	133 (100.0)	41 (100.0)
시간 부족	29.3	35.6	13.8	35.3	37.6	12.2
주위에 마땅한 시설, 프로그램 부족	22.1	22.2	17.9	20.5	28.6	19.5
돈 부족	21.9	24.4	19.5	22.4	20.3	26.8
가사, 육아, 가족 돌봄	18.1	11.1	44.7	19.2	1.5	2.4
교통, 이동 불편	2.6	3.3	3.3	1.3	3.0	2.4
건강, 나이, 장애 등	4.6	0.0	0.8	0.6	6.8	34.2
여가생활을 같이 할 사람 없음	1.5	3.3	0.0	0.6	2.3	2.4

p<.000.

3) 여가생활 만족도

○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남성 29.7%, 여성 24.0%이고, 5점 척도의 평균은 남성 3.06점, 여성 2.86점으로 나타남(<표 2-63>, <그림 2-51> 참조)

〈표 2-63〉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만족	다소 만족	매우 만족	평균 ¹⁾	F
전 체		1000	29.1	6.3	22.8	44.3	26.6	22.5	4.1	2.95	
성별	남성	454	24.2	4.6	19.6	46.0	29.7	24.4	5.3	3.06	11.436**
	여성	546	33.2	7.7	25.5	42.9	24.0	20.9	3.1	2.86	
연령	20대	181	21.0	3.3	17.7	42.5	36.5	29.8	6.6	3.19	4.083**
	30대	219	32.4	9.1	23.3	45.2	22.4	20.5	1.8	2.83	
	40대	278	30.9	6.1	24.8	44.2	24.8	20.5	4.3	2.92	
	50대	240	29.2	6.7	22.5	45.0	25.8	21.3	4.6	2.95	
	60-64세	82	31.7	4.9	26.8	43.9	24.4	22.0	2.4	2.90	
학력	중졸이하	81	32.1	4.9	27.2	48.1	19.8	14.8	4.9	2.88	2.971**
	고졸	392	30.6	7.4	23.2	44.9	24.5	20.9	3.6	2.90	
	전문대졸	277	27.4	6.5	20.9	50.9	21.7	18.1	3.6	2.91	
	대졸이상	250	27.6	4.8	22.8	34.8	37.6	32.4	5.2	3.10	
직업	관리,전문가	118	21.2	1.7	19.5	39.0	39.8	33.1	6.8	3.24	4.674**
	사무	136	33.1	5.9	27.2	43.4	23.5	18.4	5.1	2.90	
	판매,서비스	394	34.5	10.4	24.1	41.4	24.1	21.8	2.3	2.81	
	농임어업	54	24.1	5.6	18.5	44.4	31.5	27.8	3.7	3.06	
	기능,장치기계조립	74	17.6	4.1	13.5	62.2	20.3	14.9	5.4	3.04	
	단순노무	54	33.3	5.6	27.8	55.6	11.1	9.3	1.9	2.74	
취업 상태	취업	830	30.1	7.2	22.9	44.3	25.5	21.8	3.7	2.92	6.434*
	미취업	170	24.1	1.8	22.4	44.1	31.8	25.9	5.9	3.12	
장애 여부	장애	76	38.2	10.5	27.6	42.1	19.7	17.1	2.6	2.74	4.445*
	비장애	924	28.4	6.0	22.4	44.5	27.2	22.9	4.2	2.97	
혼인 상태	미 혼	237	17.7	3.4	14.3	47.3	35.0	27.8	7.2	3.21	12.859**
	기 혼	692	32.4	6.8	25.6	43.5	24.1	21.0	3.2	2.88	
	이혼, 별거	52	38.5	13.5	25.0	40.4	21.2	17.3	3.8	2.73	

주: 1)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의 평균임. **p<.01, *p<.05.

〈그림 2-51〉 성,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점)



주: 1)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의 평균임. $p < .01$.

○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 20대의 여가생활 만족도(3.19점)가 가장 높고, 30대가 2.83점으로 가장 낮음(<그림 2-51>, <표 2-63>> 참조)

○ 학력별, 취업상태별, 직종별, 장애여부별, 혼인상태별 여가생활 만족도

- 고학력일수록, 미취업자일수록,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장애가 없을수록, 미혼일수록 여가생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표 2-63> 참조)

4)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연령대별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저렴한 비용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를 1위로 선택함. 60-64세는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가장 선호(<표 2-64> 참조)
-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20대, 50대는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대'를 선택한 반면, 30대는 '가족단위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를, 40대는 '주말, 저녁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확대'를 선택함(<표 2-64> 참조)

〈표 2-64〉 연령대별 여가생활 향상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단위: 명, %)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계	1,000 (100.0)	181 (100.0)	219 (100.0)	278 (100.0)	240 (100.0)	82 (100.0)
저렴한 비용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36.1	40.3	36.1	34.2	36.7	31.7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대	20.4	22.1	12.3	19.4	22.9	34.2
주말, 저녁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확대	18.9	18.8	20.6	22.3	15.8	12.2
가족단위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	18.7	9.9	25.1	21.2	16.3	19.5
문화, 여가활동 소모임 위한 공간 등 인프라 지원	5.7	8.8	5.0	2.9	8.3	2.4

주: '기타'(2명) 제외. p<.000.

○ 동·읍면지역별 여가생활 지원 정책 수요

-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남(<표 2-65> 참조)
-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동지역은 '주말, 저녁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확대'(19.1%), 읍면지역은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대'(25.3%)를 선택함

〈표 2-65〉 동·읍면지역별 여가생활 향상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단위: 명, %)

	계	동 지역	읍면지역
계	1,000 (100.0)	735 (100.0)	265 (100.0)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36.1	37.6	32.1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대	20.4	18.6	25.3
주말, 저녁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	18.9	19.1	18.5
가족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	18.7	18.6	18.9
문화, 여가활동 소모임 위한 공간 등 인프라 지원	5.7	6.1	4.5

주: '기타'(2명) 제외. p<.05.

다. 정보화 실태 및 평생교육 지원 정책 수요

1) 정보화 실태

- 도민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SNS 이용 가능 여부 및 기기 보유 여부를 조사함
- 이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핸드폰 99.2%, 스마트폰 91.5%, 인터넷/SNS 89.7%, 컴퓨터 87.6%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기기 보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 89.6%, 컴퓨터 87.8%, 핸드폰 10.4%으로 나타남(대부분이 핸드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표 2-66> 참조)
- 정보화 실태에 있어서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표 2-66〉 정보화 실태

(단위: 명, %)

구분	계		이용 능력		기기 보유 여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컴퓨터	1,000	100.0	87.6	12.4	87.8	12.2
핸드폰	1,000	100.0	99.2	0.8	10.4	89.6
스마트폰	1,000	100.0	91.5	8.5	89.6	10.4
인터넷/SNS	1,000	100.0	89.7	10.3	-	-

○ 동·읍면 지역별 정보화 실태

〈표 2-67〉 동·읍면 지역별 정보화 실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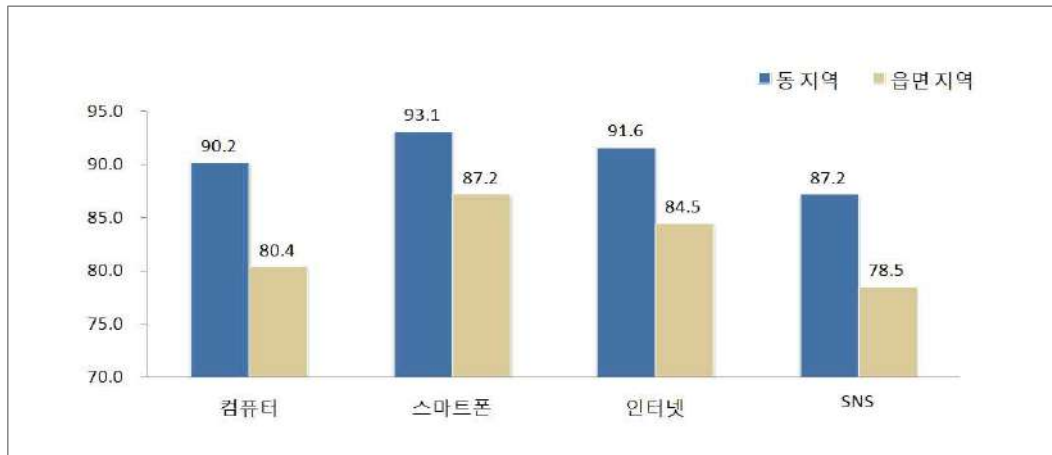
구분		계		이용 능력			기기 보유 여부		
				안다	모른다	χ^2	있다	없다	χ^2
컴퓨터	동 지역	735	100.0	90.2	9.8	17.315**	90.6	9.4	20.478**
	읍면 지역	265	100.0	80.4	19.6		80.0	20.0	
스마트폰	동 지역	735	100.0	93.1	6.9	5.366	91.3	8.7	4.910*
	읍면 지역	265	100.0	87.2	12.8		84.9	15.1	
인터넷	동 지역	735	100.0	91.6	8.4	8.692**	-		
	읍면 지역	265	100.0	84.5	15.5				
SNS	동 지역	735	100.0	87.2	12.8	8.526**	-		
	읍면 지역	265	100.0	78.5	21.5				

**p<.01, *p<.05.

-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이용 능력에 있어서 읍면지역 주민이 동 지역 주민에 비해 정보화가 약함. 특히 차이가 많은 부분은 컴퓨터 이용 능력과 SNS 이용 능력으로 나타남(<표 2-69>, <그림 2-52> 참조)
- 컴퓨터 이용 능력은 동지역 90.2%, 읍면지역 80.4%으로 나타남
- SNS 이용 능력은 동지역 87.2%, 읍면지역 78.5%으로 나타남

〈그림 2-52〉 동 · 읍면 지역별 정보화 실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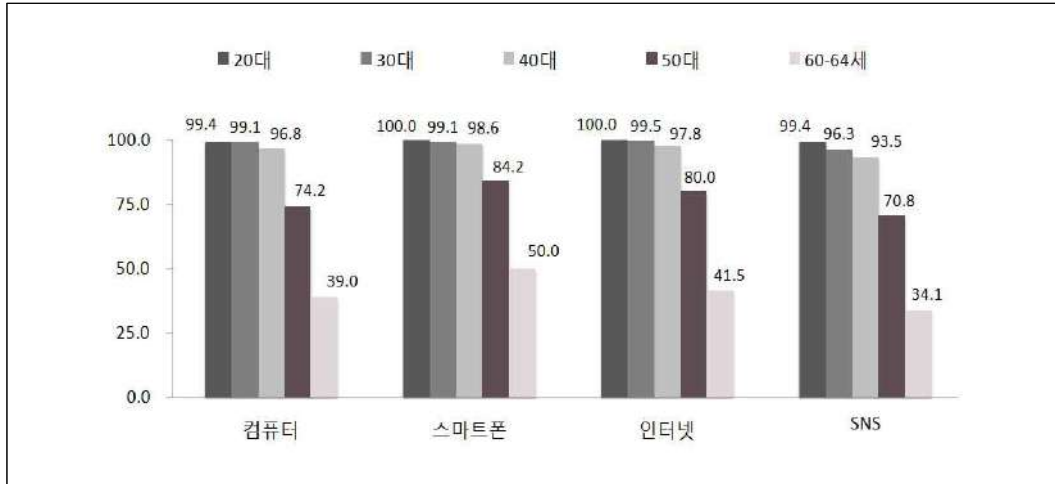
주: 각각의 정보화 기기/서비스를 사용할 줄 '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p < .01$ 에서 유의미함(스마트폰 제외).

○ 연령대별 정보화 실태(<그림 2-53> 참조)

- 20대~40대까지는 각 정보화 기기/서비스 이용 능력이 90% 이상이며 거의 유사한 수준임.
- 50대, 60-64세 연령대의 정보화 기기 이용 능력은 40대 이하 연령층과 확연히 차이가 남
- 50대는 컴퓨터 74.2%, 스마트폰 84.2%, 인터넷 80.0%, SNS 70.8%
- 60-64세는 컴퓨터 39.0%, 스마트폰 50.0%, 인터넷 41.5%, SNS 34.1%

〈그림 2-53〉 연령대별 정보화 실태

(단위: %)



주: 각각의 정보화 기기/서비스를 사용할 줄 '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집단별 차이는 모두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함.

○ 60-64세 연령층의 성별 정보화 실태(<그림 2-54 참조>)

- 정보화 실태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대체로 없었지만, 60-64세 장년층 연령대에서는 성별차이가 나타남.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능력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나타남.
- 컴퓨터 이용 능력은 남성 51.3%, 여성 27.9%로 나타남
- 인터넷 이용 능력은 남성 53.8%, 여성 46.2%로 나타남

〈그림 2-54〉 60-64세 연령층의 성별 컴퓨터·인터넷 이용 능력

(단위: %)



주: 60-64세 연령층에서 각각을 사용할 줄 '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성별 차이는 각각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함.

2) 평생교육 지원 정책 수요

- 평생 교육을 받고 싶다면 어떤 분야의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함
- 분야는 '기초/문자해독 교육', '학력보완 교육(검정고시 등)',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 '외국어 교육', '기타' 임

□ 평생교육 수요

- 응답자의 95.3%가 평생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에서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7%(47명)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8> 참조)
 - 성별로는 여성의 96.7%, 남성의 93.6%가 평생 교육 수요가 있음(<표 2-68> 참조)
 - 평생교육 수요가 가장 낮은 집단은, 학력별로는 중졸이하(72.8%), 연령대별로는 60-64세 연령층(78.0%), 직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83.3%) 등임. 이런 경우에도 타 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고, 절대적 수요가 적다고 볼 수 없음(<표 2-68> 참조)

〈표 2-68〉 평생교육 수요

(단위: 명, %)

구분		계	받고 싶은 교육 있음	기초/ 문자 해독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	외국어 교육	받고 싶은 교육 없음	χ^2
전 체		1000	95.3	21	1.8	20.1	7.4	19.4	4.6	13.9	25.9	4.7	
지역별	제주시 동	590	97.8	1.4	2.2	20.5	6.4	20.0	3.6	13.7	29.8	2.2	92.689**
	제주시 읍면	154	87.0	3.9	1.3	20.1	7.1	22.1	5.2	11.7	15.6	13.0	
	서귀포시 동	145	93.8	0.7	1.4	17.2	15.9	13.8	3.4	14.5	26.9	6.2	
	서귀포시 읍면	111	95.5	5.4	0.9	21.6	1.8	19.8	10.8	17.1	18.0	4.5	
동 읍면	동 지역	735	97.0	1.2	2.0	19.9	8.3	18.8	3.5	13.9	29.3	3.0	51.074**
	읍면 지역	265	90.6	4.5	1.1	20.8	4.9	21.1	7.5	14.0	16.6	9.4	
성별	남성	454	93.6	2.6	2.2	20.7	6.8	17.8	5.5	13.2	24.4	6.4	12.160
	여성	546	96.7	1.6	1.5	19.6	7.9	20.7	3.8	14.5	27.1	3.3	
연령	20대	181	99.4	1.7	1.1	23.2	3.3	19.3	2.2	7.7	40.9	0.6	199.61**
	30대	219	99.5	2.7	2.3	25.1	3.7	18.7	3.2	10.0	33.8	0.5	
	40대	278	97.5	1.1	0.0	19.8	11.5	17.3	4.3	18.3	24.8	2.5	
	50대	240	91.7	1.3	3.3	15.0	10.4	22.1	6.3	16.7	16.7	8.3	
	60-64세	82	78.0	7.3	3.7	15.9	3.7	20.7	9.8	14.6	2.4	22.0	

구분		계	받고 싶은 교육 있음	기초/문자해독 교육	학력보완 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	외국어 교육	받고 싶은 교육 없음	χ^2
학력	중졸이하	81	72.8	6.2	6.2	13.6	3.7	17.3	11.1	14.8	0.0	27.2	193.82**
	고졸	392	96.2	2.3	2.6	21.9	5.9	21.2	4.3	17.9	20.2	3.8	
	전문대졸	277	98.9	1.8	0.7	22.4	9.7	15.5	3.6	12.3	32.9	1.1	
	대졸이상	250	97.2	0.8	0.4	16.8	8.4	21.6	4.0	9.2	35.6	2.8	
직종	관리, 전문가	118	99.2	0.0	0.0	17.8	9.3	22.0	4.2	10.2	35.6	0.8	90.196**
	사무	136	97.8	1.5	4.4	19.1	9.6	19.9	2.9	10.3	30.1	2.2	
	판매, 서비스	394	95.9	2.5	1.5	20.3	7.9	18.8	5.6	14.2	24.9	4.1	
	농림어업	54	83.3	1.9	0.0	18.5	5.6	22.2	13.0	11.1	11.1	16.7	
	기능, 장치기계조립	74	91.9	4.1	0.0	18.9	4.1	16.2	2.7	23.0	23.0	8.1	
	단순노무	54	90.7	3.7	7.4	27.8	9.3	11.1	0.0	16.7	14.8	9.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69	88.8	4.1	1.8	20.7	3.6	24.3	4.7	13.0	16.6	11.2	81.535**
	200-299만원	240	95.4	2.1	2.9	22.5	7.1	22.1	3.8	14.2	20.8	4.6	
	300-399만원	246	97.6	0.4	2.4	18.7	7.7	19.1	4.5	16.7	27.6	2.4	
	400-499만원	146	95.9	2.7	0.7	19.9	7.5	19.2	2.7	11.0	32.2	4.1	
	500-599만원	93	96.8	1.1	0.0	18.3	7.5	9.7	10.8	15.1	34.4	3.2	
	600만원 이상	106	98.1	2.8	0.9	18.9	13.2	15.1	3.8	11.3	32.1	1.9	
장애 여부	장애	76	86.8	2.6	2.6	27.6	6.6	13.2	10.5	13.2	10.5	13.2	30.894**
	비장애	924	96.0	2.1	1.7	19.5	7.5	19.9	4.1	14.0	27.2	4.0	
혼인 상태	미 혼	237	99.6	2.5	1.3	24.5	4.2	19.8	2.1	9.7	35.4	0.4	53.000**
	기 혼	692	94.9	1.6	1.9	18.8	8.5	19.2	5.5	15.0	24.3	5.1	
	이혼, 별거	52	86.5	3.8	3.8	19.2	7.7	19.2	1.9	19.2	11.5	13.5	

주: '기타'(1명) 사례는 표에서 제외됨.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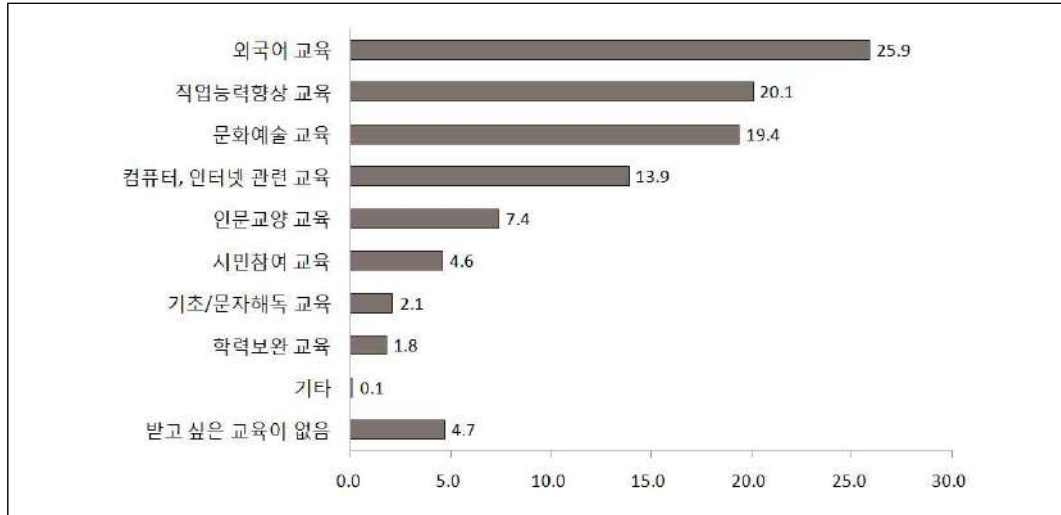
□ 평생교육 희망 분야

○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는 '외국어 교육'(25.9%)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직업능력향상 교육'(20.1%), '문화예술 교육'(19.4%),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13.9%), '인문교양 교육'(7.4%), '시민참여 교육'(4.6%), '기초/문자해독 교육'(2.1%), '학력보완 교육'(1.8%) 등임(<표 2-68>, <그림 2-55> 참조).

〈그림 2-55〉 평생교육 수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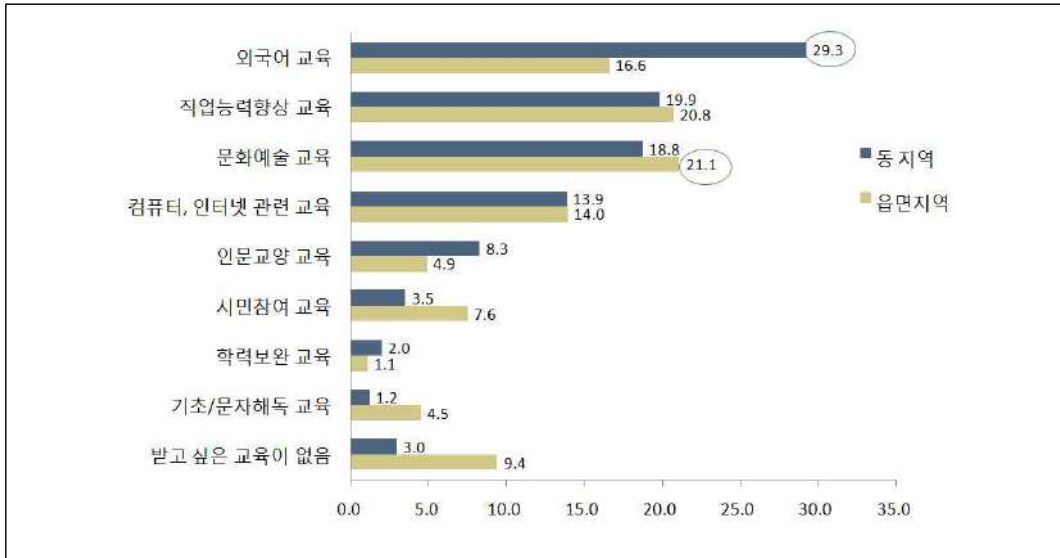
주: 모든 응답자 대상이며, 가장 받고 싶은 평생교육 내용 1순위에 대한 응답임.

□ 동·읍면 지역별 평생교육 수요

- 동지역 주민의 97.0%, 읍면지역 주민의 90.6%가 평생교육 수요가 있음
- 평생교육 희망 분야에 있어서 지역별 다소 차이가 나타남
 - 제주시 동 지역, 서귀포시 동 지역의 경우 1위는 '외국어 교육'(각각 29.8%, 26.9%)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시 읍면 지역의 1위는 '문화예술 교육'(22.1%)로 나타났고, 서귀포시 읍면 지역의 1위는 '직업능력향상 교육'(21.6%)으로 나타남
-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두 지역으로 구분할 때 평생 교육 수요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표 2-68>, <그림 2-56> 참조)
 - 동지역은 '외국어 교육'(29.3%), '직업능력향상교육'(19.9%), '문화예술교육'(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읍면 지역은 '문화예술교육'(21.1%), '직업능력향상 교육'(20.8%), '외국어 교육'(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6〉 동·읍면 지역별 평생교육 수요

(단위: %)



주: 가장 받고 싶은 평생교육 내용 1순위에 대한 응답임. '기타'(1명) 제외.

□ 여성의 연령대별 평생교육 수요

○ 여성의 연령대별 평생교육 수요(<그림 2-57> 참조)

- 20대의 100.0%, 30, 40대의 99.3%, 50,60대의 91.0%가 평생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의 평생교육 수요는 '외국어 교육'(43.3%)이 압도적 1위의 수요를 보임. 다음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21.1%), '문화예술 교육'(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0대, 40대의 경우, 평생교육 수요는 1위 '외국어 교육'(31.5%), '직업능력향상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이 각각 21.1%로 공동 2위, 다음으로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0대, 60대는 1위 '문화예술 교육'(23.2%), 2위 '직업능력 향상 교육'(18.1%), 3위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17.5%), 다음으로 '외국어 교육'(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연령대별 평생교육 수요(<그림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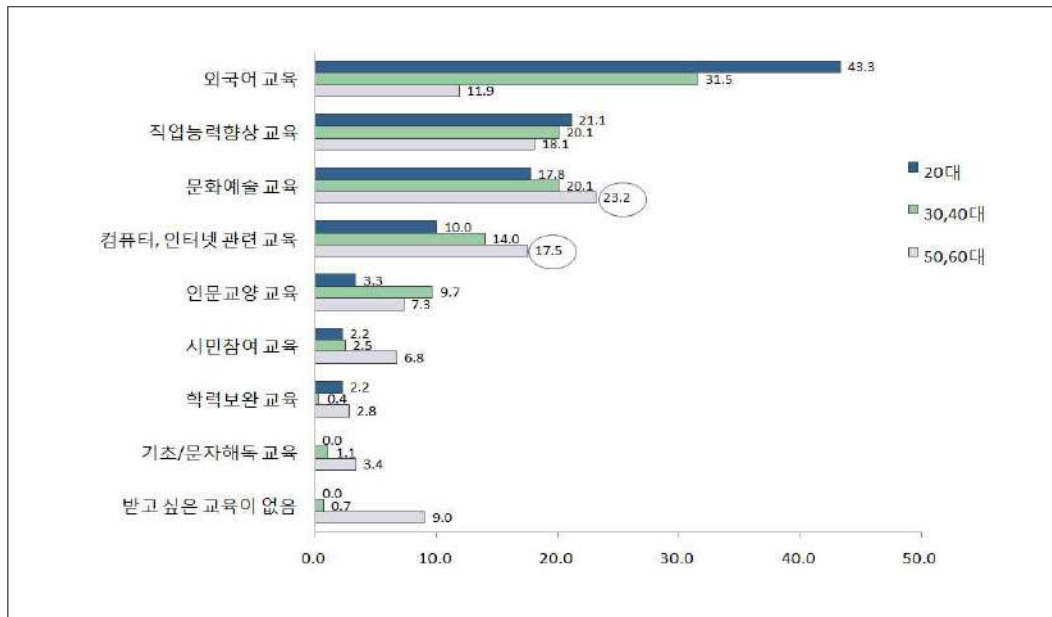
- 20대의 98.9%, 30, 40대의 97.2%, 50,60대의 84.8%가 평생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는 '외국어 교육'(38.5%), '직업능력 향상 교육'(25.3%), '문화예술 교육'(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30대, 40대는 '외국어 교육'(25.2%), '직업능력 향상 교육'(24.8%),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15.6%), '문화예술 교육'(1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0대, 60대는 1위 문화예술 교육(20.0%), 공동 2위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각각 14.5%), 다음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7〉 연령대별 평생교육 수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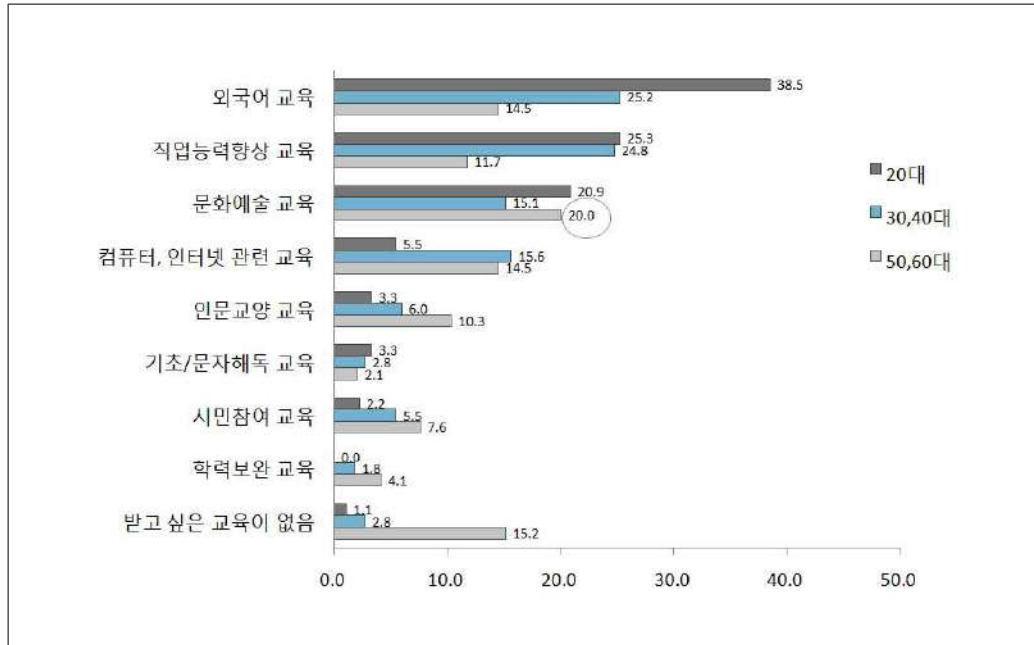
(단위: %)



주: 가장 받고 싶은 평생교육 내용 1순위에 대한 응답임.

〈그림 2-58〉 연령대별 평생교육 수요 (남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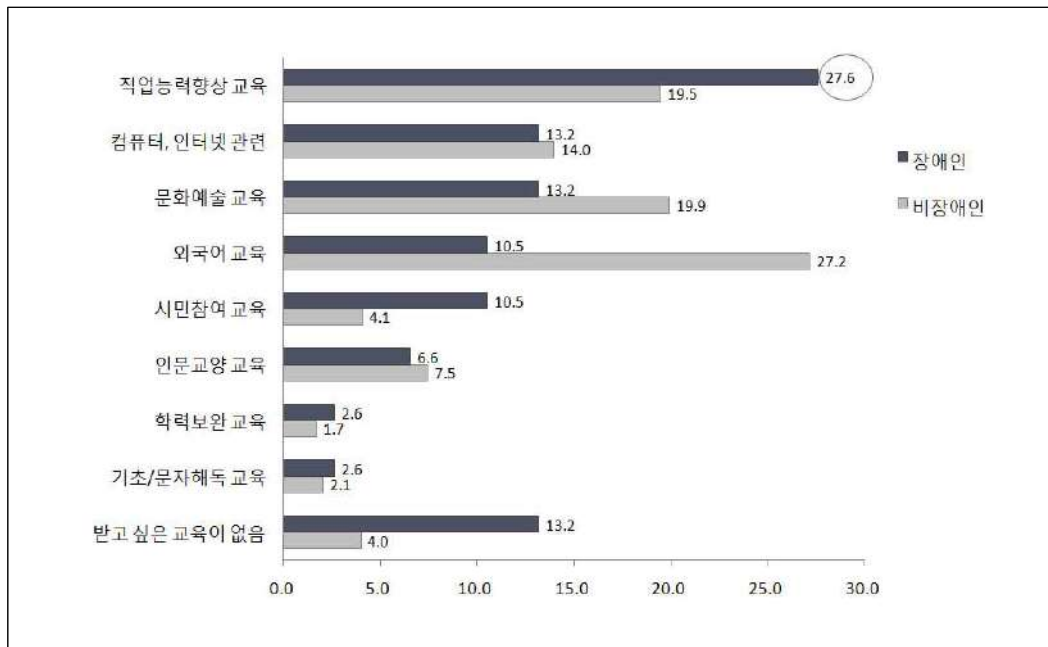
주: 가장 받고 싶은 평생교육 내용 1순위에 대한 응답이며, '기타'(1명) 제외.

□ 장애여부별 평생교육 수요(<표 2-68>, <그림 2-59>)

- 장애인의 86.8%, 비장애인의 96.0%가 평생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평생교육 희망 분야를 살펴보면 1위 '직업능력 향상 교육'(27.6%), 공동 2위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각각 13.2%), 공동 3위 '외국어 교육'(10.5%), '시민참여 교육'(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장애인 평생교육 희망 분야는 1위 '외국어 교육'(27.2%), 2위 '문화예술 교육'(19.9%), 3위 '직업능력향상 교육'(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직업능력향상 교육에 대한 수요가 우선순위에서 앞서고, 그 수요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임

〈그림 2-59〉 장애여부별 평생교육 수요

(단위: %)



주: 가장 받고 싶은 평생교육 내용 1순위에 대한 응답이며, '기타'(1명) 제외.

요약 및 정책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을 위한 제언

1.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가. 양성평등 부문

□ 양성평등 수준 인식

- 제주지역 20-64세 성인 남녀는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보통’ 이하로 낮게 평가함. 제주사회 전반에 대한 양성평등 수준에 대하여 응답자의 14.3%만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7점 척도의 평균은 3.60점(‘보통’ 4점)으로 낮음
- 사회부문별 양성평등 수준은 ‘사회활동과 참여’ 3.71점, ‘정치 참여’ 3.52점, ‘임금·소득’ 3.41점, ‘직장생활, 승진 등’ 3.36점, ‘가사, 육아, 가족생활’ 3.29점으로 나타남
- 모든 부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불평등 인식하고, 특히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의 성별 인식 격차 가장 큼(남성 3.57점, 여성 3.05점)
- 혼인상태, 연령별 인식 차이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모든 사회부문에서 이혼·별거한 사람들일수록 미혼자나 기혼자에 비해 제주사회가 양성평등하지 않다고 인식함.
- 연령대별로는 ‘직장생활, 승진 등’의 고용 부문과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나며, 두 부문 모두 30대가 가장 성 불평등하다고 인식함

□ 양성평등 제주사회 위한 정책 수요

-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 1위 ‘여성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21.7%), 2위 ‘가사 및 육아부담의 남녀불평등 개선’(17.2%), 3위 ‘일반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인식 개선’(16.6%), 4위 ‘기업, 조직, 직장의 성차별 문화 개선’(14.1%) 등
- 성별 양성평등 정책 수요 1순위
- 남녀 모두 1위는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2위는 ‘남성의 가부장적 인식 개선’
- ‘가사, 육아 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 정책 수요의 남녀 인식 격차 큼 : 여성의 13.7%(우선순위 3위), 남성의 8.1%(우선순위 8위)

□ 정책 시사점

-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강화 필요
 - 제주도민이 인식하는 제주사회는 양성평등하지 않고, 사회부문별로는 가족생활부문과 '직장생활, 승진 등' 고용 부문이 가장 성불평등하게 인식됨. 이는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지수」와 일관된 결과를 드러내면서 제주 지역 성평등지수 개선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여성가족부의 '2014년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사노동시간 성비', '관리자 비율의 성비' 등 가족생활과 관리직 직업지위 측면에서 성평등지수가 낮음(<표 1-6> 참조). 본 조사에 나타난 도민의 주관적 인식도 지역성평등지수의 객관적 지표현황과 일관된 결과를 드러냄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제1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제4조)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정부는 양성평등책임관 지정을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 공무원 성인지 교육 및 지역성평등지수 운영을 법령에 최초로 명시하는 등, 양성평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침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성평등지수를 향상시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여성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조사결과,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남녀 모두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나타남. 청년 여성을 비롯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여성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 특히 여성의 전문역량이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책 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 일상생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의 인식 개선과 남녀의 소통 필요
 - 조사 결과, 30대 연령층의 가족생활 및 직장생활 성 불평등 인식이 타 연령층보다 높음. 자녀 출산·양육의 주 연령대인 30대가 가족과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성 불평등은

경력단절 갈등, 남녀 역할 갈등, 전반적인 일·가정 양립 갈등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혼자나 기혼자에 비해 이혼·별거자일수록 모든 부문에서 성 불평등 인식이 높음. 이는 이혼·별거자들이 실제로 성 불평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역으로 성 불평등이 이혼·별거의 원인이 될 것으로도 해석됨
- 자녀 출산·양육기 여성의 높은 성 불평등 인식, 그리고 성 불평등이 가족해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남성들은 '가사, 육아 부담의 남녀 불평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이 낮음
-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 특히, 남성의 **가사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제적 생활 개선을 위한 부부 및 가족참여형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나. 여성가족 정책 부문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안다' 9.1%. 5점 척도의 평균은 2.42점
 - 성별 평균 차이는 없지만 '안다'는 응답은 여성 7.5%, 남성 11.0%로 여성이 낮음
- 사회적 취약집단일수록 정책 인지도 낮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고(2.59점), 60-64세(2.15점) 및 20대 청년층(2.27점)의 인지도 낮음
 - 학력수준별로는 4년대졸 이상(2.57점)이 가장 높고, 중졸이하(2.20점)가 가장 낮음
 -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자(2.46점) 대비 미취업자의 인지도(2.22점)가 낮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수요

-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가족 정책 수요
 - 1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6.0%)로 나타남.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18.9%), 자녀돌봄 지원(17.7%), 양성평등 문화 확산(16.3%), 여성폭력 근절과 안전(8.5%), 건강가정지원(6.7%), 취약 여성·가족 복지 증진(4.1%), 여성

건강 지원(1.8%)의 순으로 나타남

○ 행정시 및 동·읍면 지역별 여성·가족 정책 수요

- 행정시별로 1위를 살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동일하지만, 2위에 있어 제주시는 일·가정 양립, 서귀포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나타남
- 동·읍면지역별로 비교하면, 동 지역의 1위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8.7%), 읍면지역의 1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21.1%)으로 나타남

○ 성별 여성·가족정책 수요

- 남녀 모두 1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28.9%)로 나타남
- 성별 차이는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두드러짐(여성 2위, 남성 4위)

□ 정책 시사점

○ 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도민의 여성·가족 정책 인지도 낮고, 특히 취약집단의 인지도가 낮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홈페이지 활성화, 홍보 팸플렛 제작·배포,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개최, 방송·언론매체 활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 및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도민의 정책접근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보 접근도가 낮은 취약집단을 위하여 동·읍면사무소, 보건소, 복지관 등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기관, 또는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주 여성·가족 정책의 지역 균형, 특히, 읍면지역의 양성평등 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 여성·가족 정책 수요에 있어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및 동·읍면지역별 차이가 나타남. 두드러지는 특성은 서귀포시나 읍면지역은 제주시나 동 지역에 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다는 것임
- 여성정책 서비스의 지역 균형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서귀포 지역 및 읍면지역은 양성 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실제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음

- 서귀포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정책 서비스 기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폭력 관련 기관 등) 설치 논의를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음

다. 경제활동 부문

□ 제주 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

○ 제주 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

- 1위 '여성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 창출'(23.1%), 2위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20.6%), 3위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14.3%), 4위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남녀차별 해소'(13.7%), 5위 '청년 여성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13.6%), 6위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8.8%) 등의 순으로 나타남(여성의 응답 순위는 전체 순위와 동일)

□ 구직자의 취업 수요

○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는 전일제 39.0%, 시간제 61.0%로 나타남
-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는 시간제(67.7%), 서귀포시는 전일제(64.7%)를 선호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은 시간제(67.2%), 남성은 전일제(57.2%) 좀 더 선호함
- 현재 구직중인 경력단절 여성의 80.0%가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전일제(58.3%), 30대 이상은 다수가 시간제를 선호함

○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유형

- '공무원·공공기관'(34.1%), '자영업·창업'(28.5%), '일반 회사 취업'(25.2%),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 기업 등'(12.2%)(순위에 있어서 성별 차이 없음)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공무원, 공공기관'(55.1%), 3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창업'을 선호함.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다수가 '자영업·창업' 선호하며 일반 회사 취업 희망자 없음

- 경력단절 여성은 '자영업·창업'(39.1%), '공무원, 공공기관'(28.3%), '일반 회사'(19.6%) 등의 순으로 선호함

□ 취업·창업 애로 사항

- 제주사회에서 (재)취업·창업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려운 점
 - 1위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25.3%), 2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23.0%), 3위 '주위에 일자리 자체 부족'(18.5%), 4위 '사업 자금 부족'(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취업·창업 애로 사항
 - 여성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23.8%), 남성은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 힘들'(28.2%)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등의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은 여성의 13.0%(어려움 4위), 남성의 2.0%(7위)를 차지함
 -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등의 부담'(37.3%)이 취·창업 어려움 1위로 나타남

□ 취업지원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제주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인지도
 - 고용센터(75.3%), 설문대여성문화센터(64.3%), 농업기술원(60.4%), 여성인력개발센터(56.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20.9%), 여성새로일하기센터(20.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8.1%)
 -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여성의 인지도가 서귀포시 여성의 인지도보다 높은 편임
 - 동·읍면 지역별로는 동 지역 여성의 인지도가 읍면지역 여성의 인지도보다 높음
- 제주 여성의 도내 취업·창업 지원 기관 이용 경험
 - 여성들의 취·창업지원 기관 이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음 : 고용센터 29.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1.7%, 여성인력개발센터 16.6%, 농업기술원 1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9.9%,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2.0%,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0.9%
 - 취·창업 지원 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대다수(82%~100%)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경력단절 여성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23.7%만 '안다'고 응답하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의 8.3%만 이용 경험 있음

□ 취업 상담 · 교육 참여 의향 및 희망 프로그램

○ 취업 상담 · 교육 참여 의향

- 전체 응답자(1,000명)의 51.4%가 참여 의향 있음
- 여성의 52.9%가 향후 (재)취업 · 창업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고, 경력단절 여성 : 57.6%가 교육 참여 의향 있음
-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참여 의향(65.9%)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 의향이 낮아짐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61.0%), 대졸 이상(58.2%), 고졸(51.0%), 중졸 이하(24.4%)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 · 창업 교육 참여 시 고려 사항

- 여성은 '취업 · 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5.1%),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24.7%),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의 유연성'(1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여성)로 보면, 20대~40대는 실제 취업 연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50대는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 60-64세는 교육기관과의 거리 및 교통편의를 중요하게 고려함. 30대 여성은 '교육 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5.7%)을 타 연령대보다 가장 높게 고려함
-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 · 창업과의 실제 연계성'(25.4%)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한편, 경력단절 여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교육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 여성이 희망하는 취업 · 창업 교육 프로그램

- 가장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요리 · 조리'(18.7%). 다음으로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12.7%), '컴퓨터 관련'(9.0%), '전문강사 교육'(8.9%), '간병, 요양보호사'(8.2%), '텃밭 가꾸기, 농식품 가공 등 농업 관련'(7.3%), '사무업무 관련'(7.1%), '아이돌보미 등 관련 지도사'(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별프로그램으로는 '요리·조리'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지만, 직업 분야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교육서비스 관련, 기능·기술 습득 관련, 사무직군 관련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음

□ 정책 시사점

-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는 다각화 되어가는 반면, 취·창업 정보 부족, 근로조건 매치 및 일자리 부족의 문제로 취·창업 어려움.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 강화 필요
- 구직자가 찾는 일자리 유형은 일반회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자영업·창업,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 다양하고, 시간제 일자리 수요도 높음. 특히, 연령, 경력단절 여부, 혼인상태 등 구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양함
- 도의 일자리 정책은 취·창업 정보의 적극적 홍보, 구직자와 기업 간의 근로조건 매치,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합적 전략이 필요함
-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 및 여성의 수요 반영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 여성들의 취·창업 상담·교육 참여 의향이 높고, 실제 취업 가능성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도 높음. 여성의 안정적 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에 이르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의 전문화와 내실화가 필요함
- 30대 이상 여성의 자영업·창업(프리랜서 포함) 수요가 상당히 높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사업장 설치·지원 등 안정적 인프라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제주지역 시간선택제 여성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지원 필요
- 조사결과, 미취업 여성,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높음. 공공 및 민간 사업장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새일센터 구직 여성의 시간선택제 취업처 알선 등 여성의 수요에 맞는 적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민선6기 일자리 사업의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
 - 민선6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일자리 정책 및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기반 산업 육성(관광산업, 의료관광산업, 청정자원을 이용한 융합산업, 화장품산업, 향노화산업, 향토산업 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민선6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기반 특화산업에서 여성의 창업 유도 및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여성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성별영향평가분석이 필요함

라. 일·가정 양립 부문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성, 연령대, 영유아자녀 유무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 전체 응답자의 46.2%, 여성의 55.4%, 남성의 35.1%가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함
 - 맞벌이, 외벌이 가구와 상관없이 여성의 일·가정 어려움이 남성보다 월등히 큼
 - 연령별 어려움은 30대(3.65점)가 가장 크고, 20대(3.15점), 60-64세(3.11점)가 상대적으로 적음
 -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3.78점), 영유아자녀가 없는 경우(3.42점)보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
 - 경력단절 여성의 74.6%가 현재 일을 한다면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응답함
 - 여성취업 특성별로 비교하면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경력단절 여성(3.93점), 맞벌이 여성(3.71점), 외벌이 여성(3.62점)의 순으로 높음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도 및 평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 육아휴직 제도(85.2%), 출산전후 휴가제도(81.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70.3%)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가족돌봄휴직 제도(38.5%), 탄력 근무제도(32.4%),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25.3%)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음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 4점 척도(1 전혀 안 됨 ~ 4 매우 잘 됨) 기준으로 보면, 출산전후 휴가제도 2.60점, 육아휴직 제도 2.55점,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24점, 가족돌봄휴직 제도 2.15점, 탄력 근무제도 2.05점,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1.94점으로 나타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수요

○ 제주도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수요 1순위

- 1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8.6%), 2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23.5%), 3위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지원'(18.7%), 4위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확대'(12.0%), 5위 '시차출퇴근, 재택,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11.7%), 6위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하는 제도문화 확산'(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이 25.6%로 가장 높고, 그 외 연령대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1위로 나타남

□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 성별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제고 위한 정책 수요

- 여성은 '아빠교실, 남편교실 등 남성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30.8%), 남성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7.5%)을 1위로 선택. '아빠교실, 남편교실 등 남성의 인식 개선 교육 확대'에 대한 남성의 수요는 18.3%에 불과하여 성별 격차가 큼

□ 정책 시사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홍보, 기업 및 근로자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일·가정 양립은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정책 현안이라 볼 수 있음. 도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는 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직 제도 등 일부 정책에 국한되어 있음. 근로자가 자신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예컨대,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이지만 이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와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저조함).

- 또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내 인사, 노무 관리 등 규칙 재정비에 필요한 내실 있는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함

○ 제주지역 일·가정 양립 지표 관리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일·가정 양립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조직문화 변화,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정착,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함
-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가정의 날' 운영, 사회복지사 대체 인력 운영, 육아휴직 제도 운영 등의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일·가정 양립 지표의 통계 생산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지표체계」(통계청, 2014)를 개발하여 2014년부터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표체계를 반영한 제주지역 일·가정 양립 지표 개발 관리 및 공표를 통하여 제주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한편,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들은 부서 특성에 따라 '근로자 사기진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목표 내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업들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라는 통일된 용어로 공용화됨으로써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보편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매월 1회 운영되는 제주도정 시책간부회의를 중심으로 인식 개선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인식 개선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수요에서 남성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는데, 근로시간 단축 수요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함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심각하고, 여성정책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남성의 인식은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음. 현재 건강 가정지원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교실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남성의 인식 개선을 통한 가사·육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마. 자녀돌봄 및 가족생활 부문

□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 성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 남성은 '자녀를 돌봐 줄 사람 찾기 어려움', '직접 자녀 돌볼 시간 부족', '양육비 부담'이 각각 19.2%로 공동 1위로 나타남
- 여성은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 어려움'이 25.0%로 1위로 나타남
- 여성에게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나 어린이집을 찾는 문제보다도 자녀 양육과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이 남성의 경험과 대조적인 차이 중 하나임

○ 여성의 취업상태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

- 취업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 부족'(25.4%), 미취업 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의 어려움'(32.0%)으로 나타남

○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정책 수요

- 1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5.1%), 다음으로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24.7%), '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12.8%) 등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50대, 60-64세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1위, 30대, 40대는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가 1위로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은 1위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29.5%), 외벌이 가정은 1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3.2%)로 나타남

□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

○ 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어려움

- 1위 '양육 및 사교육 비용 부담'(35.4%), 2위 '직접 자녀를 돌봐 줄 시간 부족'(16.0%), '자녀의 학습지도 및 인성교육'(16.0%), 3위 '방과후 돌봄 문제'(10.9%),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의 어려움'(8.5%),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7.6%) 등의 순

○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양육 지원 정책 수요

- 정책 수요 1위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43.3%)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교육비 지원'(18.3%), '휴일, 방학동안 자녀 급식 등 돌봄 서비스 제공'(14.0%), '자녀 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상담교육 제공'(10.3%) 등의 순

□ 건강가정지원 정책 수요

- 응답자의 대다수가 각각의 건강가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과반수가 이용 의향 있음
- 정책의 필요성을 보면 가족교육 91.1%, 가족상담 90.7%, 자녀돌봄 87.8%, 가족문화 85.7%로 나타났고, 이용 의향은 가족상담 66.1%, 가족교육 65.6%, 가족문화 55.6%, 자녀돌봄 54.6%로 나타남

□ 정책 시사점

○ 여성의 취업상태별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시사점

- 취업여성은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런 경우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취업 여성들이 육아휴직, 탄력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미취업여성에게도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다양함. 자녀를 직접 돌보는 미취업 모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시간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고, 본인 대신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취업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조사데이터에서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미취업여성(25명)의 92.0%(23명)가 경력단절 여성, 즉 자녀 양육부담으로 인한 취업중단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취약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육서비스가 미취업모 가정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육아나눔터 등의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확대 필요

-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가 1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

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수요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인 1위를 드러내던 과거의 보육 수요와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음

- 초등학생을 위한 정책 수요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 지역사회 육아나눔터 운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가족 대상 건강가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필요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확산 등 건강가정 지원 정책의 높은 수요 대비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개소에 불과하여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큼
- 조손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정착주민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바. 지역사회 안전 부문

□ 지역사회 안전수준 인식

○ 지역사회의 분야별 '안전' 수준 인식

- '안전'하다는 인식은 가정폭력 47.7%, 성폭력 46.8%, 강도/절도 44.2%, 야간보행 36.2%로 나타남.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가정폭력 3.45점, 성폭력 3.42점, 강도/절도 3.36점, 야간보행 3.18점으로 나타남

○ 성, 동·읍면지역별 지역사회 안전수준 인식

- 성폭력, 야간보행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 성폭력에 대한 안전도는 여성 3.35점, 남성 3.51점으로 나타났고, 야간보행 안전도는 여성 3.12점, 남성 3.24점으로 나타남(5점 기준)
- 지역별 차이를 보면,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감은 제주시 동지역 3.26점, 제주시 읍면지역 3.29점, 서귀포시 동지역 3.36점, 서귀포시 읍면지역 3.41점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방법 취약 지역 CCTV 설치’, ‘경찰의 순찰 강화’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여성과 아동을 위한 택시 등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폭력 예방 등 각종 안전 관련한 교육 확대’, ‘독거 여성을 위한 방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84~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호신술 등 폭력대응 위한 체력단련 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71.1%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지역 및 성별 지역사회 안전 정책 수요
 -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의 정책 수요가 높고, 다음으로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나타남
 -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정책 수요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 가정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 1위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42.4%), 다음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37.1%),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9.1%),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습 개선’(7.9%), ‘가정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3.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폭력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 ‘성폭력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가 58.2%로 압도적인 1위.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23.4%), ‘지역 내 우범지역 개선 및 치안유지’(7.9%),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6.4%), ‘성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2.7%)의 순으로 나타남
- 성매매 방지 위해 필요한 정책
 - 1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44.3%). 다음으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확대'(16.2%), '성 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정 대처'(15.7%), '성매매 발생지역 및 시설 단속 강화'(13.1%),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 시설 지원 확대'(6.2%),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4.5%)의 순으로 나타남

□ 정책 시사점

- 지역별 도민의 안전 수준 인식에 차이 많고, 성별 안전감 격차 큼
 - 동·읍면지역별 도민의 안전수준 인식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제주시 구도심, 서귀포시 동 지역 주민의 안전 인식이 낮음. 성별로는 여성의 안전감 인식이 낮음
 -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 관련 사업 및 원도심 도시 재생사업 등의 도시 개발 사업, 그 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 및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폭력 발생 현장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경찰, 1366, 해바라기센터,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 등 여성 폭력 관련 기관들 간에 신속한 연계를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통합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사. 여성 복지 증진 부문

□ 농촌 여성의 어려움

- 농촌 여성의 어려움 (읍면 지역 여성 응답)
 - 압도적 1위는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의 어려움'(60.0%)으로 나타남
 - 공동 2위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과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로 제약이 많음'(각각 8.2%)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사회활동, 문화활동, 자기개발 기회

부족(5.2%), '육아, 돌봄 등 가족부양의 어려움'(5.2%)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촌 여성 지원 정책 수요

- 읍면 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농촌 여성을 위한 복지 증진 정책
 - 1위 '가사와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번기 급식서비스 제공'(27.4%). 공동 2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4위 '농촌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여성 경영인 등록률 제고'에 대한 수요는 5.9%로 농기계 사용,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수요보다 높음

□ 여성 장애인 지원 정책 수요

- 여성 장애인이 생각하는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수요
 -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제도 활성화'(39.5)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 다음으로 '장애인 맞춤형 직업 개발, 직업 훈련 등 경제활동 지원'(18.4%)
 -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 장애인 맞춤형 경제활동 지원 등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가 상위 57.9%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사회참여 지원 확대', '임신, 출산, 자녀양육, 자녀 학습 지원',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각각 10.5%로 공동 3위

□ 정책 시사점

- 농촌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필요
 - 읍면지역 여성의 60.0%가 농사와 가사일 병행 어려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번기 자녀돌봄 지원 등을 통하여 농촌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에 특화된 여성 소득활동 및 취업지원 교육 필요
 - 읍면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농촌여성의 어려움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이 2위로 나타났고, 농촌여성 복지증진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이 2위로 높게 나타남

- 농촌여성을 위한 창업아이템 발굴, 취업처 발굴, 취·창업 직업교육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향후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강화 필요

-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장 확대, 장애인 맞춤형 경제활동 지원 등 경제활동 지원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음
- 여성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장 지원 사업 지속 확대, 도내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수혜가 양성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강화 필요

아. 건강, 여가·문화, 교육 부문

□ 여성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 여성이 원하는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 1위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21.6%). 다음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20.7%)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20.2%)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음

○ 여성의 연령대별 건강 증진 지원 정책 수요

- 20대, 30대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각각 31.1%, 35.8%), 40대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25.6%), 50대는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건강증진 지원'(30.6%), 60-64세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25.6%)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여가·문화생활 지원 정책 수요

- 여가활동 시간(1주일 기준, 평균 시간)
 - 남성 7.2시간, 여성 6.3시간으로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여가생활의 어려움
 - 남녀 모두 '시간 부족', '주위에 마땅한 시설, 프로그램 부족', '돈 부족'이 동일하게 상위 3위로 나타남
 - 성별 가장 큰 차이는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부담'으로, 여성의 18.1%, 남성의 7.5%가 동 항목을 여가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함
-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 모든 연령대에서 '저렴한 비용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를 1위로 선택함
 - 다음으로, 20대, 60대, 60-64세는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여가시설 확대', 30대는 '가족단위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 40대는 '주말, 저녁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 확대'를 선호함

□ 정보화 실태 및 평생교육 지원 정책 수요

- 정보화 기기 이용 능력
 - 핸드폰 99.2%, 스마트폰 91.5%, 인터넷/SNS 89.7%, 컴퓨터 87.6% 이용 가능
 - 읍면지역 주민이 동 지역 주민보다 정보화가 약함(특히 컴퓨터, SNS 이용 능력 격차 큼)
- 연령대별 정보화 실태
 - 20대~40대까지는 각 정보화 기기/서비스 이용 능력이 90% 이상이며 거의 유사한 수준임. 50대의 경우, 컴퓨터 74.2%, 스마트폰 84.2%, 인터넷 80.0%, SNS 70.8%로 나타나고, 60-64세는 컴퓨터 39.0%, 스마트폰 50.0%, 인터넷 41.5%, SNS 34.1%으로 매우 낮아짐
- 60-64세 연령층의 성별 정보화 격차
 - 컴퓨터 이용 능력에 대해서는 남성 51.3%, 여성 27.9%, 인터넷 이용 능력에 대해서는 남성 53.8%, 여성 46.2%로 장년층 성별 정보화 격차가 큼

○ 평생교육 지원 정책 수요

- 응답자의 95.3%가 평생교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여성 96.7%, 남성 93.6%)

○ 평생교육 희망 분야

- 가장 수요가 높은 분야는 '외국어 교육'(25.9%). 다음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20.1%), '문화예술 교육'(19.4%),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13.9%), '인문교양 교육'(7.4%), '시민참여 교육'(4.6%), '기초/문자해독 교육'(2.1%), '학력보완 교육'(1.8%) 등임

○ 연령대별 평생교육 희망 분야(여성)

- 20대는 '외국어 교육'(43.3%)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고, 30대와 40대 역시 1위는 '외국어 교육'(31.5%)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는 '문화예술 교육'(23.2%)이 1위로 나타남

○ 장애여부별 평생교육 희망 분야

- 장애인의 경우 1위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27.6%)으로 나타났고, 공동 2위로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각각 13.2%), 공동 3위로 '외국어 교육'(10.5%), '시민참여 교육'(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희망 분야 1위는 '외국어 교육'(27.2%), 다음으로 '문화예술 교육'(19.9%), '직업능력향상 교육'(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책 시사점

○ 여성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여성의 건강 증진 지원 정책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임상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이용에는 접근성이 떨어짐
-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체력 단련 및 상담 지원 서비스가 병행된 여성의 스트레스 관리실을 운영하기도 하는데(고지영 외, 2011), 제주사회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해 볼 수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반여성을 위한 상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원 인건비 등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남녀 간 여가활동시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조사결과, 여가활동시간의 성별 격차가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지수」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가시간 성비’ 지표에서 16개 지자체 중 16위로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표 1-6> 참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들이 여가활동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여성의 고령화가 높은 제주 지역의 고령층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 20~50대까지는 성별 정보화 격차가 없으나, 60세 이상 연령층의 성별 격차가 나타남.
 -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지수」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인터넷 이용률 성비’ 지표에서 16개 지자체 중 11위로 성평등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표 1-6> 참조). 이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제주사회의 인구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임. 고령층 인구의 성별 정보화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을 위한 제언

- 아래에서는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도민의 여성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각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음

<표 3-1> 분야별 여성정책 과제 제안

분야	정책 과제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전반	①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개선 ② 여성정책 서비스의 지역 균형 개선 ③ 제주특별자치도 온오프라인 여성정책 홍보 다각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	①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전략단 구성 · 운영 ② 여성 인력 구인 · 구직 매치 위한 언론 협력 구축 ③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컨설팅, 시간제일자리 DB 구축 등) ④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의 내실화 ⑤ 농촌여성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새일센터)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컨설팅 지원 ② 제주 일·가정 양립 제도 지원 인프라 구축 ③ 제주형 일·가정 양립 지표 개발 · 관리 ④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자녀돌봄 지원	① 지역사회 육아나눔터 운영 및 점진적 확대 ②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등 다양한 어린이집 확대
지역사회 안전	① 제주특별자치도 안전 · 도시개발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② 여성폭력 통합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가.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전반

①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개선

○ 필요성

-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성평등지수의 생산기관은 여성가족부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대상이자 지수 관리의 주체로서 성평등 지수 개선 대응 마련이 필요함

○ 현황

- 「지역성평등 지수」는 8개 영역, 2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주지역의 성평등 지수는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몇몇 개별 지표는 하위권에 속하며, 하위권 지표의 일부는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1개 지표 중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10위 이하인 지표는 10개 지표임 : 광역의원 성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평균교육년수 성비, 건강관련 삶의 질,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가시간 성비, 여가 시간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주재선 외, 2014, p.243)
- 본 연구의 조사결과, 관리자 비율 성비와 관련하여 '직장생활, 승진 등' 고용 부문과 '가사, 육아 등 가족생활' 부문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도민 평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강도/절도/야간보행 등과 관련한 지역 안전감,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장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음

○ 추진 내용

- 제주지역이 하위권에 속하는 지표 관련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수립
 - 하위권 지표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평균교육년수 성비, 건강관련 삶의 질,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 가사노동시간 성비, 여가시간 성비, 여가시간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
 - 위의 지표 관련한 담당 부서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하여 담당 부서 공무원의 성평등정책 관심과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제고

② 여성정책 서비스의 지역 균형 개선

○ 배경 및 현황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으로 제주시 주민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수요가 가장 높았으나, 서귀포시(특히 읍면지역)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인개발센터, 여성문화센터, 여성폭력 관련 기관 등은 제주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여성들은 정책 수혜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고,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서비스 기관 인지도도 낮은 편임

- 그동안 제주사회에서는 여성정책 서비스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서귀포 지역의 인프라 부족 등 여성정책 서비스의 지역 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추진 내용

- 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폭력 관련 단체 등, 서귀포 지역에 양성평등정책 서비스 기관 설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론화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정책 관련한 새로운 인프라를 추가·설치하게 되는 경우 서귀포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③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

○ 배경 및 현황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제주도민의 여성정책 인지도는 매우 낮음. 제주도민의 여성정책 인지도 강화 및 정책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취약집단의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 홈페이지 활성화 : 여성가족정책 소개 및 관련 분야 링크를 통한 원스톱 정책정보 서비스 사이트로 개발함
- 제주 여성·가족 정책 모바일 앱 개발·홍보 : 본 조사 결과, 20-64세 도민의 91.5%가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함.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홍보가 필요함
- 정책 홍보 팸플렛 제작·배포 : 도·시청,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보건소, 복지관 등 지역주민(특히 취약집단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에 비치
- TV, 라디오 등 지역 방송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

나. 여성 경제활동 지원

①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전략단 구성·운영

- 필요성 : 제주 여성 정책 수요 중 '경제활동 지원 정책'수요가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

개발은 미흡한 실정임

- 목 적 : 제주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지원 종합 대책 마련
-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활동 담당
- 협력기관 :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주시, 서귀포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제주대학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추진사업
 - 제주 여성 일자리 포럼 개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농촌 여성 등 대상별 정책 발굴)
 - 제주 여성 일자리 개발 연구 (여성가족연구원)
 - 제주 사업체 여성 인력 수요 조사 (여성가족연구원)
 - 도내 여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관련 기관 사업 평가·분석 (여성가족연구원)
 - 민선6기 일자리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도+여성가족연구원)

② 여성 인력 구인·구직 매치 위한 언론 협력 구축

- 배경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제주사회에서 취·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취·창업 정보 부족, 근로조건 미스매치의 문제, 일자리 부족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도내 여성 취업 지원 기관에 대한 도민 인지도는 매우 낮음. 특히, 이러한 기관들은 현재 구인·구직 광고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정보의 홍보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접근성이 약한 실정임
 - 도의 일자리 정책은 취·창업 정보의 적극적 홍보,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매치, 맞춤형 취업 지원 교육 및 취업 연계의 통합적 전략 필요
 - 사업 내용
 -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여성 취업지원 기관과 도내 주요 언론사와의 MOU 체결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의 언론 홍보 강화
- ※ 사례: 제주고용센터는 지역 언론사(제주매일)와 MOU체결을 통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사람과 일을 하나로 이어주는 고용센터 구인정보” 광고(지면 반면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향후 추진 방향

- 지역정보지(오일장, 교차로 등)의 대중적 인지도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구인·구직 광고를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방안 마련(예산 확보 등)

③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배경 및 현황

- 정부의 고용률 70%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 채용 목표 등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침임(민간부문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지원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현재 구직중인 미취업자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대다수가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이 2014년 처음 도입되어 2015년에 최초로 12명(도청 2, 제주시 8, 서귀포시 2) 임용함(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내부자료). 향후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분야 발굴,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발굴 등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지속 확대
- 시간제 일자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시간제 일자리 도입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문화, 임금체계, 인사관리 등 일자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고용노동부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매칭)
- 공공 및 민간 부문 시간제 일자리 정보 DB 구축 및 홍보 강화 : 우리나라의 구인·구직 정보(워크넷 등)체계는 전일제 노동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제주고용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간제 일자리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시간제 일자리 정보가 DB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정보에는 근무시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전일제/시간제로 식별할 수 있는 분류 코드를 생성하여 일자리 정보의 DB화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④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의 내실화

○ 배경 및 현황

- 여성의 취업지원과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 여성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 내실화가 필요함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재직자 및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상담 교육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참여 시 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도내 여성들이 선호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상위권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교육 분야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함. 예컨대, <사회복지사·전문강사·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관련지도사>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36.7%를 차지함
- 여성들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기관 이용률을 제고하고 기관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 : 도내 구직여성들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사회복지 분야, 전문 강사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경력단절 위험이 높은 20, 3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여성들을 위한 경력개발형 직업교육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향후 이러한 직업분야의 구인 시장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중요한 인력 공급처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관련 분야 취업처 대상 홍보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 선행연구에 따르면 새일센터 인턴십 사업의 경우

고용유지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턴십 후 약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거의 40%에 달하는 여성들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유도 회사측 사유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한 비율이 84%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최윤선 외, 2014). 제주지역 새일센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취업 연계가 이루어진 여성들의 고용유지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이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함

⑤ 농촌 여성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새일센터)

○ 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농촌여성(읍면지역 여성)이 생각하는 농촌여성의 어려움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이 2위로 나타났고, 농촌여성 복지증진 지원 정책 수요에 있어서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교육'이 2위로 높게 나타남
- 농촌 여성들에게 1차산업 외의 농가 소득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현재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농산품 가공 등을 위한 물적 인프라 및 기술 지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농업기술원은 1차산업의 발전에 주력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다양한 소득활동을 직업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
- 농촌 여성들이 1차산업 외의 다양한 직업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추진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여성을 위한 창업아이템 발굴, 취업처 발굴, 취·창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농촌 여성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 향후 여성가족부의 농촌형 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유치

다.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컨설팅 지원

○ 배경 및 현황

- 본 연구에서 제주도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음. 장시간 근로관행은 양육이나 돌봄,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시간의 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줌
-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로써 일종의 ‘시간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고(정형욱 외, 2013), 정부는 동 제도가 경력단절을 해소하면서 사업주도 고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침임

※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요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고, 그동안 1년까지 가능한 육아 단축 근무를 2015년부터 최대 2년으로 확대가능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경영 컨설팅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제도 이용에 애로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수요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 규칙 정비,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하도록 함

② 제주 일·가정 양립 제도 지원 인프라 구축

○ 배경 및 현황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과반수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일부 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2012년부터 ‘직장맘지원센터’(시예산, 민간위탁)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가정양립지원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운영)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국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2014년부터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음(현재 경기도 성남시와 시흥시, 부산시, 울산시, 충남 당진시, 경국 구미시 등에서 시범운영 중)
- 일·가정 양립 지원은 도민의 정책 수요도 높고, 우리사회에서 제도도 상당 수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 이용이 부진한 실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전문 인프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추진 내용

- 제주 일·가정 양립 제도 지원 인프라 구축
 - 목적 : 남녀 근로자 모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내용 : 일·가정 양립 고충 상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홍보 및 제도 이용 상담, 육아휴직·시간제근로·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지원, 일·가정 양립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 방향 : 남녀 모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함

③ 제주특별자치도 일·가정 양립 지표 개발·관리

○ 배경 및 필요성

- 일·가정 양립은 보육, 가족친화 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여성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마련과 정책 지원, 그리고 인식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

- 정부는 2014년부터 「일·가정 양립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생산·관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표 체계」는 보육, 가족친화, 휴가, 노동시간, 여성인력의 5개 정책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표 3-2> 참조)
- 제주지역에서도 제주사회의 일·가정 양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 기를 조성하도록 함

〈표 3-2〉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표 체계

보육(4)	가족친화(4)	휴 가(2)	노동시간(4)	여성인력(5)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대비보육재정 비중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자녀연령별 시설이용 및 가정양육 아동수 ◦사업체의 보육 시설 설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 ◦가족친화인증 기업체수 ◦가사노동시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근로자대비) ◦육아휴직자의 직장유지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 취업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 ◦부모의 근로시간 ◦맞벌이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고용률 ◦맞벌이가구 비율 ◦경력단절여성 규모 ◦경력단절 사유 ◦경력단절 경험유무

주 : 통계청, 2014. p.2.

○ 추진 내용

-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표체계를 반영한 제주의 일·가정 양립 지표 개발을 통하여 전국 대비 제주사회의 일·가정 양립 수준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함
-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가정의 날’ 운영, 사회복지사 대체 인력 운영, 육아휴직 제도 운영 등의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들에 대한 행정지표를 일·가정 양립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제주형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함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공유 : 현재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들은 부서 특성에 따라 ‘근로자 사기진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목표 내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예컨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가정의 날’ 사업은 ‘근로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의 차원이 아닌 기업/조직 중심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사업들을 지표화하여 공표(예: 매월 운영되는 도정 시책 간부회의에서 공표)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공무원 인식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됨

④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필요성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 대하여 남녀의 경험과 인식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이 드러났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함
- 우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55.4%)이 남성(35.1%)보다 월등히 크고, 제주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으로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여성(2순위)이 남성(4순위)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제주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하여 사회 각 부문별로 조사한 결과, '가사, 육아, 가족생활'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 인식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나아가, 제주사회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가사, 육아부담' 등 남녀 불평등 개선'에 대한 수요는 여성에게 정책 우선순위 3위로 나타났으나, 남성에게는 최하위인 8위로 나타남
- 종합하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전히 여성의 어려움으로 경험되는 경향이 강하고, 가사, 육아 등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남성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임
- 일·가정 양립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문제이며, 남성들은 남편으로서 가사와 육아의 공동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남성대상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추진 내용

- 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버지 교실 등 가족교육 및 가족문화 사업 확대
- 방향 : 현재 진행되는 아버지 교실 사업은 대체로 아버지-자녀 관계 증진의 차원에서 양육자로서의 아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은 편임. 부모로서의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함(예컨대, 남성의 가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질적인 가사노동 실습 프로그램 확대)

라. 자녀돌봄 지원

① 지역사회 육아나눔터 운영 및 점진적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건강가정지원센터)
 - 개요 :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 네트워킹
 - 참여 대상 : 맞벌이·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며, 주로 미취학 자녀들이 이용
 - ※ 2014년 기준, 전국 35개 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운영
 - 사업 내용 : 제주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대상 육아나눔터(가칭) 운영 확대
 - 개요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등을 활용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놀이공간 제공, 영유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등

②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등 다양한 어린이집 확대

- 필요성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영유아 자녀 돌봄을 위한 정책육구로 시간연장형,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수요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나아가 이러한 정책육구는 특정 집단에 따라서는(읍면지역, 30대 연령층, 맞벌이 가정, 기혼자 등) 영유아 돌봄지원 정책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나타남. 이에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시간연장, 휴일보육 등 다양한 어린이집 확대
 -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 이후 최대 24:00까지 보육 지원

- 휴일보육 어린이집 추가 지정 및 지원 : 제주지역의 산업특성 상 일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부부나 취업모, 농번기 농촌지역의 상황을 감안한 보육
-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확대 : 부모의 요구 및 지역별 산업특성에 근거한 지역별 24시간제 어린이집 추가 지정
- 시간제(일시) 보육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인 경우 맞벌이부부나 취업 여성들이 갑작스런 출장이나 야근 시 자녀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 장애아수요에 부응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 운영 및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교직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등 지원, 장애아 보육 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마. 지역사회 안전 강화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 · 도시개발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지역사회의 폭력, 절도/강도, 야간보행 등의 차원에서 도민이 느끼는 안전감은 절반이하로 낮으며, 안전수준 인식은 행정시 또는 동·읍면 지역 등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안전 및 도시개발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의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통하여 여성의 정책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 관련 사업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및 정책 환류 강화
 - 안전, 교통, 소방, 도시개발 등 지역균형 발전 관련 마을 육성 사업 등과 관련한 조례, 단위 예산사업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에 위한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대상 과제 선정, 담당 공무원 컨설팅 지원, 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강화

② 여성폭력 통합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 배경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 및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남.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폭력 발생 현장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내용 : 경찰, 1366, 해바라기센터,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 등 여성 폭력 관련 기관들 간에 신속한 연계를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 지도록 통합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 강경희·홍봉기·김영보. 2006. 「제주 여성농업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강경희. 2007. 「제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강대옥·류상부·고정자·강미영. 2008.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지원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강대옥·임애덕. 2003. 「부부양성평등 북제주군민 의식조사」. 북제주군 여성발전위원회.
- 고의경. “제주지역 여성정책 과제선정을 위한 욕구조사를 통해 본 제주도 여성정책”. 「지역 여성정책 과제선정을 위한 욕구조사를 통해 본 제주도 여성정책」 토론회 자료집. 제주여민회.
- 고재문·김정현·오충진·김우실·강미라·김은정·현진희·이경란·임순자.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여성 근로자 고용성차별 실태 및 권익증진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체 여성근로자 고용실태와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 고지영·강대옥·문순덕. 2014.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고지영·양정선·최인선. 2011. 「폐경기 여성의 삶의 질과 정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권희정·염미경. 2014.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 : 가족실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김대호. 2008. 「출산여성의 사회진출 욕구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김진영·남진열. 2005. 「직장여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근무만족도 조사」.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
- 김진영·임애덕. 2002. 「제주지역 대학생의 성, 가족 및 정치참여 의식조사」.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김태홍·양인숙·김영택·황정임·배호중. 2012. 「2012 여성정책 수요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순덕. 2010. “제주도 여성정책의 연구 동향”. 「정책포커스」 61.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김혜숙·고승한·강대옥·김효선·진관훈·황석규. 2010.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중기계획(2011~2014)」. 제주특별자치도.
- 문순덕·김진호. 2011. 「제주지역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 지방의회 진출 여성 도의원을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 변은지. 2013. 「2013 서울시 4050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 2013.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이경숙·이영석·김수연·김정희. 「2040 경북여성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이연화·홍연숙. 2014.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 가정폭력 실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화진·홍연숙. 2014.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실태조사 : 성폭력 실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임애덕·류상부·현문규·강미영. 2009. 「제주지역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임애덕. 2007. 「제주특별자치도민 출산 가치관 및 출산장려 정책 조사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정대연·김익상·정민. 2004. 「제주도 소속 여성위원들의 활동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정민. 2006. 「제주여성의 저출산 원인과 실태 및 정책선호도 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정민·류상부·현문규·강미영. 2009. 「제주지역 여성의 출산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 정인선·서영주·김상돈·김애령. 2010. 「민선5기 서울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승훈·김태윤. 2007. 「제주지역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 정영태. 2010. 「제주지역 여성폭력실태와 예방프로그램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김혜숙·강경숙. 2009.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김혜연. 2005.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제주발전연구원.
- 정영태·조영희. 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정형옥·이정의·최지현. 2013. 「지역여성 일자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방안 연구: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기도.
- 정형옥·안태윤·최지현. 2012. 「2012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제주여민회. 2007.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생생마당 :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 개인의 일상경험을 중심으로」 자료집. 제주여민회.
- 주재선·김원홍·박건표·손현민. 2014. 「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선·심혜인·이상아·정수경. 2014. 「경기도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실천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통계청. 2014. “「일·가정 양립지표」 서비스 실시” 보도자료. 2014.10.31.

부록.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여성 및 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주도민의 일, 가족, 여가생활 등에 대한 생각들과 남녀가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을 만드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무기명 통계처리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5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현혜순

<연구 및 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고지영 ☎ 064-710-4971

조사책임자: 미래리서치 대표 양진철 ☎ 064-755-0073

SQ 1) 거주지	1) 제주시 동 2) 제주시 읍면 3) 서귀포시 동 4) 서귀포시 읍면	_____동/읍/면
SQ 2) 성별	1) 남성 2) 여성	
SQ 3) 연령	만 _____ 세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은 면접 중단)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	---------	---

※ 면접원 : 설문 종료 후 기입하세요.

면접원		면접일시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	--	------	--

문10. 귀하는 제주사회가 남녀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도지사의 성평등정책 관심과 지원
- 2)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 3) 여성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 4) 기업, 조직, 직장의 성차별 문화 개선
- 5) 일반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인식 개선
- 6) 가사 및 육아부담의 남녀불평등 개선
- 7) 남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 8) 기타()

문11. 귀하는 정치 분야에서 제주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지역구 선출직 국회의원의 30% 여성 후보 할당 의무화
- 2) 여성후보자 다수 추천 정당에게 보조금 지급 확대
- 3)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 4)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40% 위촉 의무 강화
- 5) 공무원 여성 관리직 승진 할당제 도입
- 6) 차세대 여성 정치 후보자 발굴 . 육성
- 7) 기타()

C. 경제활동 및 일 . 가정 양립

문12.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일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 1) 예 ☞ 문 13으로 이동
- 2) 아니오 ☞ 문 14로 이동

문13. (일하고 계신 분만) 아래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응답 후 ☞ 문 19로 이동)

13-1. 직종 (하시는 일)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직 종사자 6)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기타(무엇:)
13-2. 종사상의 지위 (일의 형태)	1) 상용직(1년이상 계약, 정규직) 2) 임시직(1개월~1년 미만 계약) 3) 일용직(1개월 미만 계약, 일당 받음) 4) 고용주 5) 자영업자 6) 무급가족종사자
13-3. 직장 규모	1) 1~4인 2) 5~9인 3) 10~29인 4) 30~99인 5) 100~299인 6) 300~499인 7) 500인 이상
13-4.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 평균 <input type="text"/> 시간
13-5. 월 평균 소득	월 <input type="text"/> 만원
13-6. 근로소득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보통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13-7. 전반적 일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보통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 14~18 : 현재 미취업자만 응답

문14. 귀하는 과거에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르바이트, 농사, 가족 사업에 무급으로 일하는 것 등도 포함)

- 1) 있다 ➡ 문 14-1로 이동 2) 없다 ➡ 문 15로 이동

문14-1. 귀하가 일을 그만 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1) 학업이나 취업준비 2) 건강, 질병, 장애문제 3)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해
4) 가사, 육아, 자녀교육 부담 5) 부모 등 가족 간호/간병 6) 회사의 경영악화, 구조조정
7) 계약 만료 8) 상사나 동료 간 갈등 문제 9) 장래성, 발전가능성 없어서
10) 퇴직(정년, 명예) 11) 기타(_____)

문15. 현재 귀하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업중 또는 취업준비 중 2) 건강, 질병, 장애 등 3)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해
4) 가사, 육아, 자녀교육 때문에 5) 부모 등 가족 간호/간병 6) 일을 구하기가 어려움
7) 나의 능력이나 경험 부족 8) 퇴직함 9) 일을 할 필요가 없음
10) 기타(_____)

문16.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의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 1) 전일제 2) 시간제 3) 일을 구하고 있지 않다

문17. 귀하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1) 일반 회사에 취업 2)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3)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4) 자영업, 창업(프리랜서 포함)
5) 기타(_____)

6) 일을 할 생각이 없음 ➡ 문 19로 이동

문18. 귀하가 향후 1년 이내에 일을 구하신다면, 원하는 월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1) 100만원 미만 2) 100~149만원 3) 150~199만원 4) 200~249만원
5) 250~299만원 6) 300~349만원 7) 350~399만원 8) 400만원 이상

문19. 일반적으로 귀하가 제주에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주된 어려움을 우선순위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일자리나 창업 정보를 얻기가 힘들 2) 주위에 일자리 자체가 부족함
3)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 4) 가사, 육아, 자녀교육 부담이 큼
5) 성별, 나이, 학력, 출신지 등으로 인한 고용 차별 6) 나의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함
7) 사업자금 부족 8)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반대함
9) 어려움이 없음 10) 기타(_____)

문20. 귀하는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채용·승진·임금 등에서 남녀 차별 해소
- 2) 청년여성들의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
- 3) 여성 맞춤형 다양한 일자리 창출
- 4)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 5)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 6)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
- 7) 여성친화형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확산
- 8) 장애인, 이주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 9) 기타()

문21. 다음은 제주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이나 창업 관련 지원 기관들입니다. 귀하는 각 기관에 대해 알고 계시고, 이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용한 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인지여부		이용경험 (안다 응답자만)		도움이 된 정도 (이용자만)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고용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3) 여성인력개발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5)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6)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7)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8) 농업기술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9) 제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문22. 귀하는 향후 취업이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문 24로 이동
- 2) 없다 ➡ 문 23으로 이동

문23. 취업이나 창업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취업(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2)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 3) 교육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 4) 인근에 서비스 기관이 없거나 이용이 불편해서
- 5) 가사, 육아 등의 부담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6) 배우자, 가족 등의 반대로
- 7) 상담이나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서
- 8) 기타 ()

문24. 귀하가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강사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
- 2) 저녁, 주말 시간 등 교육 시간대의 유연성
- 3) 교육기관과의 거리, 교통 편의
- 4) 취업·창업과의 실제 연계성
- 5) 자격증 취득 가능성
- 6) 교육훈련 비용
- 7) 교육받는 동안 자녀 돌봄 지원
- 8) 기타()

문25. (여성만 응답) 여성의 고용 지원을 위한 취업(창업) 프로그램 중 귀하가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희망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요리 . 조리(제과제빵, 바리스타 포함) 2) 간병 . 요양보호사 3) 이미용
4) 아이돌보미 등 관련지도사(독서.학습.놀이지도사 등) 5) 컴퓨터 관련 6) 비즈, 도자기 등 공예
7)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 교육 8) 홈패션, 의류수선 등 9) 사무업무 관련
10) 전문강사 교육(성평등, 체험농장, 문화해설사 등) 11) 회계업무 관련 12) 회사경영 관련
13) 텃밭 가꾸기, 농식품 가공 등 농업 관련 기술 14) 기타()

문26. (모두 응답) 귀하는 평소에 일과 가정생활(또는 개인생활)을 병행하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분도 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해 주세요.

- 1) 매우 어렵다 2) 다소 어렵다 3) 보통이다
4) 별로 어렵지 않다 5) 전혀 어렵지 않다

문27. 다음은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들입니다. 귀하는 각 제도들에 대해 알고 계신지, 그리고 각 제도들이 제주사회에서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 .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여부		제도에 대한 평가 (안다 응답자만)			
	안다	모른다	전혀 잘 안되고 있다	별로 잘 안되고 있다	대체로 잘 되고 있다	매우 잘 되고 있다
1) 출산전후 휴가	①	②	①	②	③	④
2) 배우자 출산휴가	①	②	①	②	③	④
3) 육아휴직	①	②	①	②	③	④
4) 가족돌봄휴직	①	②	①	②	③	④
5) 시차출퇴근 등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6)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7) 아이돌보미 등 보육지원 제도	①	②	①	②	③	④

문28. 귀하는 제주도민의 일 . 가정생활 병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2)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지원
3)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4)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5)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어린이집과 보육서비스의 확대
6)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하도록 하는 제도와 문화 확산
7) 기타 ()

문29. 귀하는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 2) 가족생활과 육아에 호의적인 기업 문화 확산
- 3) 육아휴직 급여 인상(현실화) 등 제도적 지원 확대
- 4) 아빠교실, 남편교실 등 남성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확대
- 5)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체험, 문화 프로그램 확대
- 6) 기타 ()

D. 자녀 돌봄, 가족생활

문30. 귀하의 자녀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이상 5) 없음 → 문 33으로 이동

문31. 귀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문 32로 이동

문31-1. 귀하가 현재 5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 2)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
- 3) 자녀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움 4) 양육비용 부담
- 5)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의 어려움 6) 양육관련 지식이나 정보 부족
- 7)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공간, 프로그램 부족 8) 기타 ()

문32. 귀하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문 33으로 이동

문32-1. 귀하가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1) 직접 자녀를 돌봐 줄 시간 부족 2) 자녀의 학습지도 및 인성 교육 어려움
- 3) 방과 후 돌봄 문제 4) 주말, 휴일, 방학 동안 돌봄 문제
- 5) 양육 및 사교육 비용 부담 6) 일을 하거나 개인 시간 활용 등의 어려움
- 7)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공간, 프로그램 부족 8) 기타 ()

문33. (모두 응답) 귀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2) 직장어린이집 확대
- 3) 시간연장, 야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 4)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 소규모 공동육아 지원 5)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6) 가정파견 보육서비스 확대(예: 아이돌보미 등)
- 7) 자녀 양육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상담, 교육 제공 8) 자녀 양육수당 확대
- 9)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예: 육아나눔터, 놀이체험 공간 등)
- 10) 기타()

문34. (모두 응답) 귀하는 초등학교 연령대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예: 초등돌봄교실)
- 2) 휴일, 방학동안 자녀 급식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3) 가정파견 돌봄서비스 확대(예: 아이돌보미, 학습지도사 등)
- 4) 교육비 지원
- 5) 자녀양육관련 다양한 정보 및 상담, 교육 제공
- 6)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 7) 기타(_____)

문35. 귀하는 요즘 청년세대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
- 2)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주거 지원
- 3) 결혼비용 간소화 등 혼례문화 개선
- 4) 결혼, 출산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불이익 해소
- 5)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강화
- 6) 자녀 양육 지원 확대(어린이집, 양육비용 등)
- 7)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개선
- 8) 기타(_____)

문36. (기혼자만) 귀댁에서는 가사노동을 주로 누가 합니까?

- 1) 전적으로 아내가
- 2) 대체로 아내가
- 3) 부부가 똑같이
- 4) 대체로 남편이
- 5) 전적으로 남편이
- 6) 기타(다른 가족, 가사도우미 등)

문37. 귀하는 현재 가족생활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 2) 다소 만족
- 3) 보통
- 4) 다소 불만족
- 5) 매우 불만족

문38.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정책들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들이 우리사회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이용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강가정 지원 프로그램	정책의 필요성				이용 의향	
	매우 필요	다소 필요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있다	없다
1) 가족교육(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부부교육 등)	①	②	③	④	①	②
2) 가족상담(부부상담, 부모·자녀관계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①	②
3) 가족돌봄, 나눔문화 확산(가족봉사 등)	①	②	③	④	①	②
4) 자녀돌봄 지원(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	①	②	③	④	①	②

문39. 귀하는 다음의 가족유형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2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맞벌이 가족
- 2) 저소득 한부모 가족
- 3) 조손가족
- 4) 1인가구
- 5) 장애인 가족
- 6) 독거노인 가구
- 7) 이주민 가족
- 8) 기타(_____)

문40.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정책들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제주의 정착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착 주민이란 해외나 타 시도(육지)에서 제주로 이주해 온 주민들을 말합니다)

-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착 관련 각종 정보제공
- 2) 정착주민에 대한 창업, 취업 정보 제공 등 경제활동 지원
- 3)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 4)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
- 5)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 6)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경력 등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 7) 기타 ()

E. 건강, 여가, 문화

문41.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십니까?

- 1) 매우 좋다 2) 대체로 좋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문42. 귀하는 제주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임신 .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 포함)
- 2)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건강증진 지원
- 3)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 지원 강화
- 4)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 5)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보급 . 확대
- 6) 직장 여성을 위한 주말 공공 의료 서비스(보건소 등) 제공
- 7) 기타()

문43. 귀하가 여가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기준으로 평균 몇 시간 정도입니까?

일주일 평균 () 시간

문44. 귀하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여가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보통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문45. 귀하가 여가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가사, 육아, 가족 돌봄 부담 2) 시간 부족
- 3) 돈 부족 4) 주위에 마땅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부족
- 5) 교통, 이동 불편 6) 건강, 나이, 장애 등
- 7) 여가생활을 같이 할 사람이 없음 8) 기타()

문46. 귀하는 제주도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 . 여가시설 확대
- 2)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 여가 프로그램 확대
- 3)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 여가 프로그램 확대
- 4) 주말, 저녁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 . 여가 프로그램 확대
- 5) 문화, 여가활동 소모임을 위한 공간 제공 등 인프라 지원
- 6) 기타 ()

문4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시며, 기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기기 보유 여부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1) 컴퓨터	①	②	①	②
2) 핸드폰(통화 등 단순 기능)	①	②	①	②
3) 스마트폰	①	②	①	②
4) 인터넷	①	②	-	-
5)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①	②	-	-

문48. 귀하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다음 중 어느 분야입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기초/문자해독 교육
- 2) 학력보완 교육(검정고시 등)
- 3) 직업능력향상 교육
- 4) 인문교양 교육
- 5) 문화예술 교육
- 6) 시민참여 교육
- 7) 컴퓨터, 인터넷 관련 교육
- 8) 외국어 교육
- 9) 기타()
- 10) 받고 싶은 교육이 없음

문49. 귀하는 제주의 농촌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움
- 2) 건강상의 어려움
- 3)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로 제약이 많음
- 4) 농기계나 시설 사용이 어려움
- 5)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함
- 6)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시간을 갖기 어려움
- 7) 육아, 돌봄 등 가족부양의 어려움
- 8) 사회활동, 문화활동, 자기개발 등을 할 데가 부족함
- 9) 특별한 어려움 없음
- 10) 기타()

여성 . 아동 안전 정책	매우 필요	다소 필요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1) 방법 취약 지역 CCTV 설치	1	2	3	4
2)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1	2	3	4
3) 경찰의 순찰 강화	1	2	3	4
4)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1	2	3	4
5) 여성과 아동을 위한 택시 지원 등 안심 귀가서비스 운영	1	2	3	4
6) 독거 여성을 위한 방법서비스 지원	1	2	3	4
7) 호신술 등 폭력 대응을 위한 체력단련 훈련 지원	1	2	3	4
8) 폭력 예방 등 각종 안전 관련한 교육 확대	1	2	3	4

문54. 귀하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 | 2)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 3)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 | 4)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습 개선 |
| 5) 가정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TV 공익광고 등) | 6) 기타(_____) |

문55. 귀하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성폭력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 제도 강화 |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 3) 가해자 상담, 교육 등 교정치료 강화 | 4) 지역 내 우범지역 개선 및 치안유지 |
| 5) 성폭력 관련 정책 홍보 강화(TV 공익광고 등) | 6) 기타(_____) |

문56. 귀하는 성매매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2)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정 대처 |
| 3) 성매매가 발생하는 지역 및 시설 단속 강화 | 4)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확대 |
| 5) 성매매 피해 여성 자립지원 | 6)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확대 |
| 7) 기타(_____) | |

※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57. 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 가족 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 | |
|----------------|----------------|---------|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대체로 잘 알고 있다 | 3) 보통이다 |
| 4) 별로 잘 알지 못한다 | 5) 전혀 잘 알지 못한다 | |

문58. 귀하는 다음의 여성 . 가족 정책 분야에서 제주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 3) 자녀 돌봄, 양육 지원 확대 | 4)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강화 |
| 5)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6) 가족상담, 가족 교육 등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 |
| 7) 여성의 건강 증진 지원 | 8) 취약 여성.가족 복지 증진(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등) |
| 9) 기타(_____) | |

♣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발행일 2015년 7월 31일

발행인 현 혜 순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Tel. 064)710-3482, Fax. 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처 참디자인(064-712-0703)

ISBN 979-11-954366-5-1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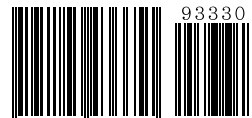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바매품



9 791195 436651 93330
ISBN 979-11-954366-5-1